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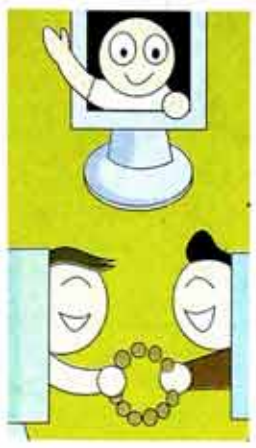
오계를 잘 지켜야 계근이 높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진언이 어김게 되며
지혜는 누구에게나 귀중한 보배이며
닦은 공덕은 도적이라도 훔쳐가지 못하느니라.
-잡아함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식탁용식의 모든 것
책임 상담께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70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6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276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배종호 불자(44). 그의 아내는 99년 9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 아내의 투병생활을 지켜보던 배씨는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난 6월 8일 생명나눔실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배씨처럼 생명

안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나눔실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신청을 하는 사람은 한달 평균 50여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이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www.lisa.or.kr), 좋은 벗들(www.jungto.org/gf), 불교환경교육원(www.jungto.org/baea),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www.dharmanet.net/jaega) 등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회원 또는 방문객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을 활용,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불교시민운동

사이버 활동 강화

그러나 홈페이지의 자료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불자들이 사이버 시민운동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시민단체별로 홈페이지가 전문화 특수화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들간의 연대 강화, 정보공유 등도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불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현실세계의 한정된 시민운동이 사이버 세계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과 스님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들의 인식변화, 즉 정보화 마인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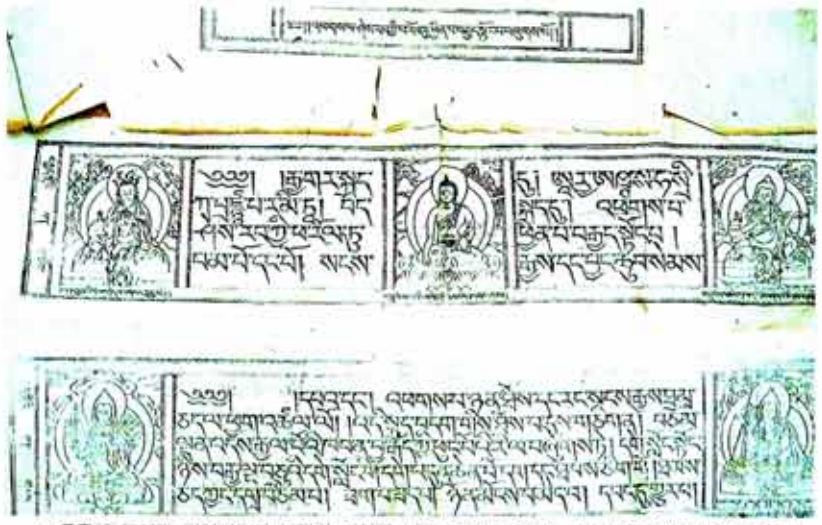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대한불교 예술원
전화 : 02)930-1681 / 011)336-5200
■법당내부(탁자 · 닫집) 전문시공 업체
■목탱화 · 영단 · 대웅전 · 단청 · 탱화 불사

"동국대 도서관 지하서고 방치 33년

티베트 대장경 연구하자"

1967년 달라이 라마 기증…"논리 · 반야 · 중관 · 밀교학 寶庫"



◇동국대 도서관 지하서고에 보관된 라사판 티베트대장경(일부). 라사판은 경전부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티베트인들이 세밀한 문법적 검증을 해 가장 완벽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분류목록 조차 없어

동국대 도서관에 1967년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사판을 비롯해 4가지 판본의 티베트대장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더욱이 "서장대장경을 연구해 동국대가 동양 제일의 불교센터가 되길 기원한다"는 달라이 라마의 뜻이 담긴 라사판의 경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분류목록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지하서고에 보관되고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티베트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티베트대장경은 '유물'로서의 가치보다는 학술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며 "동국대 소장 티베트대장경을 관련 학계에서 적극 활용해, 티베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불교학계는 티베트불교와 관련된 세미나를 한 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고, 관련 논문도 수 편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 성과와 학자층이 극히 엷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사판 티베트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동경대학은 1965년에 티베트대장경 목록을 작성하고, 미국 세계종교연구기구(LASWR)는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해 불교학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티베트불교에 대한 국내 학계 연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승규(동국대 강사) 박사는 "티베트대장경은 한역대장경에 소개되지 않은 다수의 '인도후기불교' 경전이 수록되어 있다"며 티베트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지적했다. 특히 한역대장경에 없는 경전들은 주로 논리 · 반야 · 중관학과 밀교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경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현대 인문 · 철학계의 '화두'라는 게 양 박사의 설명이다.

이태승(위덕대) 교수는 "티베트대장경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티베트불교를 이해하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인도후기불교 경전에 녹아있는 불설(佛說)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이 귀중한 자료를 단순히 보물시 하고 봉안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불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구도자적 의욕을 왕성히 해야 할 것"이라는 故 이기영 박사의 말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에서 동국대에 소장된 라사판 등 4가지 티베트대장경에 관심을 갖고, 한역대장경에서 잃어버린 인도의 후기대승불교의 고리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정성준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현재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관련 학계에서 이들이 활발히 연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다면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이정빈 외교장관 밝혀

방한준비위 "평화축제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책질의에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마친 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대표 법장)'는 "정부의 입장변화는 김 대통령이 교황의 북한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비되는 종교적 균형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는 27~29일 방한하는 티베트망명정부의 동아시아 · 일본대표부 대사인 자들 린포체와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정의화 김영춘 정인봉, 민주당 이호웅 송영길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성운 · 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맞을 준비"

정대스님, 종무회의 지시

조계종 종무원장 정대스님은 19일 종무회의를 열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영접 등을 조계종에서 할텐데 이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무부는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의전, 정대스님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 · 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전각종 통리원 · 조계사 · 한마음선원 · 봉은사 · 삼보사 · 보덕학회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의료폐업 철회 촉구

조계종 "환자 외면 말라"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21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자들을 외면한 집단 폐업은 아무런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집단 폐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의료계가 의 · 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며 폐업에 나서고 있지만 시행을 눈앞에 둔 의 · 약분업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 3자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그 시행으로 의료계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과의 약속을 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정부도 의료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열린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영산대재 남북 공동봉행"

태고종, 조불련에 제안

태고종 종무원(원장 인곡)은 23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의 불교도들이 공동으로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 광법사에서 봉행하자"고 제안했다.

태고종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에 입각해 남북불교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단청기술자를 파견, 북녘의 기존 사찰, 또는 신축 사찰 중에서 지정하는 사찰의 단청불사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제안을 받습니다

종립학교(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종단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종립학교에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큰 물결을 헤쳐 나갈 결단과 지혜, 그리고 원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뭇거린다면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뒤쳐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불교인재 양성과 불법홍포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단의 노력도 더욱 요청됩니다.

이에 종단의 종립학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여 불교이념을 교육으로 올바르게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종립학교 관리 업무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하여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종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종도 여러분들의 고견 하나하나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다 음 -

1차 제안대상 : 1) 동국대학교
2) 중앙승가대학교

※ 본종의 종립학교인 능인학원, 원효학원, 영축학원, 금정학원, 광동학원, 청담학원, 보문학원, 정광학원 산하 소속 학교 등에 대하여는 추후 제2차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해 주실 내용 :** 1) 종립학교(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과제와 방안
2) 종단의 효율적인 종립학교 관리 방안
3) 타 종교 종립학교 모범 관리 사례 4) 기타 종립학교 발전과 개선할 점에 대한 사항

■**방 법 :** 우편 및 전송, 홈페이지 이용
▶우 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전 송 : 02)733-8286 ▶홈페이지 : http://www.kbco.or.kr

■**문 의 :** 중앙종회 사무처 02)735-5860

■**기 간 :** 불기 2544(2000)년 12월 31일까지

■**기 타 :** 1) 종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종립학교 발전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2) 보내주신 고견 가운데 우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는 종립학교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사무를 담당할 상근직 전문위원(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기 2544년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 학 담

정부 포교사 지원사업 펼친다

문화부 2억4천만원 예산 책정…종단협에 주관제의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가 주한 외국인 승려 및 해외거주 또는 해외파견 예정 포교사(스님)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포교 및 민간외교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포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불교포교사 지원예산 2억4천만원을 책정한 문화관광부는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초청 한국문화 소개, 파견예정 국제포교사 한국문화 소개, 주한 외국인 승려 한국문화 소개, 주한 외국인승려 체험수기 공모, 한국문화 홍보자료 지원 및 제작 등 5개 프로그램 시행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단협(회장 정대)은 22일 문화관광부 이승진 종무1과장,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과 조계 태고 진각종과 원불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 회의를 갖고, 종단협 사무국장과 조계 태고 진각종, 원불교 담당 부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포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운영위 1차회의는 27일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날 구체적인 실시내용을 의견조율키로 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한국문화 소개프로그램은 해외거주 국제포교사와 파견예정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며,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김순규 문화관광부차관)' '한국문화의 이해(정재훈 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미래상(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강의와 경주불국사 도자기제조체험 민속박물관 목아박물관 민속촌 국악공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국문화 소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 종단별 참가대상 해외거주 국제포교사는 조계종 7명 태고·진각종 2명 원불교 3명 등 14명이며, 파견예정포교사는 조계종 20명 태고종 진각종 원불교 각 5명 등 35명으로 총 49명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한국에서 장·단기로 활동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과 관련한 시, 수필, 수기등의 원고 모집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하며, 원고는 책자로 발간해 국·내외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한국문화를 알리는 한국소개책자, 한국소개 비디오테잎, 불국사와 석굴암 소개 CD, 문화상품 등을 제작하여 해외포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문화관광부의 국내거주 외국인 스님 및 해외포교사 지원사업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외국인 스님의 한국이미지 제고와 현지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거주 포교사들에게 문화적 소양교육을 실시해 한국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관광입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2차 포교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내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계의 경우 국내 외국인 승려 및 포교사는 조계종 100명 태고종 3명 진각종 2명이며, 해외거주 국제포교사는 조계종 150명 태고종 20명 진각종 10명, 파견예정 포교사는 조계종 35명 태고종 10명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승가고시법 전면 개정

도제양성-승려자질 향상 체계 확립

조계종 승가고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제양성과 승려자질 향상을 위한 고시체계 확립이 본격화됐다. 이로써 15년만에 승가교육 관계자들이 제안해온 승가고시 시행이 종단차원에서 이뤄지고, 고시법 제도개선의 길이 트였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20일 종무회의에서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승가고시법 시행규정은 기존의 8개 조문을 13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체화 했으며, 1급에서 5급에 이르는 승가고시중 4,5급 고시는 교육원장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고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했다. 또 고시업무 시행주체를 총무원에서 교육원으로 이관했으며, 종단 기초·기본·전문 교육기관 교역자로 구성하는 9인의 고시위원회에서 승가고시를 맡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계성스님(교육부장)은 "이를 계기로 향후 전문, 특수및 재교육 사업의 방향과 3급 이상의 고시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법계제도의 여법한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서울 광역신도회 추진

중앙신도회, 간담회 개최

서울광역신도회가 창립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서울광역신도회 구성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7월 4일 오후 7시 조계사 회의실에서 사찰신도회, 신도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계사 봉은사 등 24개 사찰 신도회와 교정인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등 21개 신도연합단체 임원이 참가하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신도회 소개, 광역신도연합회 준비위 구성, 창립일 및 추진일정 협의, 창립준비에 따른 역할분담 등의 안건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기획실장-일철스님
사서실장-성국스님

조계종총무원 부분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1일 기획실장에 문화부장 일철스님〈사진〉, 사서실장에 성국스님을 전보 및 승진 인사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화부장은 추후 임명한다.

정대스님은 20일 오후 총무원 부,실장 및 국, 차장 전원의 사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기획실장 지원스님과 사서실장 혜완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기획실장에 임명된 일철스님은 보성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에서 출가, 75년 사미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또 98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99년 총무원 문화부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성국스님은 지성스님을 은사로 선운사에서 출가, 80년 사미계, 8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선운사 교무국장,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호압사와 중생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총무원장 사서차장 소임을 수행해 왔다. 정성운 기자



◇아셈 2000 민간포럼종교분과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세계화와 영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 무엇인가

아셈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워크숍

아셈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사전워크숍이 21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와 신도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화와 영성(靈性)'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세계화와 종교적 대안"을, 성공회대 권진관교수가 '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 최재선 사무국장이 '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계화의 과정을 인간화시키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한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세계화가 인간 내면의 잠재성을 자유롭게 발현시키는 발전이 아닌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발전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세계화는 세상 안에서 실천적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에게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존 종교의 훌륭한 영성적·정신적 전통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륜스님은 "세계화에 맞는 새로운 종교는 환경·빈곤·분쟁·자아상실 등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깨달은 사람'이 일반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 NGO 4개 단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

좋은벗들, 한국JTS,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4개 불교NGO의 5개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2000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1억2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이번 사업 공모에는 340개 종교·시민단체가 432개의 공공사업안을 제출해 이중 195개 사업을 선정,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좋은벗들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심성수련(2000만원)과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143(2400만원)을, 한국JTS는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 및 연구 워크숍(2000만원)을, 불교환경교육원은 △지역품앗이운동 확대 및 활성화(2000만원),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우리동네 두레살림터(2000만원)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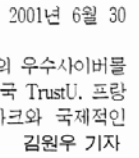
불교TV 회장 성우스님



불교TV(사장 이수덕)는 20일 총지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80% 감자(減資)키로 했으며, 성우스님(파계사 주지·사진)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성우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대표이사에 현 이수덕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덕사장은 "현재 22명의 이사중 출연금을 낸 이사는 절반도 안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 미납 이사들은 제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주일 기자

불교는 21세기 전망밝은 종교

재가연대 6월 포럼서 천주교인 박문수씨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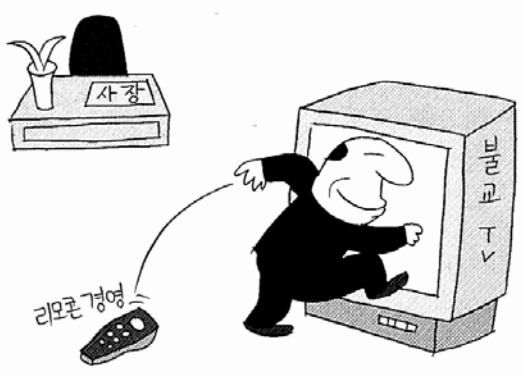


한국에서 불교가 천주교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는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에 뿌리내린 세계관 △불교계의 고승대덕에 대한 한국인의 자연스런 존경심 △탄력성있는 승가 조직구조 △합리적인 교리체계 등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문수〈사진〉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은 21일 재가연대 6월 정기포럼에서 '교단개혁을 위한 천주교 NCO(비제도교회기구)의 경험과 과제'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21세기에 가장 전망이 밝은 종교는 불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불교가 △타종교에 대한 관용성 △전통과 문화적 유산 등의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 불교는 불교개혁세력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정의를 위한 참여 확대, 불교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통한 청정(독신) 이미지 제고, 불교 개혁을 통한 사회적 위신 상승 등이 예상돼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종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임원 선임방법' 신설
동국학원 정관개정

동국학원 정관 개정 문제가 결국 조계종의 의지대로 마무리됐다. 동국학원(이사장 녹원 스님)은 22일 제170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선임방법'(제24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조항은 "제2항의 조계종 재적 승려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단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국학원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증욱 기자

인터넷 '마하몰' eTrust 전문 인증업체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제3회 e-Business대회에서 현대불교 신문사(대표이사 김광삼)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www.mahamall.co.kr)이 eTrust 전문 인증업체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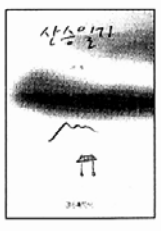
마하몰은 22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상품정보의 편의성, 적절성, 지불수단의 편리성, 고객서비스, 개인정보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한솔 CS CLUB과 삼성물산 삼성몰 등 48개 업체와 함께 eTrust 전문인증서를 받았다.

eTrust인증은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우수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에 부여하며 200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국내의 우수사이버를 인증서인 eTrust마크를 미국BBB, 영국 TrustU, 프랑스L@BELSITE, 싱가폴의 온라인마크와 국제적인 상호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에 힘쓰고 계신
지묵스님의 글모음집

산승일기



《산승일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절집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소묘라 할 수 있다.
선방생활, 총무 소임, 여름철 수련법회 원장 등을
지내며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자들과 접촉이 잦았던 지묵스님은
그간의 절집에서의 경험을 넉넉한 입심으로 풀어낸다.
법정, 성범명, 종철 스님의 이름과 관련한 일화와 전강, 구산, 고암 등
큰 스님들의 비화 등 얘깃거리가 풍부하게 담겼다.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담은
'여름 수련회' 편은 올 휴가철에 '짧은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소재가 될 듯하다.

- 경향신문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신국판/288쪽/8,000원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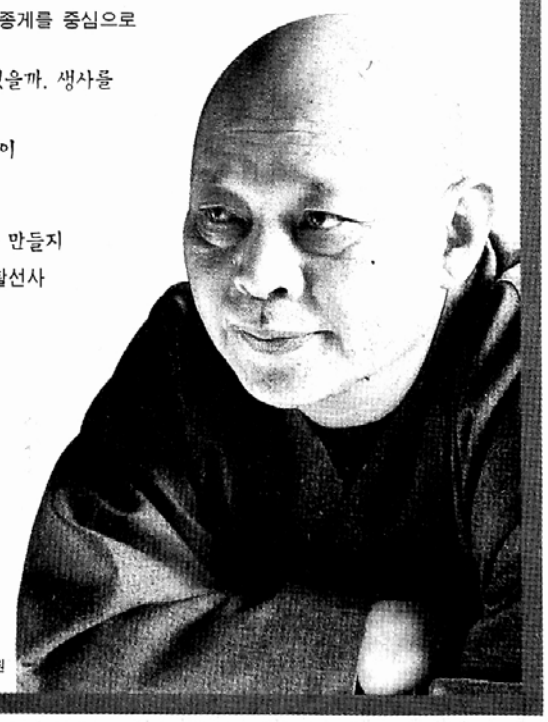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탑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활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 적멸의 즐거움 본문 중에서



우리출판사 전화/313-5047 팩스/393-9696
신국판/240쪽/7,000원

목어

의약분업과 만족 줄이기

어느날 밤에 쥐가 졸고 있는 닭을 잡아먹기 위해 횃대 밑으로 나왔다. 쥐는 닭이 눈치채지 못하게 꽁지쪽으로 다가가 입으로 살짝 물었다. 깜짝 놀란 닭은 게슴츠레한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지만 잽싸게 숨어버린 쥐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자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는 사이 쥐는 계속 꽁지를 물어대 피가 낭자하게 흐르도록 하였고, 닭 스스로는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중생들의 감각기관은 닭과 마찬가지로 각기 자신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눈으로는 듣지 못하고 귀로는 볼 수 없으며, 보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은 귀로, 감촉은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들 감각기관은 예전과 똑 같은 세기의 자극을 가하면 특별한 느낌을 가지거나 만족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닭의 경우는 스스로 원한 자극이 아니었지만 반복되는 자극을 정확히 변별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던 보다 더 센 자극을 원하고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다가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닭이 된다는 것을 의약분업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약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있는 약사들 때문에 의권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의사와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약사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세 집단의 감각기관 만족 늘리기의 폐해에 다름아니다.

전국의 의사들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의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까지 철수하고 폐업하는·강경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다.

중생들의 세상에 황금분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정부와 의협, 약협 그리고 시민단체가 가슴을 연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합의를 못 볼 일이 없을텐데, 아마도 자기집단 감각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현(스님 ·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선전용 종교행사만 허용 변화 기대 아직 이르다

북한의 종교정책 바뀌나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평양에) 오셨으면 좋겠다. 보고 가서 (통일을 위해)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북한 종교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16일 문광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종교 분야를 말씀했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겠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유사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의 연장선상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동안 종교를 부정하거나 대외선전용으로 활용해왔으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후반, 88년 5월 최초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성도절 열반절과 부처님 오신날에 가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다.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88년, 칠골교회가 89년 건립됐다. 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며 '반종교 선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했다.(북한 헌법 68조)

현재 평양에는 사찰 8곳, 성당 1곳, 교회 2곳이 있다. 여전히 종교활동은 부자유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종교활동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하에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극방위원장의 발언은 〈김일성 회고록〉과 허정숙 노당중앙위원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되새기며〉에 나타난 종교 관련 언급과 맥이 닿아 있다. 〈김일성 회고록〉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명제를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오. 일본에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래 아편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울 수 있겠소?" 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에 따르면, 천불교는 한때 항일독립군이었던 정두범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왜놈들에게는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 천지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삼았다.

〈김일성 회고록〉이나 허정숙 모두 항일투쟁을 고무하거나 '건국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통일'에 기여하는 종교를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박장관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당 강령의 개정, 주한미군의 주둔 허용 등이 진전될 경우, 또 천주교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의 방북 여부에 따라 종교정책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성렬 박사(성균관대 정외과 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종교인들의 신앙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얻기 위한 양보의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91년 4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한 스님이 함께 티종을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종교관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TV 기사회생 가능성 있나

새 경영진 15억 출연 악성부채 해결할 듯

파산 위기에 놓인 불교TV가 주식감자와 새 이사 영입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사회생 가능성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불교TV는 20일 총지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추대된 회장 성우스님과 이수덕사장은 함께 이달 말까지 15억원 정도를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30억원에 달하는 급한 악성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감자를 결의함으로써 새 투자자 물색에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채는 24억원 정도의 퇴직자 임금을 비롯해 하나은행 11억원, 금호전기 9억5천만원 등 45억원 정도다. 이중 직원 퇴직금은 이수덕사장이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중 절반을 회사 주식으로 출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만약 성사가 된다면 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은행은 현찰 7억원 상환을 조건으로 4억원을 인하했으며, 금호전기도 보증금을 제외한 8억여원중 5억원만 갚고 3억원은 광고료로 대체키로 한 상태라 경영진의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직원들이 22명으로 감소된 지난 달 5천여만원의 흑자가 나고 있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긴다면 경영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수덕 사장은 "이달 말까지 우선 20억원 정도를 마련해 부채를 일부 상환한 뒤 22명의 이사들중 출연금 미납자들에게 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8월 1일부터 뉴스를 비롯해 동양학 강좌, 청소년 태교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말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일 기자

깨달음 지상주의…일상 삶과 거리감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⑱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대안(1)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일반인에게 선(禪)은 너무나 멀리 있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욱 멀다. 불교가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승려들에게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열심히 수행하는 승려가 전체의 1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10년이나 20년 이상 꾸준히 참선하는 승려의 비율은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낫다. 이 통계는 간화선이 승려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간화선이 이렇게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까닭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얘기하자.

첫째, 선이 일상적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의 선은 일상과 초월 사이의 긴장을 버텨내지 못하고 저쪽 언덕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다. 말하자면 깨달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불교의 최고선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나쁠 게 없다고 하겠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상만 자꾸 들먹이다보면 자칫 깨달음은 현실감 없는 관념으로만 남기 쉽다. 선이 형식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적 삶의 경시는 그대로 계율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 계율은 규제이기 이전에 불교적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계율이 여법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지혜와 선정 역시 온전할 리 없고 결국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계율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는 불교 내적인 장애이자 사회적 입지를 잠식하는 큰 병폐이다.

간화선이 '깨달음 지상주의'로 흐른 것은 원돈법이라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단박'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원돈법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크고 작은 깨달음을 여러 번 거친 예가 많으니 실제로 깨달음에 단계와 대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돈법이라는 자기 규정에 취해서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정도 없고 단계도 없이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은 설 자리가 없다. 대승불교의 가장 원숙한 열매라고 자부하는 선가에서 보살행이 별로 거론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둘째, 간화선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선은 '고통스러운' 좌선에서부터 알 듯 모를 듯한 선문답에 이르기까지 범부들이 접근하기에 여간 껄끄럽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교학)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기대되는 것은 선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밖에 없다. 선은 언설에 의존하지 않는다(不立文字)고들 하지만 선종만큼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는 종파도 드물다. 선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효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생의 무명인 고로 불립문자라기보다는 불체문자(不滯文字)라고 해야 옳다.

선은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선과 앎에 대해 이보다 더 갈끔하게 표현한 예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러하다: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아야 하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알아야 하며, 알되 지식의 한계와 효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간에 화두의 해석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화두는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화두를 '허석'함으로써 화두를 완전히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화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화두는 실참실수를 통해 조사들의 마음에 계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두란 수행자로 하여금 의심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화두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화두에 대한 해석이 의심을 해체해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간화선에 대한 이론 역시 그것이 어떤 전제와 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임인지를 알려준다. 대중은 그러한 정보를 통해 간화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고 흔들림없는 신념을 견지하거나, 바른 수행의 길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무엇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보다 모르고 있을 때 더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무지는 불편한 것일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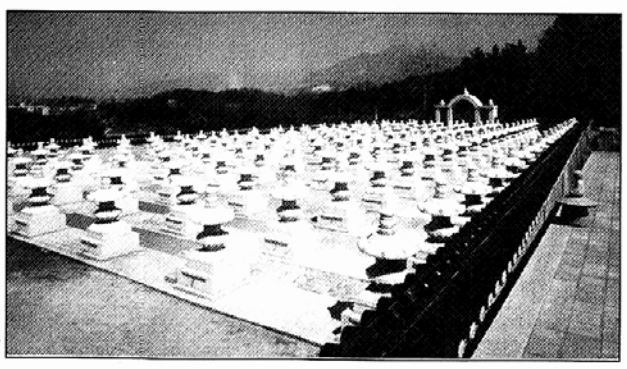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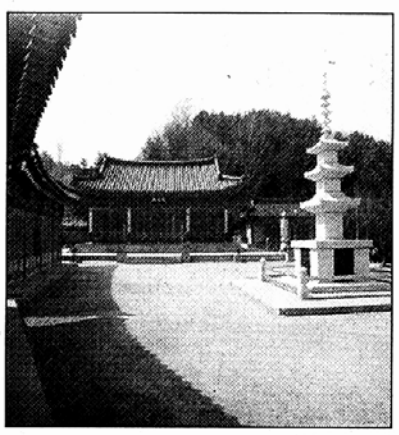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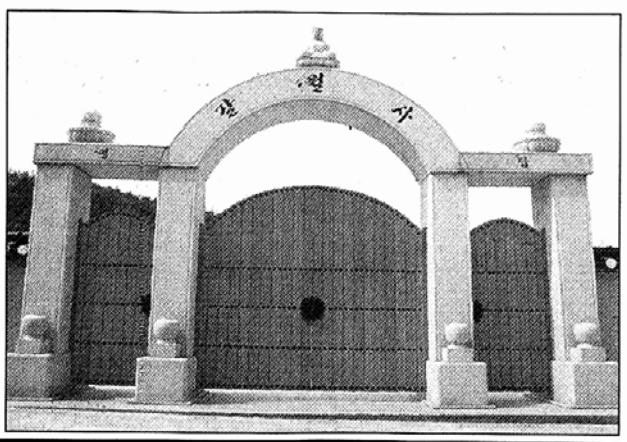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날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산골 노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전남 용덕사 주지 종수스님



6년간 모은 2천4백만원 불교TV · 동국대에 쾌척

한 노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좌의 부축이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30여 년 동안 산골 절에서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살며 불사에 매진해온 비구니 종수(78세 · 용덕사 주지)스님이 20일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불교TV와 불교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에 1천만원과 1천4백만원을 각각 희사하기 위해서다. 이 돈은 지난 6년간 신도들이 약 사드시라, 양말 사 신으시라며 건넨 보시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모은 금액이다.

종수 스님이 30년 동안 일궈온 용덕사가 위치한 전남 무안군 해제면은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의 고향이자 성지로 조성돼 있는 곳. 교회만 18곳이 들어서 있다. 그야말로 신도 하나 늘이기가 힘들고, 절 살림을 꾸려가기도 벅찬 지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집의 곳간을 채우기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 위해 노스님이 용돈을 푼푼이 모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종수 스님은 "몸 바꾸기 전에 부처님께 빌어먹은 밥값의 대가로 치르는 것일 뿐 자랑할 일이 못된다"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종수 스님의 상좌 스님은 "신도들이 노스님을 위해 보시한 돈이 었지만 지금껏 당신을 위해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평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던 스님의 말씀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고, 또 "평소 노스님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스님의 삶이 바로 그랬다"고 귀띔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cm)

"장기수 송환은 남북화해의 길"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 공동대표 성관 스님



"비전향장기수를 조건없이 송환하는 것은 남북 화해와 부처님의 자비 · 인권사상을 실현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상임대표이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공동상임대표인 성관(수원포교당 주지)스님은 22일 서울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힌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를 그 어떤 사상과 이념, 주의를 떠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관스님은 "송환 대상자의 기준 [illegible] 가격문제나 상호주의에 따른 선별 [illegible] 시차별 송환을 주장하는 것은 냉전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사고"라면서 "민족의 화해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들추기 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무조건적인 송환은 국제인권협약의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는 출소후 거주지 선택의 자유권을 지닌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지난 98년 7월 4일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남북화해와 통일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불교장기수후원회를 조직한 성관 스님은 그간 이들에 대한 생활재정 후원사업, 매달 통일사랑방 개최, 민주민족열사 영탑묘원 조성사업(파주 보광사), 비전향 장기수 및 양심수 석방사업 등을 펼쳐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연등축제 시상식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20일 올 연등축제 참가단체 시상식을 거행했다. 봉축상에 능인선원, 연등상에 서울 봉은사, 특별공로상에 한마음선원이 각각 선정 수상했다. 또 정진상은 도선사 · 보문종 · 관음사 · 경국사 · 정토법당 · 유니텔 부처님나라, 장려상은 자암 · 진각종 조계사 관문사 청년회와 동방불교대학이 수상했다.



자원봉사련 산불피해지에 성금 전달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18일 강릉시 사천면 산지일대에서 방생선원, 사천왕사, 원당사, 홍제포교원 불자들과 함께 산불피해지역 풀씨파종 행사를 가졌다. 연합회는 이재민돕기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풀씨파종 후원금, 대불련 성금 등 총 600만원과 원당사에서 보시한 쌀 100kg을 강원도청에 전달했다.



부산 직장 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은 20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직장 · 직능 불교신행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 스님을 비롯 30여명의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성민 스님(포교원 신도국장)은 7월 8~9일 열리는 제2회 전국 직장 ·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 설명회를 갖고 부산 신행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군불교진흥회 육군 백두산부대 위문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스님)는 13~14일 육군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종교지도자 전방부대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회장 정각 스님, 자용(수국사 주지) 스님, 원광(삼장문화포교원장) 스님, 국방부 군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칼라TV 1대와 금일봉, 카세트 3대, 초코파이, 과일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일주문

지장정사 탱화 점안법회



도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27일 대구 지장정사 탱화점안법회 및 백중49일 천도기도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053)767-8105

불광사 창건 22주년 법회



지범 제주 불광사 주지는 30일 오전 11시 불광사 창건 2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64)767-2580

100일 천도 법회 봉행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7월2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목정배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초청, 100일 천도재 법회를 봉행한다. (032)933-8234

위빠사나 여름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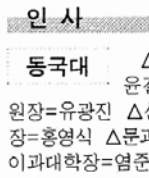
적경 남양주 봉인사 주지는 7월6일~9월2일까지 4 · 7 · 8일 고정 위빠사나, 아봐타 여름수련회를 연다. (0346)574-5585

전북불교회관 원감 취임

각진 금산사 재무국장은 3일 전북불교회관 원감에 취임했다.

왼손작품 80점 전시회

김응현 서예가는 15~18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좌수서전'을 가졌다. 이 전시에는 지난 여름 교통사고 후 왼손글씨 쓰기에 몰두해온 김씨의 작품 80여점이 선보였다.



건강정보사이트 개설



이근후 이화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30일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생활건강정보 사이트 'clinicpark.com' 오픈기념행사를 갖는다.

시민 참선강좌 열어

양재흥 용주사 수원포교당 부설 경기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25일 수원포교당 법당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참선 무료강좌를 열었다. 이날 참선 지도 및 강의는 동국대 선학과 종호 스님이 맡았다.

결식이웃돕기 팬사인회



김영동 작곡가는 18일 결식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맑고향기롭게에 최근 발표한 '和(화해)' CD 100장을 기증하고 길상사에서 결식이웃돕기를 위한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동씨는 "결식이웃돕기는 '和'에 담고자 했던 자연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 사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서윤길 △언론정보대학원장=유광진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홍영식 △문과대학장=김창배 △이과대학장=염준근 △사범대학장=정진환 △학생처장=김용기

희귀병 앓는 유현탁 군 수술비 없어 막막

도 · 와 · 주 · 세 · 요



제주 중앙중 2학년인 유현탁군〈사진〉은 어려서부터 단순한 감기에도 병원에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와 초등학교 4학년때 만성육아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 조그만 상처에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

지난 4월 병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돼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항생약물 치료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약물이 많아 약물치료비만도 한 달에 5백만원 정도이고 그동안의 입원비와 수술비가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병간호를 위해 생업까지 포기한 유군의 부모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도와주실 분 : 유홍국(011-696-2357) 조흥은행(367-04-672968 예금주 유현탁)

최종석 · 방귀희씨 불이상 수상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선정, 시상하는 제15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 최종석(동국대 사회교육원 · 사진 왼쪽) 교수, 실천 분야 방귀희(KBS 방송작가) 씨 등 2명이 선정됐다.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한국토착신앙과 불교의 습합과정'(1998년), '연기와 공의 종교신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1999년), '신라용신신앙의 기원과 전개'(2000년) 등 각종 연구 논문 발표 및 활발한 학계 활동으로 연구부문에 영예를 안았다. 또 〈솟대문학〉을 발행하며 KBS 및 BBS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씨는 81년부터 방송포교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에서 점자신문 '함께 읽는 신문'을 발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그대로 투영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 심고 싶어"

日 장애인 다이빙대회 참가 중앙승가대 대원스님



"지난해 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장애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장애우 스쿠버 프로그램입니다."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열린 '일본 장애인 다이빙 전국대회'에 장애우 5명을 이끌고 참가한 대원스님(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우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다이빙은 장애우들에게 수압에서 오는 전신마사지 효과를 주고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스님은 장애복지프로그램도 이처럼 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98년 중앙승가대 '천수천안 수중동우회'를 창립했으며 앞으로 장애우 다이빙풀센터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장애우 복지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불교학과, 불교북한학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식사상 · 정토사상 · 북한불교사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 (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남수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 (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북한불교포교론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총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북한학과(20명)	불교를 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불교북한학과 지망생은 북한불교사, 북한포교방법론을 이수하여 함.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제6차 전국 염불 만일회

공 보성 대원사 여름성지 대회 고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부터 염불 10성지를 찾아 지방대회를 개최키로하고 아래와 같이 여름대회를 마련하오니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일 시 : 2000. 7. 16 ~ 7. 17
◈장 소 : 전남 보성군 대원사 ☎ 0694) 852-1755
◈내 용 : 1) 본행사 2) 염불 보살계
◈참 가 비 : 3만원 (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 계좌 입금
◈교 통 편 : 개인별 대원사 도착

▣ 경기 · 서울 지역 참가자 :
조계사 앞 출발 → 2000년 7월 16일(일) 오전 6시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바랍니다.)

서울 — 호남고속도로 — 광주 — 주암 — 순천
└ 대원사

전국 염불만일회
서울.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7 FAX : 02)732-1207

"불교 남북교류 적극 후원"

연등회 새 회장 김기재의원



"연등회 회원을 폭넓게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각회 활동도 활성화시켜 불자 의원들이 불교 외호세력으로 불교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를 위해 일하는 불자의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자들과 스님들의 몫이라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연등회 새 회장에 선출된 김기재 의원은 불자의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연등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종단간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연등회 회장으로서 김 의원은 가장 먼저 노력할 부분으로 사찰 문화재 개보수 예산 확보를 꼽는다. 사찰 문화재가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곳이 너무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늘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성보보수 예산확보 최선
종단화합 · 불교외호 앞장
장관 · 의원 소임은 가피덕"

김 의원은 백부의 영향으로 불교에 입문했다. 연화사 등을 다니며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불교를 접해 불자의 길을 가고 있는 덕분에 공직생활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되고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는 김 의원은 "교계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등회 회장도 맡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불자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불자 정치인들을 연등회 회원으로 많이 영입해 회원을 늘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교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김기재 의원은 이를 위해 국회 정각회 일도 맡아볼 생각이다. 국회 정각회 회장은 여당 불자회 회장이 맡아오던 관례로 보아 김기재 의원이 회장이 될 것으로 정계에서도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불교계도 본격적으로 남북교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불자의원들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7천만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 문제도 불자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불교TV 정상화 모색과 자랑스런 불자상 정립도 불자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인다.

"불교계가 서로 도와가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등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한 김기재 의원은 "종단을 초월해서 참석을 요청하는 사찰 법회에는 직접 참석하려고 애쓰고 있고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하기 위해 불교대학원 입학도 고려하고 있다"며 노력하는 불자의원이 되겠다고 거듭 밝힌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산악인련은 3주년 기념법회에 이어 10월3일 홍은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지리산댐 · 가야산도로 반대운동"

전국산악인련 직지사서 창립3돌 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18일 김천 직지사에서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제주도를 비롯 전국 40여개 지역 단위불교산악회에서 1천2백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손현수 총재는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산악회원인 만큼 앞으로 50여만명의 정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산행을 통한 신행증진으로 부처님 당시 사부대중이 자연 속에서 하나되어 수행하던 화합승가의 참모습과 지역과 계층의 분별없는 화합으로 신나게 살아가는 불국정토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연대해 지리산댐 건설백지화 운동과 가야산 관통 도로개설반대운동 등을 전개키로 하고 즉석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지연 기자

성보문화硏 사이트 개설
미술사 · 사찰 건축자료 많아



불교성보문화연구소가 사찰건축과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사이트 젠넷(http://www.zen-net.co.kr/main_menu.htm)을 개설했다.

젠넷은 한국미술사 논단, 불교문화의 산책, 통양철학 강좌, 불교와 한국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자료와 보존을 위한 이론, 한국 미술사 이론과 불교사진 뱅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불교관련 사이트들과 달리 미술사 관련 자료들과 사찰 건축에 대한 자료가 많은 것이 특색이다.

특히 성보박물관과 관련해 설립과 운영에서부터 현황과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람직한 성보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제언도 있다. 전문기획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는데다가 사찰성보전시관 개관 준비계획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성보전시관을 준비하는 사찰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별기획 코너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 한 글도 있다.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를 소개하는 상정일련 코너도 이색적이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강 정 기
〈우리인드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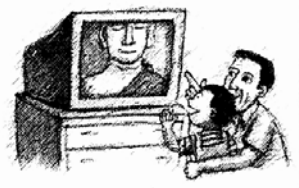
불자가 어떠한 직무에 처하여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금생에 갚아야 할 다겁생래(多劫生來)의 채무로 인식하라. 그리고 나의 등에 진 무거운 채무의 짐을 금생에 덜어냄으로써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인생을 정진해 갈 때 그 상쾌함을 만끽하라. 내가 불자라는 이름을 달고 불교 기관에서 일할 때부터 직원들에게 부훈처럼 설정했던 내용이다.

무원중생(無願衆生) 제도불능(濟度不能)이라고 했던가. 애초 나의 원은 자신에 국한된 유치한 단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불교방송, 불교TV를 일터로 거치면서 불법홍포(佛法弘布)라는 거대한 슬로건을 남은 생애에 이루어 갈 최후의 목표로 설정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원을 성취하고자 심신이 녹슬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수없이 반추하면서 달려왔다.

30여년전 법당에서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이 주머니에 숨겨 두셨던 돈을 부처님 앞에 좀더 가까이 놓으려고 발돋음하는 모습, 쉼없이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는 급료가 바로 저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돈의 많고 적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성과 신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던 일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작은 사업을 벌려 놓았으나 다행히도 불교와 연관된 사업이라 수시로 사찰을 방문하게 되고 법당에 참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받은 중생임을 확인하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요, 침개상투(針芥相投)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은 것만도 금생에 가장 큰 수확이요, 환희심이 넘치는 일인데 더 이상의 원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1년은 쉴 겨를 없이 살아온 인생길에 처음으로 휴식다운 휴식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독파한 경전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정독해 본 적이 없었다. 다시 읽어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전에 간과했던 많은 부분들이 간직한 존귀한 의미를 새롭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지난 1년간의 독서는 나의 인생관을 진일보시켜 해주었다. 〈아함경〉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류, 선에 관한 각종 서적, 불교교양서적 등 서가에 진열만 해 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보면서 어느 책의 제목처럼 "불법이 가득찬 보물창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탐험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처럼 나는 서가 가득히 쌓여있는 귀중한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쁨으로 오늘밤의 잠도 아까울 따름이다.



매일 독경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 기복불교적 발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으나 예상치 않게 원하던 일들이 많은 분들의

영상포교 불교TV 살렸으면…

도움으로 쉽게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왜 불교와 인연이 닿았을 때부터 좀더 깊은 신심과 큰 원을 세우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는 때도 많았으나 후회보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가는 각오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정진하고 있다.

이제 환갑을 넘기고 나의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니 불교를 빼놓고는 내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남은 생애에 꼭 이루고 싶은 원이 있다면 존폐의 기로에 있는 불교TV를 하루속히 회생시켜 영상포교의 역사적 사명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다른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발전하는 모습을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불교계도 사부대중 모두의 자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시간이 허용될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생애도 헛되지 않게 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도 전국의 사찰을 방문하고 법당을 참배하면서 내가 불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또 일터로 떠난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날마다좋은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http://cafe.daum.net/jounnal)-6월4일 개설. 부처님과 옛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자 만든 홈페이지.

■진아회 총동문회(http://www.freechal.com/jinabucda)-6월4일 개설. 대구대학교 불교학생회 진아회 출신의 동문들의 참여하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

■깨침의 나눔터(http://cafe.daum.net/wyang)-6월5일 개설. 불교관련자료, 문학, 상담실, 불교쟁점 100문100답, 불교학당, 독자의 한마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불련 대경지부 96학번 모여라(http://cafe.daum.net/dbl96)-6월5일 개설. 대불련 대구 경북지부에서 활동하는 96학번을 위한 홈페이지.

■대불련 강원지부(http://cafe.daum.net/buddhistkangwon)-6월6일 개설. 대불련 강원지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및 동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붓다사랑(http://www.108buddha.co.kr)-불교전문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서비스, 카드 및 북커버 디자인을 하는 곳.

■무량종합불교예술원(http://bulsang.co.kr)-예술원 소개, 사찰건축 안내, 예술품 안내, 각종 불상, 탱화, 산신, 시왕, 사천왕, 목공예품, 나한, 무속용품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개설된 홈페이지.

■봉은사 대학생 법우들의 모임(http://www.freechal.com/bes)-6월9일 개설. 봉은사 대학생 법우들의 모임.

■태종사(http://www.taejongsa.org)-부산 태종사 홈. 불교근본교리 및 위빠사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석불선양회 서산 · 홍성 답사

한국석불선양회(간사 이귀인)는 2일 서산 마애삼존불과 홍성 용봉산마애석불 친견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7시40분 동대문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순례법회의 회비는 2만5천원. 석불선양회 법요집과 목탁을 준비하면 된다. 이날 부처님전 예불공양과 더불어 초하루 화엄성중(신중) 기도도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016)267-7945

불자교정인련 하계연수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임원 하계연수를 7월8~9일 강남 봉은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하계연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참석해 법문할 예정이다.

수원구치소 불자회 합동법회

수원구치소 교도소 불자회는 22일 보현사에서 합동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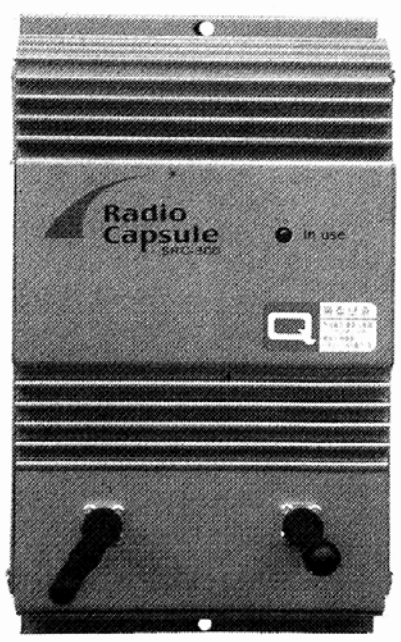
이날 법회의 법사는 감로향사 주지 보현스님이 맡아 설법했다.

운불련 연합체육대회

전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18일 대전 시민운동장에서 전국연합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7개 지역회에서 6백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만으로 겨뤘던 지난해 대회와는 달리 제기차기, 윷놀이, 줄넘기, 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추가해 재미를 더했다.

"나무관세음보살"
법당내 휴대폰 소음 이제는 사라집니다.



공공장소 전파차단기
래디오캡슐
SRC-300

법회 중 휴대전화 소음에 짜증 나신적이 있읍니까?

법회 중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소리, "래디오 캡슐"이 반경 40M 내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여 정숙한 부처님의 도량인 법당 안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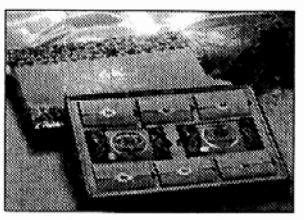
"래디오 캡슐"이 정숙함을 지켜드리겠읍니다.

품질보증마크인 Q마크를 획득,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법당안의 정숙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상담 및 구입문의
대표 ☎ 02) 408-2313
(주) 자 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5-2
우체국 계좌번호
014241-02-118536
예금주 : 한 경구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호능, 뜸의 호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호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우리 문화 알리기 '환영'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세계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를 맞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문화를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차분하게 알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아직 이러한 데까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또한 문화에 대한 의식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혼동과 편견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전통문화로서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를 알리는 것을 마치 특정 종교를 알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잘못이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국가적 문화정책에도 드러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문화적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런 현실을 벗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 아래 해외에의 우리 문화 소개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문화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주한 외국인 스님 및 해외거주 한국인 스님들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큰 방향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와 밀접한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가정책이 종교와 문화에 대한 혼선을 벗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갑다. 이런 정책이 계속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닌 문화시민으로 또 국제적인 문화사절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불교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불교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직자나 포교사로부터 모든 불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소양을 넓혀가는 큰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불교가 전통문화의 유지를 맡는 선에 머물지 않고 미래 문화를 열어나가는 주체로 우뚝 서는 길이다.

각 불교 종단이 정부의 시책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교육과 해외포교를 연결시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세워 나가기를 촉구한다.

공원입장료 인상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현재의 1000원에서 30% 인상하는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96년 3월 이후 계속 동결되어 공단의 재정적자가 매년 발생,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원공단의 인상안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공원공단의 얘기대로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해 공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원관리 비용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공원공단 예산의 80% 정도는 공원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유료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28조(비용부담의 원칙)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공원관리 및 운영 등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시기와 절차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계종과 합동징수로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의 인상 추진은 자칫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조계종총무원에 보낸 공문에서는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언론에 흘린 것도 개운치 않다. 요금 조정시 조계종총무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가벼이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들의 계획이 후퇴하더라도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사회운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공원공단은 인상 방침에 앞서 국립공원을 국민의 휴식처, 자연생태계의 보고, 역사문화의 보고인 점을 인식해 보존, 관리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

공원공단의 공원입장료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서도 공단이 인상을 강행한다면 문화재관람료도 동일 비율로 인상하겠다는 조계종의 어정쩡한 태도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공원입장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강한 의지인지, 이 기회에 함께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공원입장료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도 차제에 정리해야 한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 논설고문

평양 3일…통일이 오고있다

2000년 6월15일은 1950년 6월25일과 맞서 있다. 아니 1945년 8월15일 이후 55년의 세월과 맞서 새로운 날이 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평양 목란관 만찬장에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남북공동선언 초안이 만찬 끝무렵 두 정상 사이의 최종적인 검토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순간의 한 증인이었다.

나는 세상 떠난 소설가 이기영의 아들 이종형 아태 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민족경제부위원장 등과 술잔을 부딪치며 축하했다.

서울을 떠나던 6월 13일 이른 아침, 나는 소감을 묻는 TV의 질문에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했다. 그 규정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다. 나보다 국내 외의 여러 입에서 그 이상의 표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아마도 이 사건에는 가장 위대한 통일의 그날 이전의 어떤 사건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태운 비행기가 휴전선으로 갈라진 상공을 통과해서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일행의 비행기가 갈 때는 으레 우리 공군기가 엄호한다. 그 공군전투기들이 인계하자 북한의 공군기들이 그들의 영공에서 우리 일행을 맞아들이게 되어 있다. 서로 적과 적으로 공중전을 하던 전투기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인계하고 인수하다니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가. 더구나 북한당국에서는 그런 손님맞이 전투기편대도 내보내지 않은 평상시의 빈 하늘이었다.

황해도 서쪽 끄트머리 장산곶이 내려다 보였다. 몽금포 쯤으로 여겨지는 포구도 보였다. 그곳들은 남한의 서해안 어디와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눈물겨운 개펄과 갯마을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 미국생활이 1년만 늦게 되었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해도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가자 하면 못갈 것도 없지만, 그래서 며칠동안 태평양을 건너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시간 엄수라는 미국 대학의 실정으로 보면 내 평양행은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의 동서부 연구 방문교수의 강의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 2000년 2월이었다.

아마도 역사의 어떤 의지가 지난 30년에 걸쳐 조국의 민주화와 함께 통일을 위한 문학운동을 한 나에게 너는 이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꼭 참여하라는 소명을 베풀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회담이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실인즉 내년에도 나는 국외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해와 내년 사이의 이 시간이 나를 평양에 가게 한 사실은 행운 이상이기도 하다. 그렇다. 그것은 내 행운이 아니라 역사속의 불가피한 선택에 내가 동참한 것인지 모른다.

나는 2년전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들을 보러 북한에 간 적이 있다. 15일동안 자강도만 제외하고 북한 각 지역을 두루 다닐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당국자는 이런 광범위한 여행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 삼지연, 압록강 상류,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의 내 외금강, 원산, 개성, 성불사, 예성강 등을 실컷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과 문화의 흔적을 만나러간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의 오랜 절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국의 절반인 북한땅에 발디딜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시대의 발전이 있어 그곳을 가게 된 감격은 북한여행 내내 몸속에 울음을 담고 있게 했다.

나는 삼지연 원시림속에 있는 베개봉 호텔의 밤에 남과 북이 하나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자 울었다. '그렇다, 이 하나의 말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울음 끝의 딸꾹질을 했다.

그때의 여행이 산천초목과 유서있는 유적을 만나러 간 것이라면 이번 평양 3일은 민족의 새로운 삶이 개막되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북한 당국자 추산의 80만 환영인파는 온통 꽃술이었고 만세소리의 함성이었고 환호성이었다. 순안비행장 청사 정문이 아니라 청사 옆으로 난 차량통로를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동행자들에게 소리쳤다.

"직접 나온다! 저기 봐요."

모두 놀랐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 1호기 밑에서 서로 껴안고 악수했다. 환영식과 열병이 끝나자 우리 일행의 긴 행렬은 연도의 환영인파에 답하느라고 팔을 번갈아가며 손을 흔들어야 했다.

대동강은 아름다운 강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그 강 기슭의 모란봉 산길을 지나 주암산초대소 2층 숙소를 배정받았다. 방안에 마련된 들쭉술 한모금을 입안에 적셨다.

이렇게 평양에 온 것이다.

오후에 만수대극장에 갔다. 나를 예술계 인사로 대접해서인지 대통령 내외분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부부들과 주석단에 앉게 했다. 북한은 공연예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하룻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의 한 신문으로부터 청탁받은 16쪽짜리 시를 즉흥으로 써내려 갔다. 그리고 강만길 교수와 함께 오전 5시 무렵의 숲속을 거닐었다. 둘은 이제 죽어도 여한없다고 말했다.

평양 2일째도 쉴 참이 없는 일정이었다. 대통령과 정부 공식 수행원들, 일반 수행원들은 연이은 정상회담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고 우리들 특별수행원도 일정에 맞추느라 한눈 팔 겨를이 없었다.

오후 1시간 경제분야, 사회 문화 분야 인사들이 나뉘어져 북한 인사들과 회동했다. 그리고 나는 북한 사회 민주당위원장 겸 민족화해위원회 김영대 위원장을 만나 몇가지 제안으로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모든 협의는 정상회담 자체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부재자가 되고 싶었다.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첫날의 북측 국가원수 초청의 인민문화궁전 만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주최의 만찬이 목란관에서 베풀어졌다. 그 만찬장에서 공동선언 초안에 합의를 본 것이다. 대개 만찬은 만찬만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런 만찬에서까지 초안이 날아들어 그것을 서로 번갈아 보고 나서 합의를 마치는 광경은 서로 격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뒤 두 지도자는 연단으로 손잡고 나와 공존과 통일을 위해 감격적인 축배를 들었다. 장내는 축제 절정이었다. 그때 강만길 교수가 내 시를 한광옥 비서실장 박재규, 박지원 장관에게 알리고 그들이 두 지도자에게 알려 내가 소개된 것이다.

나는 '대동강 앞에서'라는 긴 시를 낭송했다. 장내는 숙연했고 갈채해 줬다. 북한 인사들이 나를 껴안아 주었다.

떠나는 날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초대소 환송오찬에서 김위원장은 격찬하면서 나를 초청했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제 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추억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휴전선으로 갈라진 하늘 넘어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

장산곶과 몽금포가 보이고

80만 인파의 꽃술이 반겼다

6 · 15 공동선언 초안 합의후

만찬장은 축제 절정이었다

자작시 '대동강 앞에서'를 낭송했다

한민족의 희망이 보인다

제14회 단기출가 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자연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공동체 생활로 협동심을 배우고 명상과 심성수련으로 인내심과 강인한 리더쉽을 길러 지혜롭고 슬기로움을 심어 주고자 단기출가 수련학교를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제 목	기 간	대 상	참 가 비	정 원
어린이수련	7월 20일 ~ 7월 24일 (4박 5일)	초등1~6학년	60,000원	80명
청소년수련 1차	7월 25일 ~ 7월 29일 (4박 5일)	중 · 고생	60,000원 (10인이상 단체 할인)	50명
청소년수련 2차	8월 2일 ~ 8월 5일 (3박 4일)	중 · 고생	45,000 (10인이상 단체 할인)	50명

※ 당일은 접수가 안되며 접수 마감일 전에 정원이 되면 접수 마감합니다.
※ 수련 당일 오후1시까지 개별적으로 오셔야 합니다.(서울은 선생님이 모아서 인솔)

◈어 디 서 : 충북 보은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속리산 수련원
◈프로그램 : 명상수련, 심성개발, 예절교육, 인성개발
물놀이, 즐거운 민속놀이, 캠프화이어
정신극기 산악훈련(속리산 문장대 등반), 야간산행
◈준 비 물 : 쌀1되,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수영복, 필기구,
갈아입을 옷(속옷포함 상.하), 양말4켤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 주세요.
◈마 감 : 7월 10일까지 (선착순 조기 마감)
◈접 수 처 : 서울 지장사 ☎(02)885-1558 수련원 (0433)542-2238
◈송 금 처 : 국민은행 : 812-01-0134-991 예금주 : 까치마을
ggachitown@hanmail.net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생 텍쥐페리 탄생 100주년

어린왕자와 선재동자의 깨달음

'지혜와 행동 조화' 당위성 역설



◇생 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어린왕자'.

29일은 〈어린 왕자〉를 쓴 생 텍쥐페리가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고향인 프랑스 리옹 시가 공항 이름을 '생 텍쥐페리 공항'으로 정하는 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생 텍쥐페리는 그의 나이 43살, 죽기 1년 전에 〈어린 왕자〉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번역된 판본이 무려 92종에 이르는 이 동화책은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작가가 직접 그린, 이국적이면서도 순수하기 그지없는 어린 왕자의 얼굴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작가 자신이 항상 대화의 상대로 마음속에 품고 다녔다는 이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는 작가의 분신이자 곧 우리 모두의 분신이다. 〈어린 왕자〉가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사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적 느낌의 어린왕자
진정한 친구찾는 여행
마음의 눈 뜨는법 배워

〈어린 왕자〉에는 다분히 동양적 감수성이 짙게 배어있다. 그 동양적 요소란, 한마디로, '마음(心)에 대한 통찰'이다. 이심전심의 세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린 왕자의 여행이야기는 그대로 선재동자의 구도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팔만대장경 중에서 한국불교가 소의경전으로 삼는 것은 〈화엄경〉인데, 방대한 이 경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인 '입법계품'은 난해한 이론이 아니라 선재라고 불리는 동자의 순례 이야기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순례의 길 끝에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소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구도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교의 진리에 쉽게 다가가는 길을 터 주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생 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의 순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한 의도와, A.D. 2-4세기경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화엄경〉의 편자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선재동자의 구도기를 통해 화엄사상을 요약해 보인 의도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진리의 두 얼굴인 '빛'과 '힘' 즉 지혜와 행동의 조화를 역설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는, 그 본보기로서 '구도자의 순례'라는 주제를 실제 모델을 통해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화엄경〉이 이렇게 '행동'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이 경이 바로 초기 대승불교의 탄생을 합리화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깨달음에 집착하는 장로 중심의 소승불교에 반발하여 개인보다는 전체, 소극적인 개인 수행보다는 적극적인 대사회적 실천을 주장하여 탄생한 대승불교는 '행동하는 보살'이라는 이상형을 내세웠고, 그 대표적인 인간형이 바로 자신의 성불 전에 다른 중생들을 먼저 성불시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현보살이었다.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분신 같은 존재로 구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사회 속의 연대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대단원이, 어린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성장해 마침내 정각을 이룬다는 순례 이야기로 그 막을 내리는 것은 필연적인 전개 과정이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해 보인다.

'행동의 작가' 혹은 '실천의 인간'이라 불리던 생 텍쥐페리가 자신의 전 생애를 압축하여 생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펴낸 〈어린 왕자〉의 이야기 구조가 묘하게도 선재동자 구도기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롭다. '행동'을 강조하는 작가로서는 결국 자신의 분신인 어린 왕자의 순례라는 서술구조 속에다 하고 싶은 말을 풀어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점은 〈화엄경〉 편자의 경우와 같다. 대승불교를 처음 주창하고 나선 사람들처럼, 생 텍쥐페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했다.

〈어린 왕자〉가 어딘지 동양적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란 주제가 그 이야기를 철저하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마음을 깨닫는 것' 즉 '심안(心眼)을 뜨는 것'이다. 생 텍쥐페리가 불교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전반에 불교적인 예지가 번득이는 것은 그의 체험이 불교 수행자의 체험과 근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와 선재동자는 모두 진리를 찾아 편력의 길을 떠나는데, 그들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사실이다. 어린 왕자는 친구를 찾아 떠나고, 선재동자는 스승을 찾아 떠난다. 우주의 여러 행성을 여행하다 일곱 번째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뱀과 여우르부터 마음의 눈을 뜨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찾아다니던 진정한 친구는 고향에 두고 온 바로 그 장미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만나 가까워진 비행사에게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 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구 사람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나 한 모금의 물 속에도 있을 텐데' 하고 가르쳐준다.

이 대목은 〈화엄경〉의 핵심사상이며 선재동자가 기나긴 구도행각 끝에 깨달은 내용과 일치한다. 욕심에 가려진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 심안이 뜨이게 되면, 티끌 하나 속에도 전 우주가 들어있는 우주의 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화엄경〉이 설하는 진리의 요체이다. 우주 전체가 무수히 많은 꽃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엄한 큰 꽃이라는 '화엄'의 의미 그대로이다. 장미 한 송이나 물 한잔을 통해서도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어린 왕자의 말은 화엄사상의 철학적 기본구조인 법계연기사상과 일치한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가기 전 지구에서 정들었던 친구인 비행사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자기를 보고 싶으면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 많은 별들 중의 하나에서 친구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별들도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의 별을 통해 수많은 다른 별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어 서로 상응 공명하고 있는 전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중무진한 법계연기의 화엄사상을 상징하는 '월인천강(月印千江 동산에 달이 뜨니 강물마다 달이 비치리라)'이나 '해인(海印 바다의 잔물결마다 진리의 도장이 찍힌다)' 같은 전통적인 표현에 덧붙여 생 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하여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존재(별) 사이에 공명되는 웃음소리'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화엄의 상징을 창조해 내었다. 이것은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통해 체험하는 우주의 화엄적 실상과 그대로 통한다.

〈어린 왕자〉의 우화와 선재 동자 이야기가 서로 유사한 것은, 그만큼 불교사상의 포용력이 넓고 보편적이라는 사실과 행동주의 작가 생 텍쥐페리의 사고력 역시 놀라운 깊이를 갖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의 순수한 자성(自性)과 법계의 화엄적 연기를 돌이켜보게 만들어준 생 텍쥐페리가 100년 전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20세기를 살다갔다는 인연을 고맙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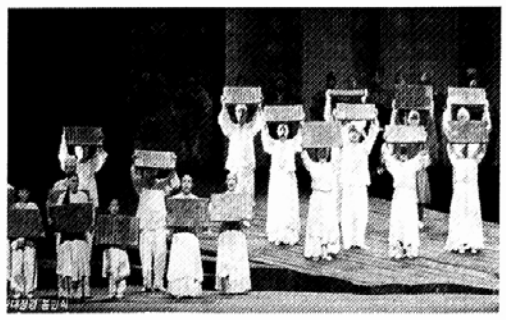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동승, 원성스님 작.

화엄경 속 선재동자
53 선지식 만나면서 성장
구도자의 전형적 모습

글쓴이



김홍근
문학평론가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의지와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다.

뮤지컬 '팔만대장경' 세계 17개도시 순회공연

다양한 무대장치
법고춤·승무 곁들여
극적 재미 높여

극단 현대극장의 뮤지컬 '팔만대장경'(김의경 작, 김우옥 연출)이 해외 순회 공연을 앞두고 16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기념무대를 가졌다.

불심(佛心)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의지와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팔만대장경'은 해외공연에 앞서 음악과 연출, 스토리와 출연진 등 상당부분을 교체, 보완해 지난해 11월 국내 초연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정통 뮤지컬을 추구했던 초연 때와는 달리 음악에 대중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이야기 전개를 단순화한 대신 부처님과 사천왕이 그려진 여섯 개의 대형 기둥, 무대 중앙에서 솟아 오른 수송선, 무대 전체를 장엄한 팔만대장경 판각 등 다양한 무대장치를 통해 극적 재미를 최대한 살렸다. 또 장경제작의 성공을 위한 기원제에서는 승무, 연등, 북을 이용한 법고춤 등을 동원해 불교적 정서를 전달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이같은 다양한 볼거리에 비해 주인공 비수와 묘화, 만전의 사랑에 중점을 둔 전반부 전개가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려 아쉬움을 남긴 반면, 후반부 폭풍 속의 수송선, 몽고군과의 전투, 봉안식 등에서의 박진감은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이끌어 냈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20일 일본 후루오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마닐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 세계 17개 도시를 돌며 우리 민족 역사에 숨쉬는 불교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화려한 무대로 펼쳐보일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깨달음 화두푸는 연극 '중이야기'

부산시립극단이 주최하는 제2회 창작극 소극장페스티벌에서 불교소재의 연극 한편이 선을 보인다. 올해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중 이야기'가 곽종필 씨의 연출로 23일~7월 2일 부산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 것.

창작극 소극장페스티벌은 지난해 처음 개최한 연극행사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와 '중 이야기' 두편을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일상의 관념을 털어 버립으로써 얻을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는 불교적 공의 세계를 그렸다. 세상만상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절대는 외눈 중의 설법으로 극이 시작되면 서로를 찾아 헤매는 두 남녀가 무대에 등장한다. 이들은 중이 돼 만나고, 외눈 중의 갖가지 화두풀이가 시작된다. (051)607-6136.

이은자 기자

인도춤을 발레로 '라 바야데어'

신비한 매력의 인도 춤이 발레로 무대에 올려진다.

유니버셜 발레단은 26~29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인도사원의 무희 니키야와 장군 솔라의 사랑을 다룬 '라 바야데어'를 공연한다.

주인공들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그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갈등을 춤으로 표현했다.

인도사원을 표현한 무대장치와 불교적 냄새가 짙은 화려한 의상도 볼만하다. (02)2204-1041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어린이 불서 5권 잇달아 출간

톤보이는 기획-알찬 내용 '눈길'

'문학동네' 등서 펴내…교계 출판사 뭐하나

최근들어 새싹 불자들을 위한 책이 속속 출간되면서 미래 불교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품게 한다.

〈미래에 오는 미륵불〉(문학동네),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문학동네), 〈부처님 생애〉(가교), 〈어린이 팔만대장경〉(은하수), 〈오세암〉(동쪽나라) 등 5권의 어린이 불서가 한꺼번에 나와 주춤했던 어린이 불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끈 주체가 일반출판사란 점은 아쉽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 주는 것이 어린이 불서의 한 역할일 텐데, 그러한 점은 일반출판사들로서는 주변적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배워야 점도 적지 않다. 최근 출간된 어린이 불서들을 살펴보면, 장정이나 삽화 등 외형적인 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불서에 있어 삽화와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7천만년이 지난 뒤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미륵불을 소개하고 있는 〈미래에 오는 미륵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는 외형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소재로 삼았던 부처님 생애, 고승전기, 경전 등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불교동화라 할 수 있는 〈오세암〉은 1986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초판이 나온 후 최근 동쪽나라에서 새로이 출간하면서 면모를 일신했다. 특히 불교계 전문출판사들이 어린이 책 출판을 포기한 상태에서 꾸준히 어린이 불서 시장확대와 질을 높히고자 하는 동쪽나라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20가지를 골라 동화로 엮은 이 책은 '알아 두어요'라는 코너를 마련 어린이들이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좁은 시장만을 탓하며 당장 팔릴 책에만 매달리는 불교전문출판계에서는 이러한 기획이 어린이 불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린이 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이 불자들에게 올바른 불교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알찬이다. 그런데 어린이 불서에 대한 비평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충실한 지 아닌지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관심사항 그리고 그들의 인지력에 부합되는가 하는 측면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간혹 몇몇 불교전문 출판사들이 어린이 불서를 내놓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맹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하루빨리 기획과 편집면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출판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금산사(글/김남윤·이응묵·소재구, 사진/손재식)=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사찰편 13번째. 금산사의 역사를 시작으로 건축, 유적과 유물, 그리고 금산사 가는 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 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금산사 전경과 함박눈 속의 미륵전 등 사계절의 풍광을 담은 사진은 직접 산사에 간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금산사 참배 길에 이 책을 길잡이로 또는 도반으로 삼는다면 기쁨은 두 배가 될 것 같다. 값 4천8백원.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해공 스님 지음, 은항문학사)= 불자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다. 참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불법에 귀의,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문집의 요지. 글쓴이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의 유형을 하나씩 제시하며 고(苦)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설한다. 농부의 유형은 공덕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농부, 뿌린 씨앗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게 가꿀 줄 농부 등 네 가지이다. 값 8천5백원.



▲반역의 우주(무묘앙에오 지음, 손성애 옮김, 모색)= 21세기 구도자의 출발점, 큰 깨달음과 해탈의 차이, 석가에 대한 근본적 비판 등 글쓴이 특유의 명상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에오이즘 소개서. 21세기 이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정신세계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왜 끊임없이 신흥종교가 번성하는 것일까 등 기존 불교의 문제점 및 신흥종교의 위험성을 비판, 미래 종교의 전망을 제시한다. 값 1만원.



▲예이츠에서 히니까지(이창배 지음, 동국대 출판부)= 이창배 전집 일곱 번째 권으로 〈20세기 영미시의 형성〉 증보판. '20세기 영미시의 전개', '예이츠의 시를 어떻게 읽은 것인가', '엘리엇-소외와 고립의 시', '윌리스 스티븐즈의 시와 사랑', '히니시의 리얼리즘의 전개' 등 5편의 논문을 새롭게 수록했다. 지난 9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 영미시단의 거성으로 떠오른 셰이머스 히니의 시를 집중 분석한 논문도 실려 있다. 값 1만5천원.



▲만일 부처가 직업을 선택한다면(마이를 톰스·저스틴 윌리스 톰스 지음, 윤규상 옮김, 도솔)= '만일 부처가…'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일을 찾아 진정한 삶을 누리고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안내서. 하고 싶다, 창의력, 위기, 돈 등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나만 할 수 있는 일', '성공의 원칙',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는 힘', '돈의 본질' 등 80여 개의 작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값 7천9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족사
2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마하르쉬의 복음	대 성	탐구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6	불교입문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사
7	영가천도	우 룡	효림
8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열권	불광
9	밀교학개론	종 석	운주사
10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공양

도서 안내:(02)737-0695

"정진이 최상의 설법"

명정스님 '그대 산목련 향기를…'



통도사 극락선원 주지 명정 스님의 수필집 〈그대 산목련 향기를 듣는가〉(좋은날)는 '화두란 설명해서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시작된다.

글쓴이가 은사 경봉 스님의 법문이 담긴 테이프를 10시간 동안 녹취하여 책으로 엮은 일, 일본 조동종의 구택대학에서 〈선학대사전〉을 해설한 일 등 스님의 경험 속에 선의 본질을 녹여 놓은 이 책은, 선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는 독자들에게도 재미있게 읽힐 정도로 강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선승들이든 재가 불자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최대의 목표가 '깨침'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향한 옛 선사들의 수행 일화는 언제나 신선하게 다가온다.

거구로 서서 입적한 등은봉 스님, 관을 메고 열반에 들겠다는 보화존자 등 열반에 관한 선승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묘미는 생활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옛 선사들은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제법 비장한 어조로 묻는 이에게도 "차나 한잔 마시게", "떡 먹어라", "밥 먹어라" 등으로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진리가 자기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 수승한 법문이다. 이것이 참선의 가장 요긴한 관문이라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선의 어록과 법문, 그리고 선문답은 아무리 훌륭해도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정진하는 자체가 최상의 설법이며 선문답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당취는 누구이며 무슨 일 했나

이재운 소설 '당취' 1·2권



임진왜란 당시 승병조직의 배후가 된 비밀결사 '당취(黨聚)'의 활약상과 임진왜란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이재운 장편소설 〈당취 1·2〉(명상)가 나왔다.

승유억불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불교는 권위와 전통을 상실하면서 사대부에 의해 탄압을 받는다. 일부 유생들은 승려를 잡아다가 노비로 삼거나 비구니를 겁탈하는 등 훼불행위가 극에 달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당취'이다. 전국에 걸쳐 조직된 이 단체는 삼보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거나, 휴정과 유정 스님의 지휘하에 환난에 빠진 조선과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일어선다. 임진왜란에도 승군으로 참여해 큰 활약을 한다.

이 소설은 이러한 당취들의 울분과 활약을 흥미진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결쳐낸다. 그러면서도 왕조 창업의 이상을 잃어버린 채 당쟁과 향락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사회의 모순과 민초들의 고통을 치열하게 표현한 역사소설로도 읽힌다.

글쓴이는 작품 전반을 통해, 당취란 과연 어떤 의미의 존재들이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당취들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나' 비우고 '남' 담는 지혜

영화 '컵' 단행본으로



티베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장편영화 '컵(CUP)'이 어른을 위한 동화 〈컵(CUP)〉(문경새재)으로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히말라야의 한 사원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가 이 책의 기둥줄거리이다.

호나우도 선수와 특별한 동질감을 느끼는 꼬마 수도승 오기엔은 월드컵 결승전 중계를 보기 위해 조용한 수도원을 발각 뒤집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다.

텔레비전을 빌리는 와중에 돈이 모자라, 신참 동자승이 가장 아끼는 엄마의 시계까지 빼앗다시피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오기엔. 하지만 지상 최대의 소원이던 월드컵 결승전을 보게 되는 순간, 그의 욕심은 죄책감으로 돌변해 마음을 괴롭힌다.

아이들의 소란을 나무라지 않고 스스로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던 사원의 제일 큰 스승 아보트 스님이 동승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을 향해 묻는다. "이 세상에는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적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많은 적을 다 없앨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이 책 속에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실 축구 얘기도 월드컵 얘기도 아니다. '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그 속에 '남'을 담으라는 자비의 가르침이 이 책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中 인광스님 염불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



염불수행으로 교화에 헌신한 근세 중국의 고승 인광 스님(1861~1940)의 염불 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불광)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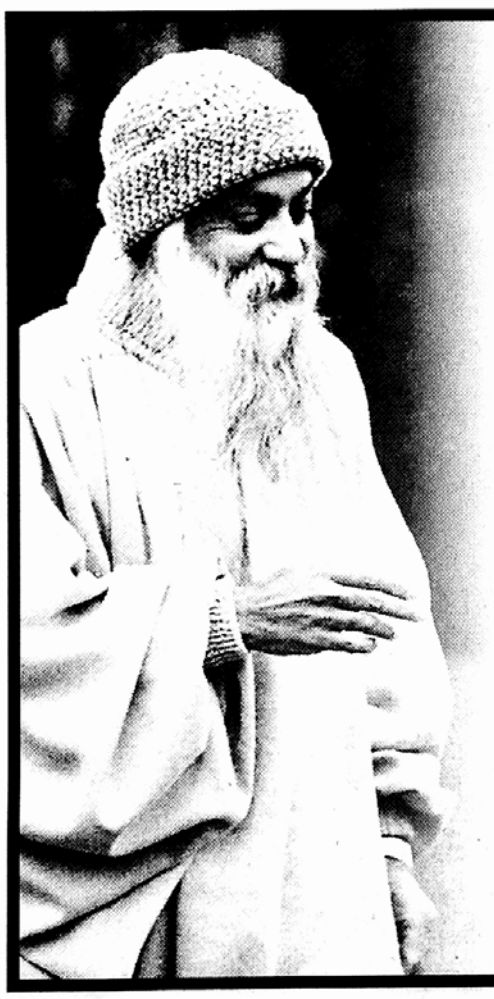
스님은 평생 재가 신도들에게 편지로 설법하여 수많은 중생을 교화한 것으로 이름높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을 낮추어 '죽과 밥만 축내는 중', '항상 부끄러운 중'이라며 평생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수행에 대한 불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설법과 편지글, 그리고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염불수행의 핵심만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염불수행의 요체와 실천행을 강조한 이 책은, '마음 닦고 염불하는 수행의 요령'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읽는다기 보다는 듣는 느낌이 강해, 책에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염불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화두선 일변도의 우리 나라 불교에서 염불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신간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000원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 전4권 |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라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쇼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여신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천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인 책은 품절 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6·25때 훼손성보 수두룩 조사도 복원노력도 없다

곡성 관음사, 문화재 복원 정부에 탄원

오대산 월정사 신라동종, 전남 곡성 관음사 원통전, 강원도 간성 건봉사 〈마지금니화엄경〉권46, 전남 장흥 보림사 대웅전….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라는 데 있다.

6·25 발발 50주년을 맞아, 문화재 전문가들이 "당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 중에는 주목받지 못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전남 곡성 관음사(주지 지인)가 '관음사 복원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쟁으로 소실된 원통전 등 관음사 전각 복원에 정부의 지원을 공식 요구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50여 년간 전쟁으로 소실·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인 연구 성과물은 제쳐놓고 이 문제의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학계 역시 "문화재 조사·보호 등의 학술적 감각이 뒤떨어졌던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국보급 문화재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만을 나타낼 뿐, 대책 마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계종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와 관련 자료 등이 전무해 준비작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계종은 올 하반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재정·인력·자료 등이 선결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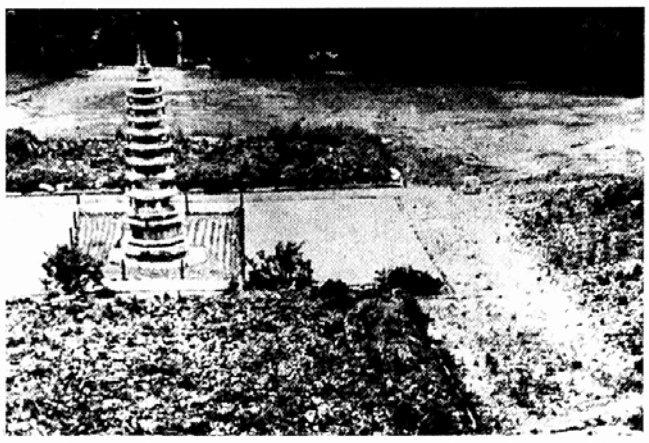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황수영(동국대 명예교수) 박사는 "전란으로 소실·훼손된 문화유산의 조사 및 복원은, 그 상흔을 치유할 가장 빠른 길이자 통일의 첫 걸음"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불교문화재가 사라졌던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금에서야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이 작업은 △현장 탐문 조사(목격자 중심) △문화재적 가치 평가 △문헌·사진자료 확보 △복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황 박사는 "복원에는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는 지금까지 20여 개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오대산 월정사는 1951년 1·4후퇴 때 작전상의 이유로 국군이 불을 질러, 칠불보전을 비롯해 10여 동의 전각이 소실됐다. 이때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신라 동종(804년 제작)도 사라졌다. 강원도 간성 건봉사에 보관했던 고려시대 〈마지금니화엄경〉 권46(당시 국보 제412호)과 동제은상감향로(당시 국보 제419호)는 1951년 5월 폭격으로 전각이 불탈 때 없어졌다.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또한 포탄으로 손상됐다. 광주 증심사의 금동석가여래입상(당시 국보 제211호)과 금동보살입상(당시 국보 제212호)은 인근 경찰서로 옮겨져 보호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잃어버렸다.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었던 전남 장흥 보림사 대웅전은 포탄에 맞아 전소됐다. 송광사는 6·25 때는 아니지만 55년 절을 점령하고 있던 빨치산의 방화로 백운당(당시 국보 제111호)과 청운당(당시 보물 제404호)이 잿더미로 변했다.

"박물관과 같이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고찰(古刹)의 전각과 유물 등이 더 많이 소실·훼손됐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사가 시작되면 불교문화재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복원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ou@buddhapia.com)



◇51년 1·4후퇴 때 전각이 완전 소실되고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만 남은 월정사 전경.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베트 뉴스

티베트 정치·문화정보 제공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이 국내 불자들 사이에 한껏 고조된 이때, 티베트의 정치 문화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를 방문해 보자.

가상공간에서 '티베트 알리기' '티베트 독립' 등을 위해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http://www.tibet.ca/wtnnews.htm'을 클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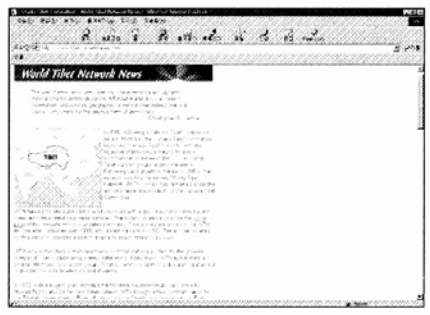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 사이트는 티베트 현지의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언론에 게재된 티베트 관련 뉴스를 비롯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사이트는 1994년 브레인 기번이 개설했고, 케나다 티베트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비롯해 세계 순회 강연 법문과 에피소드,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최근 중국에서 당했던 박해를 다룬 기사 등 다양하다.

또 스웨덴와 노르웨이의 티베트 위원회와도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위원회는 1995년부터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와 연계해 국제적인 티베트 돕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어록 서비스가 단연 돋보인다. 여기에는 '노벨상 수상 소감', '미국기자협회 법문', '국제참여연대회의 개회연설',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 나우(Asia Now)지 인터뷰' 등이 있으며, 열람·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티베트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티베트 하우스(Tibet House)'의 소식도 전해준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한국불교전서' 편찬위 재가동

조선경학 연구 '힘 받는다'

한국 불교학의 잃어버린 고리, 조선시대 경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 동안 '관독 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사찰과 도서관에 사장되었던 사기(私記)들이 햇빛을 보게 됐다. 동국대는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사기' '유가지론' 등을 엮은 〈한국불교전서〉 후속 편찬작업에 들어간다.

사기는 전통 강원에서 강론해 온 사집·사교·대교과의 과목(科目) 전반에 걸쳐 자구(字句)상·해석(解釋)상 문제되는 부분을 밝힌 주석서로, 경전 연구사의 중요한 고리이자 강학(講學) 전개의 소중한 소산이다.

현존하는 사기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간행된 54종 93권. 종류별로는 화엄경류 27종 50권, 금강경류 7종 10권, 원각경류 7종 13권, 능엄경류 1종 4권, 법화경류 1종 4권, 기신류 3종 3권, 선요류 3종 4권, 도서류 1종 1권, 치문류 2종 2권, 기타류 2종 2권 등이다.

이 중에서 추붕스님(1651~1706)의 〈선원제전집도서과평〉, 정혜스님(1685~1741)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과 〈선원집도서과기〉, 유일스님(1720~1799)의 〈도서과목병입사기〉 등만이 겨우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돼 학술 연구에 이용되었을 뿐이다.

한국 불교학을 이끌어 온 독특한 맥인 사기 대부분 도서관과 사찰의 서고에 묻힌 채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최철환(동국대 역경원) 부장은 "사기는 필사본으로 돼 있어 판독하는 데 식견이 필요하고, 문장 해독에 남다른 실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외됐다"며 "판독 가능한 스님·학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편찬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몇몇 불교학자들은, 전통 불교학이 '경학'에서 '교학' 위주로 바뀐 것도 '사기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사기' 등에 대한 〈한국불교전서〉 후속 편찬 작업은, 조선시대 학승들이 남긴 귀중한 '경학 자산'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7월부터 사기에 대한 수집을 시작해 분류·초탈·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제주 수정사지 관통도로 문화유산 훼손 '탁상행정'

제주시가 고려시대 때 제주도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유적지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97년 외도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계획을 세웠다가 수정사지 유적문제가 제기되자 98년 6월부터 4달간 시굴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주대박물관(관장 유철인)이 사지내 도로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여 건물지 12동, 고려시대 청자 등 토기 자기류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는 인왕상이 음각된 탑면석 등을 발굴했다.

제주시는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근거 시유지 500여 평에 옮겨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달 중순부터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시는 이 일대가 주택밀접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힘들고, 이미 유구가 상당히 파괴돼 발굴된 건물지 등을 그대로 이전, 복원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발굴조사단의 의견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계 등 일부에서는 도로예정지 150여 평에 대한 발굴조사만 끝났을 뿐 "아직 정확한 사역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제주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에 따르면 수정사는 고려 충렬왕 30년(1304)에 원의 황제가 창건했으며, 절에 딸린 노비만 130명이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조계사 대웅전 목조석가불좌상.

조계사 본존불-후불탱화 '지방문화재로'

조계사 대웅전 본존불인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가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계사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문화재는 앞으로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는 당시 불교계가 거종단적으로 합심하여 조성한 불교사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근대 불상과 불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1900년경 제작된 목조석가불좌상은 조선 초기 불상을 모델로 하여 근대적 기법으로 조성된 목불상이라는 점에서 근대 불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대웅전 본존불 뒤에 봉안된 불화는 근대 불화의 거장 일우스님의 초기작품이다. 권형진 기자

학술단신

'화엄경 원인론' 강독

깨침터 부설 화엄학연구소(소장 법해 스님)는 여름방학을 맞아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규봉 종밀(760~841) 스님의 〈화엄경 원인론〉 원문강독 및 강의를 마련한다. (02)742-0085

성철硏 불교학 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월 1일 오후 2시 제15회 백련불교아카데미 강좌를 마련한다. 불교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이번 강좌에서 김미영(고려대 강사) 박사는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를 주제로 강의한다. (02)744-1541

위덕대 박물관 전시실

위덕대학교는 21일 박물관 전시실을 개관했다. 위덕대 전시실은 교내 해당학술정보원 1층에 45평 규모로 마련됐다. 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13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중 경주 안계사와 포항 옥명사터에서 출토된 '문자기와' 등이 주목된다. (0561)760-125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하루만 지켜도 공덕은 무한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3〉

팔관재계

모든 악 끊고 선 닦는 8가지 방편

오계에 음식·치장·가구 항목 보태

지난 호까지 재가 불자의 근본 계인 오계에 대하여 《우바새오계상경》을 소의계경으로 하여 오계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계에 대한 강좌를 마쳤다. 이어서 팔관재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불자의 수행과 배움의 내용인 삼학(三學) 가운데 정과 혜는 수없이 많은 방편문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좁은 뜻으로 말한다면 오직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오중(五衆)과 우바새·우바이의 재가 이중(二衆)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즉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 식차마나는 4근본과 6법계,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아지닌다. 그리고 재가 대중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받아지녀야 할 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하루 동안만 지키는 팔관재계가 그것이다.

오계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하여 팔계라고 하는데, 제6계는 정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제7계는 춤추고 노래하거나 기묘한 연극을 보지 않고 화관,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높은 지위나 개인적 중요성과 관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저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침대나 의자가 마룻바닥이나 그 지면의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팔관재계를 '8가지 계(八支戒)' 또는 '공덕을 키워내는 8가지 계(八種長養功德法)'라고도 한다. 팔관재계의 제7계를 둘로 나누어 9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9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8가지를 '계'라 하고, 9번째의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그러므로 팔관재는 '팔계일재(八戒一齋)'인 셈인데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말하고, '재(齋)'란 삼가한다는 것과 같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깨닫는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6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계와 팔관재계는 저마다 그만한 인연이 있으므로 둘 다 뛰어난 계임에는 틀림없다. 오계는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는 계이고, 팔관재계는 하루만 지키는 계로서 다를 뿐이다. 팔관재계는 아함부경전을 비롯한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대승의 경론에서도 권장되고 있는데, 《숫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란, 원래 인도의 소치기들 사이에서 소를 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 불교에 들어와 몸을 근신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참회 행사로 바뀌었다. 또 '포살'은 보름과 그믐 두 차례 출가 수행자들이 불전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떳떳한 장사'란 무기, 고기, 술, 독극물 판매, 살아있는 생명의 매매, 이 다섯 가지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오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로 기간은 길지만 가짓수는 적고, 팔관재계는 지키는 기간은 짧으나 가짓수는 많다. 그러므로 팔관재계의 뛰어남을 말할 때, 목숨이 다하도록 오계를 지킨다고 해도 큰 원력이 없다면 큰 원력으로 하루 동안 팔관재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큰 공덕이 있는 팔관재계는 6재일이나 10재일, 아니면 스스로 정한 날에 받아 지니면 된다. 비록 하루 동안 지키는 계이지만 그 공덕과 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마니보주가 비록 작고 가볍지만 지니고 있는 공덕이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것과도 같다.

〈해인총림 율원장〉

"사성제 가르침 따르면 고통으로부터 해방"

법회중계

미룡사 법회

〈2000년 6월 16일〉



정각스님
〈미룡사 주지〉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 바르게 알고 실천할때 문제 풀리고 행복 도달

우리가 이기심을 이야기 할 때, 남의 이기심을 탓하는 사람은 있어도, 동시에 자신의 이기심을 탓하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거나 또는 몽땅 자신이 뒤집어쓰자는 것은 어차피 양쪽 모두에게 수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단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리의 빈곤은 결국 실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실천의 빈곤은 다시 논리의 빈곤으로 확대 재생산될 뿐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미래는 더욱 오리무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불교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공식적으로 대승불교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타의 근본 가르침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현실적 문제였음을 자각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역할만 다를 뿐 누구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땅의 간고한 현실을 위해 몸으로 뛰어야 할 출가수행자는 어느덧 최고급 승용차에 기대앉는 신생 귀족계급이 되어버렸고 과거를 진단하고 현실을 분석하여 중생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찰은 뜻 모를 주문과 어지러운 사물소리만이 가득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교의 현실이 과연 불교만의 잘못에서만 기인한 것일까요? 이러한 불교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함도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도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불교 현실은 한국사회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현실의 제반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전반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사성제(四聖諦)는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사성제는 '고통을 투철하게 자각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라, 고통의 원인은 실천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원인의 극복만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타는 현실로 주어진 우리의 고통은 그 고통을 일으키는 여러 조건들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원인에 기인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 언명은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는 것도, 나 이외의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이외의 것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조건들이 겹쳐짐으로써 비로소 생긴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의 상호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불교는 수 천년 동안 민족적, 정신적, 문화적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불교적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 모두가 불교의 현실과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고르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회 전체의 모순을 자기의 모순으로 끌어안고 이 사회의 고통이 결국 자신의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냉철히 인식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와 민족을 옭아매고 있는 고통의 실타래를 깨끗이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70년대말 남방·티베트 불교 전래

세계의 불교학 〈23〉 노르웨이

달라이 라마 노벨상 받은후 호감

'완벽한 종교' 대입시에 자주 등장

노르웨이 불교는 1979년 정부의 '정식 종교 인정'을 기점으로 상좌부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유입되었고 카르마 타쉬링 불교센터(Karma Tashi Ling Buddhistsenter)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4대 달라이 라마가 1989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노르웨이인들에게 불교는 평화와 윤리의 종교로 강하게 인식되었다.

오슬로 동남부에 위치한 불교센터는, 79년 이후 줄곧 성장해 온 '노르웨이의 불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카르마 타쉬링'이라는 단어가 불교센터와 나란히 사용되고 있듯이, 이 곳은 오슬로의 대표적인 티베트계 불교사원이기도 하다.

이 센터는 1975년에 티베트의 제16대 칼마파 칼 린포체(Karmapa Kar. Linpoche)의 후원으로 개원했는데, 그 뒤 라마 탈로(Lama Talo)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주석하면서 이 지역의 교학과 수행의 반석을 다졌다.

현재 오슬로뿐만 아니라 트론드하임과 스타방거 두 지역에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교센터에는 교수·교사·학생 등을 주축으로 약 1천5백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이웃 나라인 스웨덴과 덴마크의 불자들도 있다.

미래의 불교를 이끌 청소년 가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센터 회원 가운데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연에 대해 얘기하고 고통·고뇌·번뇌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의 대학입시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철학과목에 불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 불교의 성장세는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공인 종교단체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불교센터의 경우, 회원 1인당 300크로네(3만2천원) 가량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데, 회원의 회비 250크로네에 비교하면 전폭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불교 등 종교교육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불교센터 산하 기구 중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노르웨이인의 호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노르웨이 티베트 위원회'이다. 불교센터 회원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달라이 라마 친견 △티베트 사원 건축 △일반인을 위한 명상 강좌 개설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티베트의 고대의술을 응용한 대체의학을 비롯해 티베트의 점성학·풍수학 등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모아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중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불자들.

이와 같이 70년대 말 노르웨이에 소개된 불교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노르웨이 한 시사주간지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현대의 다양한 갈망을 해결하는 완벽한 종교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절대신에 의한 외부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수양과 성찰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이라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쩨-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490,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14,23, 8/11,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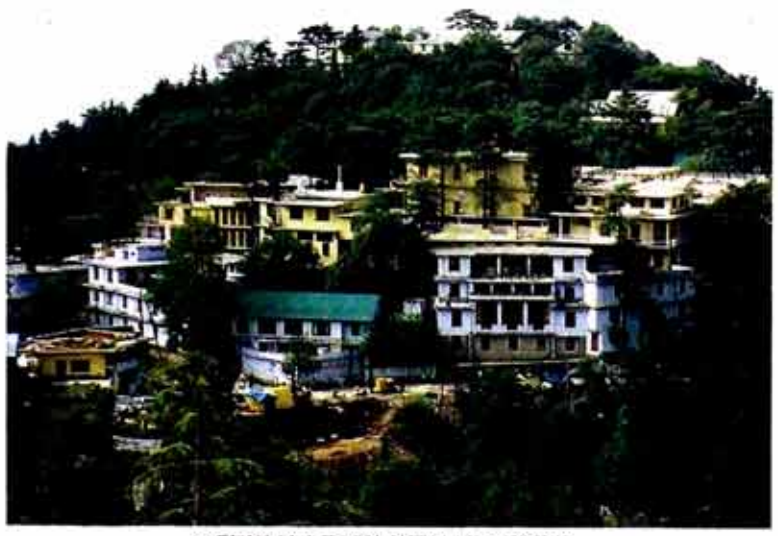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세전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7/2,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7/2,16 목,일(15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시방세계

불교의 전당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44)905-6368 / 011)9934-3512



◇달라이 라마 궁(제일 위쪽)과 남갈사원(중간).



◇남갈사원 스님들의 '법담(토론)' 장면.



◇14세기 조성된 국보급 유물인 필사본 〈반야경〉.



◇'티베트 어린이 마을'. 티베트 불교와 현대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10년 과정의 사립 교육기관이다.

티베트 불교전통 계승하는 **'다람살라 윗동네 망명정부'**

'자유 티베트 그날을 위해' 비폭력 독립운동 산실

지구상의 마지막 불국토였던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히말라야 협곡의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산길을 몰고돌아 도달할 수 있는 있는 이 곳. 해발 1800m를 휘감아도는 구름과 바람 위에서 티베트인들은 멀리 고향의 만년설을 회상하며 살고 있다.

신앙의 자유와 민중의 생존을 위해 저항했던 지난 반세기.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주인 티베트인들은 서구인들이 부러워하던 불교적 이상향을 잃고 이웃나라 인도 히말라야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인구의 5분의 1인 120만명이 살상을 당했지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힘사(비폭력)' 정신은 간디 이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힘사 정신을 티베트 독립문제에서도 예외없이 적용하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어렵다면,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자치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만큼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불교 문화의 전통은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영혼의 고향이다.

냠갈사원 3백여 스님 정진
도서관엔 7만여 경전 보관

다람살라 아랫동네엔 주로 인도인들이 살고, 티베트인들은 500m 위의 윗동네에 살고 있다. 1만 5천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사는 이곳은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각지에 살고 있는 12만명과 인도 이외 다른 나라에 흩어진 1만여명 등 13만여 티베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보금자리이다. 10억명의 인도 인구와 전체 티베트인 300만명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티베트의 문화전통을 유일하게 이어가는 터전이다.

다람살라 곳곳에는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전통을 유지하려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원을 엿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다람살라 윗동네 중심지에는 달라이 라마가 주석하는 궁전과 티베트 망명정부(영국식 의회민주주의)의 내각, 국회, 법원 등이 있다. 또 모국 티베트의 사원을 그대로 본딴 중앙회당(Tsuglagkhang)과 남갈(Namgyal)사원 등지의 사찰에서 나라 잃은 고통을 불심을 통해 이겨내도록 돕는 스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 궁의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회당은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인 조캉사원을 대신한다. 석가모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필하고 있는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인도 나란다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티베트에 밀교를 전한 고승)와 관세음보살상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이자 귀중한 성보로 모셔져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중앙회당 옆에는 달라이 라마의 직할 사찰인 남갈사원이 있다. 포탈라궁전을 본딴 이 사원에는 30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사원 앞 도량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설법하는 법회가 열리기도 하고, 의견이 엇갈릴수록 격렬해져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티베트 스님들간의 법담(토론)이 이채롭다.



◇달라이 라마와 가규파의 17대 지도자인 까르마파(왼쪽). 지난해말 중국을 탈출한 까르마파는 15세의 티베트 차기지도자다.

꾸덴(Kuten)이란 신탁자(神託者)를 주지로 삼아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네충(Nechung)사원은 우리나라의 산신각처럼 불교와 전통신앙의 혼융을 엿보게 한다. 1972년 네팔에서 라마 톱텐예세가 창립한 투시타(Tushita) 명상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센터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배우 리처드 기어 등 서구인들이 자주 찾는 곳도 바로 여기다.

불법을 지키기 위한 티베트인들의 눈물어린 노고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은 다람살라 도서관이다. 41년 전 중국군의 침공 당시 피난민들이 짐 속에 숨겨 히말라야를 넘어 가져온 〈반야경〉(14세기 제작) 등 7만여권의 옛 경전들이 책마다 따로 오란 보자기에 싸여 보관돼 있다. 1971년 문을 연 이 도서관에선 외국인들을 상대로 티베트어나 티베트불교에 대한 유료 강좌도 열고 있다. 이 도서관과 '티베트 의학 및 점성학연구소' 내의 박물관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 낸 유서깊은 성보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곳의 유물들은 박제화된, 화석화된 골동품들이 아니다. 전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애정에 바탕을 둔 살아있는 정신적 유산인 것이다.

티베트의 친정한 전통은 달라이 라마의 광소 소신처럼 '티베트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미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티베트 어린이마을('TCV')에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불교, 점성학, 전통의학, 영어, 힌두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50년 전 일제치하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민족의식을 일깨웠듯이 이곳의 학생들은 티베트 불교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전수받으며, '자유 티베트'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물론 티베트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는 물론 현대과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티베트어린이마을을 졸업한 일부 학생들은 독특한 티베트 전통이 배어 있는 '티베트의학 및 점성학연구소'에 진학한다. 이곳에선 불교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을 바탕으로 병을 나누고, 약초를 배합해 조제한 환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을 배출한다.

고등학교까지 기숙사생활
영어·과학·점성학등 교육

중·고등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인도나 미국, 유럽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각 사찰로 출가의 길을 걷는다. 특히 12세 이상의 여자 아이들은 여(女)행자교육원으로 출가한다. 과학 4년, 수학 4년, 불교 4년 등 13년의 과정을 거쳐야 사미니계를 받을 정도로 엄격하며, 한국·대만과는 달리 비구니계는 아직 설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12세부터 64세까지의 여행자 200명이 더위를 잊은 채 정진중이다.

이밖에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전통공예학교에 진학한다. 100명의 학생들이 탱화, 목조각, 석조각을 전문적으로 배워 국내외에서 티베트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티베트인들이 종교와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통은 정신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세운다고 전통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전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해 나갈 때 전통은 보존될 것입니다. 티베트도 그렇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런 전통계승론은 인재불사에는 소홀하고, 성보박물관 세우기에 급급한 한국불교계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착한 티베트 사람들. 이런 순박한 심성과 엄격한 수행 전통은 날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되돌아 보게 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낭마디 종은 날 되소서
선체조 동 자
비쓰는 동 자
좌선 동자
연꽃
제품가격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읍선가격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후덥지근한 장마철! 침대위에 얼음이라도 깔았으면… 네, 깔아드리죠!!
리빙스톤 "요람 침대"
특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3 유해전자파, 수맥, 핀드기 완전 해결
4 침대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5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클릭
▶검색어(돌황토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아기가 요람에서 잠자는 그맛! 그대로…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함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실용신안 등록 (제0188136)
상표등록출원(제20-3104)
자매품 원적외선 BIO물침대
氣 리빙스톤
본사·A/S : 02)424-9427, 2203-7821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④

又問曰 云何輕重 分之爲六
우문왈 운하경중 분지위육
答曰 若有衆生 不了正因
답왈 약유중생 불료정인
迷心修善 未免三界 生三輕趣
미심수선 미면삼계 생삼경취
云何三輕 所謂迷修十善 妄求快樂
운하삼경 소위미수십선 망구쾌락
未免貪界 生於天趣 迷持五戒
미면탐계 생어천취 미지오계
妄起愛憎 未免瞋界 生於人趣
망기애증 미면진계 생어인취
迷執有爲 信邪求福 未免癡界
미집유위 신사구복 미면치계
生於修羅趣 云何三重
생어수라취 운하삼중
所謂縱三毒心 唯造惡業
소위종삼독심 유조악업
墮三重趣 若貪業重者
타삼중취 약탐업중자
墮餓鬼趣 嗔業重者 墮地獄趣
타아귀취 진업중자 타지옥취
癡業重者 墮畜生趣 如是三重
치업중자 타축생취 여시삼중
通前三輕 遂成六趣 故知惡業
통전삼경 수성육취 고지악업
由自心生 但能攝心 離諸邪惡

어리석음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에 떨어진다. 이 세 가지의 무거움과 앞의 세 가지 가벼움을 합쳐 여섯 갈래(六趣)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업이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삼계와 여섯 갈래의 길로 떠도는 고통은 절로 소멸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해탈이라 한다."

진여의 성품 삼독에 덮였으니
삼독만 제거하면 해탈이라

유자심생 단능섭심 이제사악
三界六趣 輪廻之苦 自然消滅
삼계육취 윤회지고 자연소멸
能盡諸苦則名解脫
능진제고즉명해탈

물었다. "여섯 갈래로 나눠지는 가벼움과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대답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선(善)을 닦으면 삼계를 면하지 못해서 세 가지 가벼운 곳에 태어난다. 세 가지 가벼움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릇되게 십선(十善)을 닦으면서 함부로 쾌락을 누린다면 탐욕의 세계를 면치 못해 하늘(天趣)에 태어나고, 그릇된 마음으로 오계(五戒)를 지켜 함부로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면 성내는 세계를 면치 못해 인간에 태어나고, 그릇되게 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여 삿된 법을 믿어 복을 구하면 어리석은 세계를 면치 못해 아수라에 태어난다. 이런 세 종류를 세 갈래의 가벼운 길이라 한다. 무엇이 세 가지 무거운 길인가. 말하자면 삼독의 마음을 마음대로 부려 악업을 짓는 것인데, 만약 탐욕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에 떨어지고, 성냄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又問曰 如佛所說 我於阿僧祇劫
우문왈 여불소설 아어아승지겁
無量勤苦 方成佛道 云何今說
무량근고 방성불도 운하금설
唯除三毒 則名解脫
유제삼독 즉명해탈
答曰佛所說 言無虛妄也
답왈불소설 무언허망야
阿僧祇者 卽三毒心也
아승지자 즉삼독심야
胡名阿僧祇 漢言不可數
호명아승지 한언불가수
此心中有恒沙惡念
차심중유항사악념
一一念中皆有一劫
일일념중개유일겁
恒沙者不可數也 以三毒惡念

항사자불가수야 이삼독악념
如恒沙故 言不可數也
여항사고 언불가수야
眞如之性 旣被三毒之所覆
진여지성 기피삼독지소부
若不超彼恒河沙惡之念
약불초피항하사악지염
云何名解脫
운하명해탈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한없는 아승지겁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다'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오직 삼독만을 제거하면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답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아승지란 곧 삼독심이다. 인도어인 아승지는 한문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는 갠지스강 가의 모래 만큼이나 악한 생각이 있고, 그 낱낱의 생각 중에 다 일겁씩 있다. 강 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삼독의 악한 생각도 모래와 같으므로 셀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악한 생각에서 초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이라 하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일선스님

문산 평화통일사 주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이를 계기로 한반도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50년간이나 적대관계에 있었던 남과 북이 마치 오랜 도반을 만난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5개항의 공동선언문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더구나 통일문제를 우리끼리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는 긍지마저 느끼게 한다.

두 정상이 큰 일을 해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한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몫이 크다. 지리적 분단 이상으로 서로간의 골이 깊은 증오와 불신을 화해로 승화시키는 일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굳건한 디딤돌을 놓는 일일 것이다. 남북의 화해 · 협력 · 교류를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냉전이 극심했던 지난 73년부터 오직 '조국평화통일'을 화두로 염불과 사경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진각에서 독경과 〈법화경〉 사경, 그리고 군포교만을 고집하고 계신 일선 스님을 만나 평화통일 기도를 발원한 이유와 '임진각 통일기도 27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 등에 대해 들었다.

"적대감 녹여야 통일 빨라져요"



· 1932년 경북 달성 生
· 1940년 고암스님 은사로 출가
· 해인사 용탑선원 등서 정진
· 73년부터 현재까지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기도정진
· 이차돈 선양회장
· 서부전선군불자 지도법사
· 파주시 불교연합회 고문
· 문산 평화통일사 주지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를 오랜 원력으로 삼아 정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누구에게나 수행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과 시절 인연,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따라 선승이나 학승, 포교사로서 각자 정진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는 나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으로 이어진 셈이지요. 6·25 당시 대구에서 경찰생활을 하면서 공비토벌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고암(前 조계종 종정) 스님을 시봉한 것이 내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전쟁을 겪으면서 처절한 민족의 아픔을 경험했고, 고암 스님을 모시면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스님들은 '주지 타령'만 하고 있을 뿐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는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할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몸으로 거듭나지 못할지언정 전쟁으로 인해 굉생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자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고통을 나눌 때 희망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 길(73년 5월5일)로 걸망하나 메고 서부전선 임진각을 찾아갔습니다.

임진각 통일기도 27년

—다른 이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나서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수행철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철학을 하나씩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에게 견전한 생활철학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의지처가 됩니다. 불교는 훌륭한 생활철학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실천적 교설이지요. 내가 수행의 철학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법화경〉의 보살정신입니다. 인간계의 고난을 견전하게 극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래 제자로서 불법을 펴나갈 사명을 수행하는 보살임을 강조하는 이 경의 사상은 나의 원력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철학으로, 평화통일기도의 소의경전으로 삼았어요. 〈법화경〉은 어린애가 장난으로 불상을 그려도 부처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런 말씀입니까. 불안했던 마음 속에 다시 믿음의 환희가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임진각에서의 기도에는 관람객들까지 동참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요.

▲초창기에는 조계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치고 임진각에 도착해 북녘을 향해 불단을 설치하고 목탁을 치며 참회와 평화통일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자를 쓰는 〈법화경〉 사경을 권했지요. 그리고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꼭 1일1식(오후불식)을 했어요. 1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임진각 근처에 초가집을 빌려 기도뿐만 아니라 전몰장병들을 위한 천도재, 그리고 군불자들을 위한 포교활동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임진각에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평화통일사에서 임진각까지의 새벽 도량석과 〈법화경〉 사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경에 동참한 사람이 70만 명이 넘어요. 〈법화경〉이 모두 69,384자인 데 열·번 정도 한 셈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수행이 되냐고 하는데, 나는 그 어떤 수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방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일념이 돼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할 적에 간절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과 옛 조사의 어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옳게 믿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가 직접 수행을 쌓아서 가장 수승한 단계인 견성의 경지에 가야 궁극적인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는 법입니다. 선방에 앉아만 있다고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망향의 한 서로 달래

—임진각에는 불자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많이 찾을텐데, 기도의 어려움도 크셨겠습니다. 통일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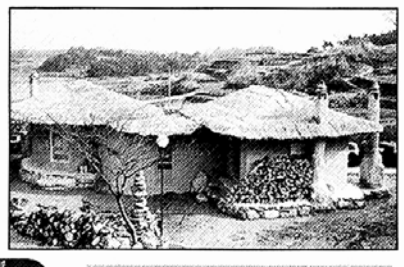
▲어찌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친 중'이라는 말 많이 들었지요. 임진각 앞마당에 볕단을 차려놓고 하루종일 목탁치고 염불하니 타종교인들에게 그런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터득한 것이 이 기도를 원만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와 얼굴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사주봐 달라'는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망향의 한을 가슴 속에 담고 찾아온 실향민들이 큰 힘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를 하고, 망향의 한도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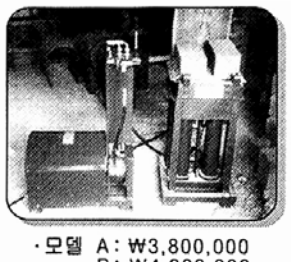
울분과 분노로 가득찬 이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심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통일 기도는 그 어떤 대가를 바래서도, 한쪽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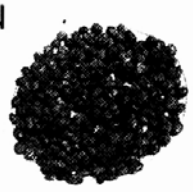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옹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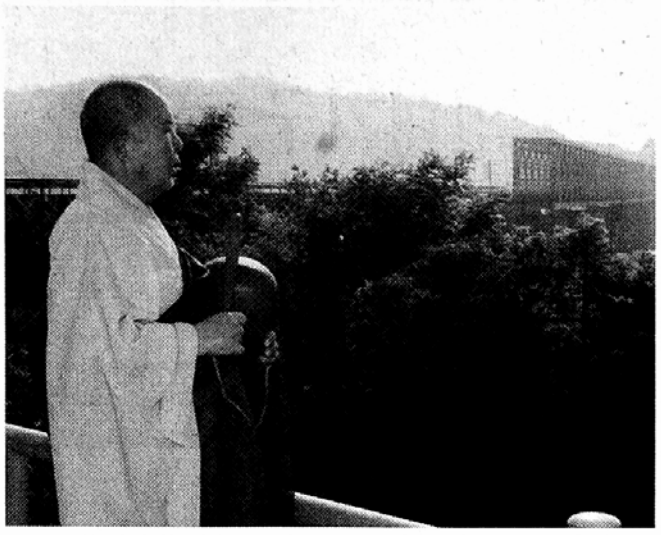
봉인사 위빠사나, 아봐타 수련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수 있는 시간에
많이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시기 바랍니다.

◈ 7월 · 8월 여름수련회 ◈

수련내용	날짜	기간	회비(원)	지도스님
위빠사나	7월 6일- 9일	3박4일	6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9일- 15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위빠사나	7월16일- 22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아봐타	7월23일- 30일	7박8일	1,700,000	봉인사
위빠사나	8월 3일- 6일	3박4일	60,000	지산스님
어린이수련원	8월 8일- 10일	2박3일	25,000	해인심
아봐타	8월12일- 19일	7박8일	1,700,000	봉인사
위빠사나	8월20일- 26일	6박7일	100,000	미정
위빠사나	8월17일- 9월2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봉인사 한길정진원
▶ 전화 : 0346)574-5585 ▶ 전송 : 0346)574-080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



◇일선 스님께서 평화통일 기도를 하는 임진각. 일반인들에게는 안보관광지이지만 스님에겐 통일염원의 수행도량이다.



◇6·25전쟁 때 임진강을 두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일선 스님은 수시로 천도의 염불을 한다.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통일의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간절한 서원이기에 가장 순수하고 지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제까지 불교는 무슨 행사나 법회 때 으레 '남북평화통일기원'이란 말을 붙여 왔어요. 그러나 통일기도는 부처님오신날이나 6·25 발발 일, 또는 예불 때 주로 하는 요식행위로 한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는지 묻고 싶어요.

민족의 고통에 대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벽을 뛰어 넘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데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의면하고 어떻게 고달픈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까.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는 나는 통일염원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고, 조건 없는 기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통일은 이룩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석하고 계시는 사찰 이름까지 '평화통일'로 지으실 정도로 평화통일에 대한 원력이 각별하신데요. 사찰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요.

▲평화통일사는 그 동안 해온 평화통일기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진각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만 했으니 재원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지요. 사실 번듯한 법당을 건립하고 싶었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1사단장이 평화통일을 위한 사찰을 건립하라며 군용지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10년 전 일이지요. 평화통일사는 이렇게 건립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찰은 어느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찰이자, 군불자들의 정신적 의지처입니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불과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 사찰이 평화통일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통일원찰이 되었으면 하지요.

—남북의 활발한 교류에 대비해 불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하지만 먼저 민족바로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난 55년간 쌓여진 민족상잔의 비극과 적대심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적대감을 녹이고 화해한다면 평화적 통일은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갈수록 남북관계는 적대의 기류보다는 화해의 손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불교가 이런 상황을 의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북한을 아우르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할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교리적으로나 민족정서로 보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준비에 있어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 하나 짓고 개인의 복을 비는 것도 종교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상호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입니다. 이제 불자들은 더 큰 보살심으로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이자, 한국불교가 전세계로 뻗어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너무 들떠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될 일도 안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조차 서둘러 얻을 수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서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너무 떠들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들뜬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면 털끝만치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생기는 법입니다.

경전에 '야정수한어불식(夜靜水寒魚不食)'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고 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여유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은 안정된 가운데 조용히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야심이 너무 크면 자칫 바위처럼 단단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욕망과 질투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한민족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미움, 멸시, 우월감, 욕심, 어리석음의 때를 벗겨내세요. 남북이 그러한 본모습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간절한 소원은 통일 염원과 수행 둘 아니죠"

통일소 북송길 환송기도

—스님께서는 지난 98년 6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5백 마리의 통일소를 몰고 북송길에 나설 때 목탁을 치며 기도해 사회적으로 눈길을 모은 적이 있으셨지요.

▲통일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게는 얼마나 기다려 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비록 축생이지만 사람대신 통일의 선봉대로서 북으로 가는 소를 보고 통일 수행자로서 묵묵부답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라도 평화통일의 밭을 일구는 통일소가 되어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실향민들의 아픔과 국민의 염원을 씻어달라는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너희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전법사로 모든 북한동포의 평화통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마리의 소가 사람 1백 여명의 몫을 한다는 말처럼 북녘 땅 곳곳에 퍼져 통일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길 지금도 서원하고 있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적힌 명함이 이색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나의 소임은 통일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시도할까 합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인 문산 지역의 스님과 실향민들을 비롯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칭)평화통일기원회'를 구성, 평화통일불사를 폭넓게 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스님들이 공동으로 6·25전쟁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재를 비롯 실향민과 군불자포교 등이 주된 활동이 되겠지요.

수행자가 된 이상 무언가 한가지는 딱 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통해 바다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 위해 참새가 생사를 걸고 삼세에 걸쳐 바닷물을 물어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평화통일도 한달음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관계가 때가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다가올 평화통일의 그날을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탐 진 치 삼독의 때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일심으로 평화통일기도에 동참하는 '통일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대담=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화스님 ①

目無所見 無分別(목무소견 무분별)
耳聽無音 絶是非(이청무음 절시비)
눈으로 봐도 본 바가 없어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시비심이 끊어졌다.

내가 아는 정화 스님은 그런 스님이다. 눈으로 봐도 본 바가 없어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시비심이 끊어진 스님.

송광사 행자실에서 만난 적이 있고 해인사 강원 도반으로 함께 수학했다. 정화당(正和堂)이 이 글을 읽고 혹 '미친 짓이여!' 할 지 모르겠다.

그는 내가 아는 도반 가운데서도 매우 괴짜이고 무소유 실천자이다. 거지 수행자가 세계 각국에 많이 있지만 그는 진짜 거지 수행자이다. 버스를 탈 적에는 500원만 있어도 태연하다. 옛날에는 버스 여차장이 있어서 버스표를 끊어주곤 하였다.

"저어, 돈이 없어서.... 500원 밖에 없습니다. 500원어치만 타고 갈 수 없습니까?"

무소유 실천하는 도반 화내는 모습 본적 없다

대구에서 해인사를 갈려는데 무일푼이라 500원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사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체가 어린애답다. 여차장은 버스에서 내려 해인사로 향하는 그를 불러 세우고는,

"스님, 돈이 다 떨어졌는가 보지요. 여기 돈이 있으니 노자에 보태 쓰세요."

그가 건넨 500원과 함께 몇 장 지폐가 그의 손안에 쥐어진다. 하도 딱해 보인 까닭에 여차장이 보시를 한 것이다.

출가 전, 교사였던 그는 학생을 구타한 사건으로 출가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뭐 대단하게 구타했다기 보다 학생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손찌검질을 가볍게나마 한 것이 그의 양심에는 큰 못이 박히듯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평생 눈 한번 크게 떠보지 않는 그요,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않는 그인데 무슨 대단한 구타를 했겠는가. 선량한 그의 모습이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수행이 먼저야. 내 수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는 잠시 산중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춘 스승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이 그만 종신 수행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수행은 이렇듯이 끝이 없는 것인가.

정화 스님으로 계를 받기까지도 이 절 저 절을 다녔다. 송광사에서 해인사까지 털레털레 걸어서 갔다. 행자로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행자로 보통 여섯 달을 지내면 사미계를 받고 예비 스님의 길을 걷는 데도 그는 사양하였다. 그는 그런 스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괴심(自愧心) 때문에 잠 못 이룬 나날이 많았다고 한다.

덩치가 큰 편인 그는 부엌일을 잘해 냈다. 무어나 잘 소화시키는 그를 두고,

"스님들이 다 됐기에 쓸 만한 남자가 없어요, 하하하"

하고 한 처녀가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공부라면.... 글쎄, 눈높이가 같아야 알아보겠지만..... 그의 수준이 퍽 범상치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화두선에서 보다 남방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 유식(唯識)을 강의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에게는 요즘도 여기저기서 법문을 청하는 이들의 연락 때문에 소란스러울 정도다. 그래도 꼭 자기를 누르고 소리없이 사는 스님이 정화 스님이다.

화를 못내는 이는 바보이고 화를 안내는 이는 현자라고 한다. 스무 해 이상을 지켜 보아왔으나 정화 스님이 화 내는 모습을 아직 본 바가 없다. 실제 그는 바보가 아니니 아무래도 현자 쪽이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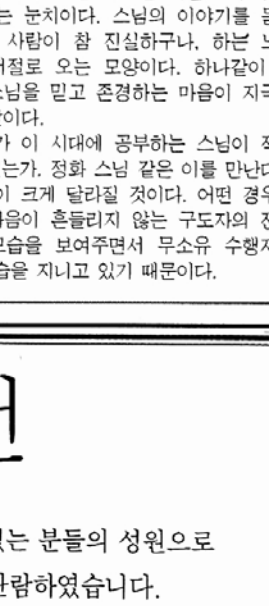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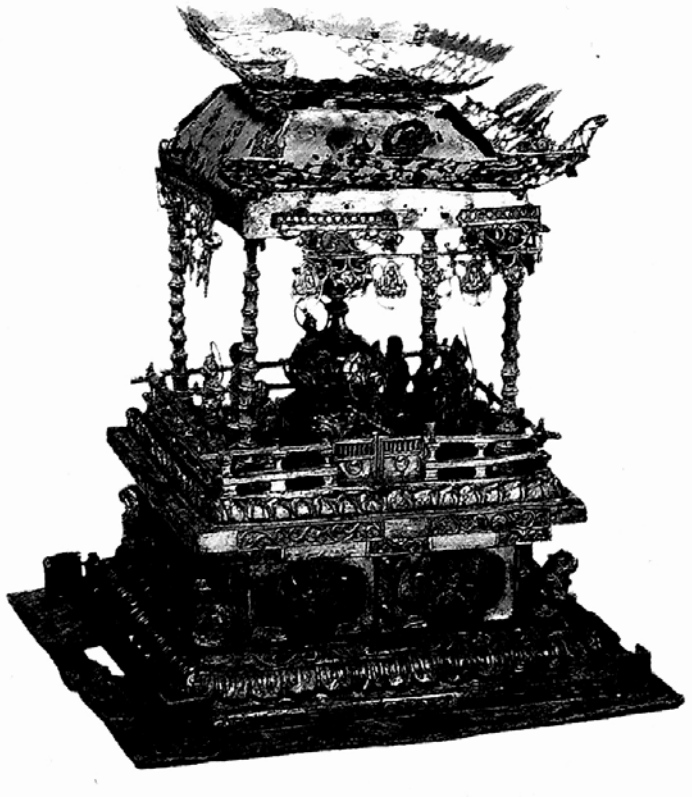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강원 하반 시절에 상반의 '시집등쌀'이 얼마나 센 지 정말 고추보다 매웠다. 그가 반장을 하면서 공사가 벌어졌을 때에 아주 점잖이 상반의 체면도 세워주고 하반의 입장도 살려주었다. 정화 스님은 공손한 말씨 하나가 일품인데 극한상황에서도 요지부동으로 흔들림이 없다. 소 눈망울처럼 멀뚱멀뚱 뜬 그의 눈을 보노라면 저절로 존경이 생긴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생활 속의 유식 30송〉 외에 재작년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 스님이 쓴 게 아니고, 그의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를 청강한 이들이 녹음해 두었다가 테이프 내용을 채록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를 따르는 이들도 무척 존경하는 눈치이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사람이 참 진실하구나, 하는 느낌이 저절로 오는 모양이다. 하나같이 정화 스님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말이다.

누가 이 시대에 공부하는 스님이 적다고 했는가. 정화 스님 같은 이를 만난다면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도자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소유 수행자의 본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법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가람의 장면들 29

능인선원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역량있는 전문 건축가에게 의뢰해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현대적이고도 훌륭한 도시가람으로 태어난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 전경.

현대미 풍기는 도시가람 '모델'

'사찰'이라면 아직도 호젓한 산속의 고풍스러운 기와집을 연상한다. 일반인들은 물론이요, 불교 신도들이나 스님들까지도 '절집은 한옥'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한복판에 포교당이나 새 가람을 지어야할 경우에도, 한식 기와를 얹은 가람건물들이 종종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첨단 정보와 이미지에 익숙한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지어지고 있는 도시사찰들은 국적 불명의 어정쩡한 낡은 건물이며, 불교까지도 촌스러운 종교로 여겨질 수 있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의 생활에 맞추어, 교단이 우선 해야할 일은 도시 포교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포교의 방법이나 목적 등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몇 년전 천주교에서는 명동 성당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새 성전을 건립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제 현상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 전 세계 건축계의 이목을 명동에 모았던 성공적인 행사였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나 성당건축은 현상경기를 통해, 또는 명망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쓸모있고 멋있는 건축물 짓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타 종교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번잡스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사찰이나 교회건축은 종교를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물이 있더라도 그릇이 깨져 있거나, 보기 싫을 정도라면 그 속의 음식도 맛을 잃어 버린다.

서울시내 어떤 사찰을 방문했던 경험이다. 그 사찰은 아래는 경범한 현대식 사무소 건물이었고 위에는 전통적인 목탑을 흉내낸, 양복입고 갓쓴 골의 건물이었다. 건물 형태만 수준미달이 아니라 내부의 기능도 엉망이었다. 현대적 포교 기능을 담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기능적인 건물이었다. 주지 스님께 이 건물의 설계자가 누구인가고 여쭈었더니,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셨다. 건축 전문가를 외면한 결과, 공사비도 엄청나게 든 거대한 가람은 시대착오적이고 촌스러운 건물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자들이 많이 모여든다니, "건축이 뭐 별거냐? 훌륭한 스님만 계시면 되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건축까지 좋았다면, 도시 포교사상 신기원을 이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도시사찰의 건축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개가 그런 수준의 새 건물이거나, 아니면 가정집 등을 개조한 조잡한 건축이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다. 역량있는 건축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새로운 시대적 정신과 도시의 복잡한 환경을 해결한 우수한 가람건축들이 있었다. 서울 포이동의 능인선원은 그 대표적인 예다.

도로변 비좁은 급경사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
땅밑에 지은 대법당 '특이'

능인선원의 건축가 환일인은 현재 대한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다. 어떤 경로로 그에게 설계를 의뢰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대 불교건축의 현실로는 최기적인 결단이었다. 결과는 기대보다 훌륭했다. 능인선원은 등록된 불자만도 12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찰이다. 그러나 대지는 불과 900평 정도로 협소하고, 그나마 남부순환도로에 접해있는 북사면의 급경사지에 위치했다. 이 좁고 불리한 대지에 대규모 법당 뿐 아니라, 불교대학과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야외법당, 심지어는 대형 주차장까지 넣어야 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건축가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러나 능인선원의 건축가는 불리한 대지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까다로운 요구들을 훌륭하게 해결했다. 우선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1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했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을 지하에 만들었다. 가람에서 가장 중요한 대법당을 지하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모안이었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천장 곳곳에 창문을 닿아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계획했다. 내부가 어느 정도 밝을 뿐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빛들을 예술적으로 조절해서 신성한 법당의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다.

법당 지붕 위는 당연히 광장이자 야외법당으로 활용도고, 야외법당 주변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건물이 둘러싸서, 앞쪽 남부순환도로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 뒷산을 향해 놓여진 야외법당은 도심 속 산사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이 선원이 위치한 대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상에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는 땅이다. 실력있는 건축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지 전체의 지하에 대법당을 넣을 아이디어도 실현될 수 있었고, 복잡한 여러 시설들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능인선원 건물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입구에 대형 신라식 석등을 세우는 등,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전체 구상에는 맞지 않는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인선원은 진정한 현대 도시사찰 건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가끔, 새 불사를 희망하는 스님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불리한 땅에,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가람건축을 할 수 있겠나?"고. 우선 중요한 것을 대답한다. "실력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십시오"라고.

"무관심 극복…연대기구 창설을"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이 14일 형기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와 때맞춰 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권운동을 진관스님을 비롯한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연대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불교계의 인권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발전가능성과 그 대안은 무엇일까.

불교 NGO 免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불교계 인권활동 현황과 전망

경불련·좋은벗들 등 6개기구 활동
교리우위 불구 타종교보다 열세
'평등정신 확산' 지속 관심 보여야

불교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 90년 10월 진관스님이 불교인권위를 설치하면서 불교인권운동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동안 불교인권운동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불과 3~4년전 인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을 때에도 불교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남녀평등'식이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계에서는 생소하기까지 했던 '인권'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았고,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주로 정치적 이슈에만 묶여 있던 활동방향이 외국인 근로자나 탈북난민 문제 등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된 것도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교계의 인권활동은 활동의 지속성이나 적극성,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인권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계 단체는 불교인권위원회, 경불련, 좋은 벗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교인권위원회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만을 다루는 경불련, 북한 난민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좋은 벗들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곳은 없다. 연합체 성격의 기구로는 '불교장기수후원회'가 있으며, 98년에 활동했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와 같이 특정사안이 있을 때만 가동됐던 몇 개의 기구들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97년 출범했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1년도 지나지 않아 활동을 멈춘 상태다.

불교가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인권 무지' 풍토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해 교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량과 영역이 크게 뒤지는 것은 무관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불교인권위 조혜은 간사는 "개신교는 각 교단별로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조선족 교회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며, 천주교는 잘 알려진 대로 인권문제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불교계는 단체간 연대로 잘 안될뿐 아니라 스님이나 신도들도 거의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경불련 정진우 간사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6년간 갇혀있던 네팔 여성 노동자가 구출됐던 사례는 불교인권활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진우 간사는 "종단차원에서 인권실천 불교연대를 창설과 인터넷을 통한 불교인권 사랑방 개설 등 보다 다양한 접근과 함께 이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투쟁 지향적 보다 부처님의 평등사상을 접목한 사회교화 차원으로 나간다면 불교의 인권운동도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으로 현실의 사회문제를 풀고자 '초기경전 읽기 모임'이 매주 수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불련 '초기 경전 읽기 모임'

"사회문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죠"

10여명의 사람들이 다함께 경전을 읽고 있다. 이들은 읽고 있는 경전은 초기경전인 〈쌍윳따 니까야〉. 부처님이 제자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불교를 접할 수 있다.

경불련이 14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문을 연 '초기경전읽기모임'.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7시~9시 불교사회운동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초기경전을 함께 읽음으로써 현실의 사회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고 아울러 사상적 토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과 노귀남 박사(경희대 국문학 강사)의 강의가 이어지고 참석자들 모두가 경전을 읽고 난 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경불련 대외협력위원장 임효정씨는 "불교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는 늘 고민스런 부분이었다"며 "이렇게 경전을 읽고 토론을 하니 부처님의 사상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불교운동가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02) 3147-2600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奉 如來寺 萬佛殿 本尊佛 點眼法會 安

알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一山 신도시 정발산 여래사
만불전 불사를 시작한지 3년만에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지하 3층, 지상
5층 연건평 3,000여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신도시 대중포교의 도량으로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는 본존불 점
안식을 만불전에서 봉행코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佛紀 2544年 7月 日



본존불 점안 법요식
■일 시 : 2000년 7월 2일(음 6. 1) 오전 9시 일요일
■장 소 : 여래사 만불전
■증 명 : 月下 大宗師(영축총림 방장)
普珠 大宗師(칠보사 조실)
■법 주 : 원명 스님(전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통도사 주지)

특별문화공연
■일 시 : 2000년 7월 2일(음 6. 1) 오후 1시
■장 소 : 여래사 만불전
■공연자 : 일본 정행사 불교 아악단, 법패
임이조(인간문화재) 승무
박병천(인간문화재) — 진도 북춤, 사물놀이
변재남 대금산조
극단 艸市 뮤지컬 컴퍼니 — 뮤지컬 렌트(RENT)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一山포교당 如來寺 侍者 頂宇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0
☎(0344)905-7766, FAX (0344)905-045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장〉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돌아서서 간절히 믿고 놓는데 살길 있어

사업 안돼 문닫을 위기에…

문 매주 선원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을 7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무역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돈을 다 까먹고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고, 주인공에 맡겨보고 있지만 마음의 길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한강 다리를 지날 때 이대로 다리를 뛰어 내리고 싶은 마음이 몇번이나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주인공 당신은 할 수 있어, 이 난관을 주인공 당신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에 맡겨보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답 언젠가 산중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 여럿이서 토끼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느라고 산등성이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웅성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등성이 아래쪽 골짜기에 토끼 한 마리가 숨어 있었던가 봅니다. 그 토끼는 소년들이 웅성대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안전할 텐데도 그걸 모르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쳐도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소년들이 위에 있으니 아래쪽으로 도망을 치든지 옆쪽으로 도망을 쳐야 할 텐데 이 미련한 토끼는 등성이 쪽을 향해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란 동물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서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보다 달리기가 더 쉽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굴러버리기가 십상이지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습에 배었기 때문에 일단 뛸 일이 있으면 오르막을 향해서 뛰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소년들은 옳다구나 하고 몽둥이로 토끼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설맞았기 때문에 토끼는 아래로 미끄러져서 굴러갔습니다. 그쯤 호되게 당했으면 이젠 아래로 가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토끼는 당황한 나머지 다시금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소리소리 지르면서 토끼를 내리쳤고, 토끼는 다시금 굴러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이나 한 뒤에 토끼는 아이들의 사이를 뚫고 등성이에 올라서더니 등성이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토끼를 뒤쫓아갔지만 아마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 버리면 얻는다는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 토끼와 아주 비슷합니다. 살 길은 앞으로 치닫고, 위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돌아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로 오르려는 습, 집착과 욕심이라는 습에 젖은 나머지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그런 나머지 몽둥이에 얻어맞으면서도 살겠다고 계속 몽둥이 숲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에 놓았다고 하는데, 생각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과거에 남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못살게 만든 장본인이니 내 탓이고, 지금 내가 못살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으므로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그 모두를 녹여야만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간절하게 믿고 놓아야 없어집니다. 그래야 조금도 에누리가 없고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잘하면,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힘과 생명을 지닌 부처인 것입니다.

범인과 성현이 하는 결혼차이

문 큰스님의 법문을 모은 서적을 서너 권 구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깨치기 전에 결혼하지 말 것이며, 결혼했으면 깨치기 전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신 법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선지자 중에서도 결혼을 하고 자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범인이 하는 결혼과 성현이 하는 결혼에는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답 시장에 가보면 모습을 가지고 나온 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모아놨죠? 그것이 누가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하는 사이 없이 끼리끼리들 모여져 있어요. 뒤섞이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자기가 뿌려놓은 2세들이 전부 한 염주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하나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염주를 하나 들어도 염주알이 전부 달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이 도리를 알아서 증득한다면 그냥 한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꿰놓는다면 다 들리는 겁니다. 꿰어 놓질 않고 전부 흩어져 있다면 다 들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마음공부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떠나서 해야하는 거죠. 출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지 몸만 출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가를 하는 것은 우선 가정을 버려야 하고, 부모 형제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나 자신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철 살다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 갈 자리도 없어요. 생사윤회를 몽땅 치워 버렸거든요.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으며, 그 자리에서 가는 건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인연을 내려놓으면 얽히고설킨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낫죠.

그래서 옛말에 "일찍이 불자가 되었다면 먼저 참나를 찾을 것이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학생때문에 고민

문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떤 학생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이 학생은 말썽쟁이로 소문난 아이인데 학년초에는 좀 마음을 잡는 듯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마음이 떠나서 이유도 없이 전학을 가겠다고 하지를 않나, 아예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여 그의 부모님과 저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어떠한 말로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행동이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출을 하여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자니 스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듯하고….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한참 엇나가는 모습에 불안감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린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저의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 더욱 진중하게 노력해야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생님과 제자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인연줄은 전기 가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觀)하면 학생에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도 그 마음을 열지 않고, 행동이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출을 하여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자니 스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듯하고….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한참 엇나가는 모습에 불안감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린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저의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 더욱 진중하게 노력해야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생님과 제자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인연줄은 전기 가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觀)하면 학생에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도 그 마음에 결부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나 극악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더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식구들을 관할 때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며, 그네들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그것이 안 되겠느냐.' 하고 그냥 간절히 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80%, 90%가 좋아진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내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참 대견스럽군요. 마음과 마음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둘 아닌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고 지극하게 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절을 절이라고 하는 이유

문 저는 인터넷을 통해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 혹 절은 절로 되어서 절이라고 하는지요? 요즘 은 절을 할 때 저절로 합장이 되고 앞을 두루 살피기도 하고 절도 저절로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라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뜻으로 본다면 마음을 한데 모은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이 한데 합쳐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을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한테만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형상이요, 여러분도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형상한테 다 절을 한다면 그것은 꼭 허수아비가 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번쯤 가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닙니다. 그 찰나에서는 두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다 절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둘 아니게 절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둘 아닌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무를 하나 세워 놓고 절을 했을지언정 어찌 나무에다 절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그 자리에 절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하면 전체가 한데 계합된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포함해서 전부 들어가 있으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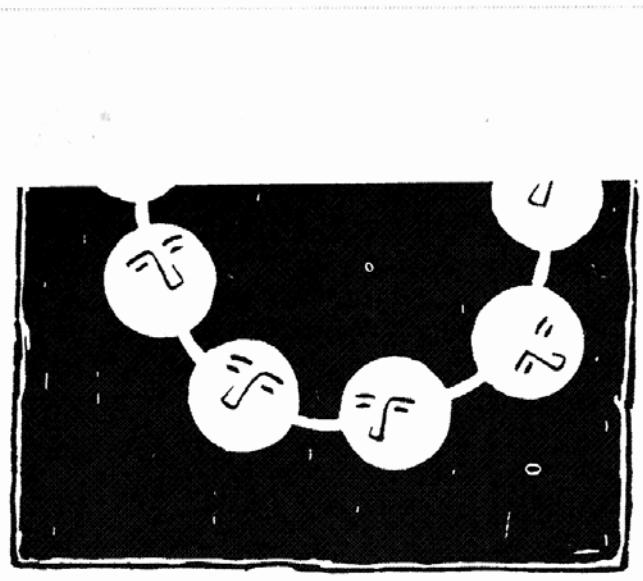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들고 있다, 놓고 간다할 게 없어요
마치 실재하는 양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걸려 고생을 하는거죠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6월 장마철을 맞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및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풀씨파종을 6월 6일(화), 6월18일(일) 2회에 걸쳐 강원도 일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풀씨파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옵고 **厚意**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발원드립니다.

	1차	2차
일 시	6월 6일(화)	6월 18일(일)
장 소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자원봉사 동참인원	64명	75명
참가단체 (개인포함)	대불련 · 불자련 자원봉사단 · 홍제포교원 방생선원 · 사천왕사 · 길동관음의 집 · 원당사 기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성금전달 접 수 처	강 원 도 청	
성 금 전달내역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500만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100만원 ⊙원당사 : 쌀100kg,생필품 2박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임직원 일동 합장
☎ 02)723-6258

金山큰스님 서화 전시회

대구 대덕 문화의 전당에서 서화, 도자기 작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쳐 범인세계 경호원 연맹 모금 불사에 큰힘이 되었다.

◈ 금산스님 뒷걸음 ◈

1935 일본 후쿠기령 미야모군 간다이치 출생
1958 안산 동도사 입산 득도(경봉 큰스님)은히
1962 고당(박생광 스님)으로부터 단청사사
1967 대한민국 미술대전 동양화 부문 특선
1968 신정희 지은택 회 6명과 묵경 라응 갈령 옛 절그릇 재현
1972 한 · 중 · 일 불교미술 교류전 달마산 서화(대상)
1973 부산한시장 회장)-개인전(불교미술 만다라 전)
1975 서울 인사동(창문 화랑)-신수화전
1978 마산동서화랑)-개인전(동양화전)
1981 마산선화랑)-개인전(불교선 시화전)
1987 사단법인 달무법 예술인회 추대작기
1988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 연구원 서화부 강사
1991 이웃돕기 자선전 서울(엣갤화랑)-개인전(인사동)
1993 경북 달성군 군민체육관 김기연양 돕기-자선전
1993 부산 예술회관 - 동대구 갤러리 돕기-자선전
1994 승보 기금 0전 동양화전 - 춘주
1995 경주 천마 공에 전시장 오등전
1996 KBS 전시실 불교예술인 기금모금 자선전
1997 대전 금산 큰 스님 초대전(에서화랑)
1998 용인문화회관 행의전
1998 경기도 군포시 시민회관 1인 돌호전
1999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아트 전람회
대한 불무도 협회 기술 고문
대한 컴퓨싱 중인 상임기술 고문 및 국제심판
세계 스킵사 선무도 우슬 범장검 사범



범인 세계 경호 연맹 대구광역시 본부
T. (053)651-7707 F. (053)626-4747
한국불교 범종단 최고 원로회 원의청
T. (代) 0333-656-8951

※ 이번 전시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국불교 범종단 최고 원로 회의 대표 의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 민택 배상

달마도사 이르시되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케 하였도다.
이로써
석가세존의 불교가
용수보살의 보살교를 거쳐
달마조사의 조사교가 되니
시절인연에 따른 변화
그 자체라네
-서문에서-

보덕현호 시집

달마를 보라!



A5신 176쪽 값 5,4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5,4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선암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300년을 이어온 청정 도량 선암사에서
3박 4일간의 출가수련으로 고요하고 맑은
처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바다에 한송이 연꽃피우소서

선암사 일반인 수련회 일정		
기 간	연 령	인 원
1차 7/15 ~ 7/18	20~60	80명
2차 8/5 ~ 8/8	20~60	80명
3차 8/12 ~ 8/15	20~60	80명

숲속 어린이 수련학교 일정		
기 간	연 령	인 원
7/22 ~ 7/24	9~13	100명

▶장 소 : 선암사 관음전
▶참가자격 : 불교신자, 무종교자
▶수련회비 : 일반4만원, 어린이 1만 5천원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지참
▶도착시간 : 오후 2시까지
▶접 수 : 3일전 접수 마감 (전화접수가능)
▶전화접수 : 051)803-7573, 803-7522
▶선 암 사 포 교 부 : 부산은행 : 054-12-084085-0 국민은행 : 116-01-0396-848(선암사)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 암 사
주지 원 타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밖으로 찾으면 둘이 되니 안으로 관해야

☞ 15면에서 계속

니까 자기가 어떠한 형체 하나를 세워놓고 절을 한 것뿐인데 왜 상대한테다가 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또 내가 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 되고 절을 누구에게 했다고 해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다가 절을 하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일배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항복시키고 자기는 자기에게 항복을 받는 겁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 돕고 싶어…

문 스님, 저는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다 공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스님, 어머님이 너무 아프십니다. 주위에 있는 식구들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턱 놓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스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당신 모습이지 딴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뚱이 속에서 천차만별의 의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이 모두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즉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 모두를 닥치는 대로, 누가 아프다 해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자기 나무가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나무가 저 나무에다가 에너지 좀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에너지가 오지 않아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자기 싹을 살리려고 에너지를 베풀죠.

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공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공체며 공심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은 게 없고, 혼자 본 게 없고, 혼자 들은 게 없고, 혼자 움죽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두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일러줘도 자신이 이 도리를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는다면 절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그 숱한 보살의 이름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약사보살도 내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일러드리세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냥 놓고 걸어가면 되는지요

문 항상 스님의 법문따라 생활 속의 수행이라 하여 현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냥 놓고 걸어가면 되는지요. 모든 사람을 잘 이끌어 가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답 질문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공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스님! 다 놔 버린다면 어떻게 삽니까?"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놓는다면서도 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이렇게 말입니다.

나 자신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사님께서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하고 돌아가실텐데,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고 가는 말들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하셨고, 분명히 들었지만, 어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벌써 지나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본래 그대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고 있다, 놓고 간다,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남아있는 양, 실재하는 양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그만 그 생각에 걸려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숱한 고생을 하므로, 놔라놔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대로 이미 놓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리 오너라!" 하더니 담박 멱살을 탁 잡고는 "요놈아!"하고 주장자로 무조건 갈겨댔습니다. 제자가 아파서 "아이구! 아이구!" 하니까, 그 스승께서, "요놈! 아이구 아이구 하는 놈이 누구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 그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놓느냐, 다 놓는다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만, 진실로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놓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 남의 이름을 믿으라면 잘도 믿으면서, 자기를 있게 한 장본인을 왜 못 믿습니까? 그렇다고 놓고 가만히 공(空)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고 참되게 믿고 맡겨놓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도 더 잘되는 운데 가설이 되지 않아도 안되구요. 참마음이 없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무난히 돌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자체가 전력을 알아야 상통하듯이 내 안의 근본, 주인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체의 고난과 역경을 공부의 재료로 알고 그 근본에 일임할 수 있어야 문제는 해결되고, 그 체험 하나 하

다가오는 일체의 고난과 역경 재료로 알고 근본에 일임하면 문제 해결되고 부자 상봉돼요

생각하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어떻게 하면 딸애가 빗나가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애가 탑니다. 너무나 착하게만 생활할 것을 바라는 것도 저의 큰 욕심인지요. 모든 것을 주인공한테 맡겨야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참회기도로써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요. 큰스님의 말씀 간절히 청하옵니다.

답 여기에서는 부처님께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면, 자의로서 자기 근본인 주인공자리에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 안으로 관(觀)해야지 밖으로 구하고 찾아보아야 더 미(迷)해지기만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밖으로 찾으면 이건 벌써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벌써 자기 자신을 저 밑에다 내려놓고 밖으로 높은 곳을 향해 허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관(觀)하라고 합니다. 목마르면 직접 자기가 떠서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 것이지, 하늘이 열 쪽이 난다해도 바깥으로 끄달려서는 어떤 것이든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든 살든 어차피 낙엽은 떨어질 것을, 그것을 웅크려 쥐고는 어떻게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오히려 '고'가 생기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좀, 자기 근본을 믿고 놓고 지켜보세요!

부와 자가 상봉한다는 뜻

문 부와 자를 상봉시킨다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영원한 근본의 마음, 즉 말하자면 나를 진화시켜서 이끌어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만, 그러니까 마음 자체 그 테두리는 부(父)가 되며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합니다. 마음 내는 것은 자(子)가 됩니다. 전력은 부가 되고 불이 들어오는 전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구에 불 들어오는 작용과 전력이 들이겠습니까? 둘이 아니죠. 전구가 없어도 아니 되고 전력이 흐르지 않아도 아니 되겠죠. 그 가운데 계속 관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어서인지 겉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이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것은 '구정물이 새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바꿔서 거기 놓아야 합니다. 구정물이 나오게 입력이 돼 있다면 구정물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구정물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새 물로 나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대처를 해서 다시 놓는 겁니다. 이것이 굴려 놓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믿기는 믿되 굴려 놓지 못한다면 생활에 장애가 있어도 타파를 못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대로 어찌 다 타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마음으로 하는 작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니까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 돌아야 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게 아니고 안으로 믿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걸음 떼어놓는 것까지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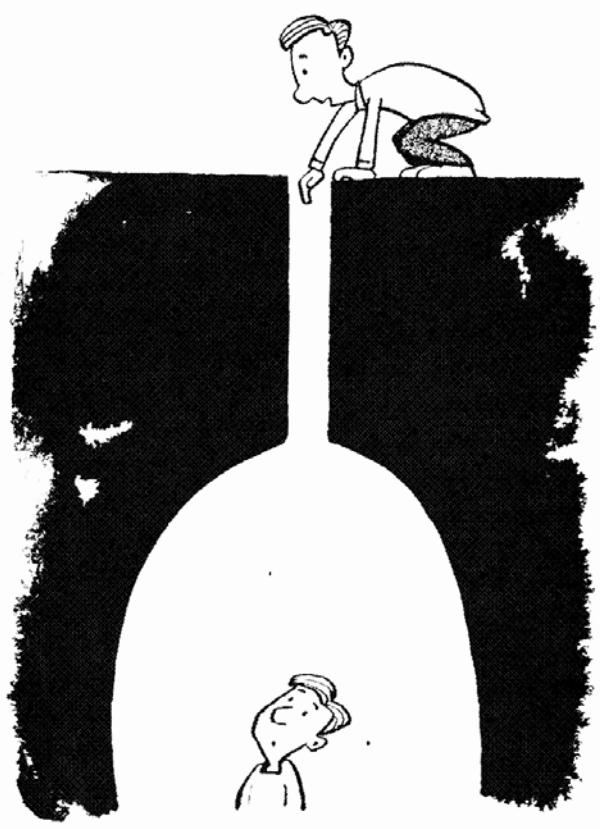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가 바로 나임을 알려면…

문 스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볼 때면 그렇지 못하다는 자책이 많이 듭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만사가 본래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런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본래 없어서 일체가 바로 나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저의 소견으로도, 일체를 자신과 둘로 보지 않고 근본은 하나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그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보지 않고 한마음으로 진정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답 우리는 공생(共生)으로 삽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까닭에 공심(共心)입니다. 그리고 또 공체(共體)입니다. 얼마나 그 생명들의 체가 많습니까. 그러니 공체입니다. 그리고 움죽거리는 것도 공용(共用)입니다. 모두가 분야 분야를 맡아서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야 분야 맡아서 움죽거리는 자체를 공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공용으로 움죽거리는 거를 원식에서, 즉 말하자면 공식(共食)으로서, 공식이라고도 하고 원식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모든 거를 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서는 집어먹는 데도 시간이 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를 집어먹어도 전체를 집어먹어도 집어먹는 사이가 없이 집어먹게 되고, 함이 없이 하게 되고, 주는 사이가 없이 주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식이 공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식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이 한데 모두 어우러져서, 즉 말하자면 원공이고 원식이지,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부.

경제적 발원은 기복인지요

문 진정 원하는 것을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내 주관적인 판단으론 절실하겠지만 남이 볼 땐 경제적인 바람으로 보이는 발원이라면 결국 기복적인 것밖에 되지 않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기복은 발원하지 않으려고, 그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주인공에게 많이도 말을 하지만, 닥쳐있는 현실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나를 속인 적이 많아서 주인공 찾기가 너무 민망할 뿐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제게 길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

답 원심을 낸다고 하죠. 즉 말하자면 한마음이 되는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문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원을 낸다는 말은,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한마음을 내가지고 보니깐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안에서 한마음이 다 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한마음으로 다 조절을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내 마음 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찾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에 관하는 거는 한마음으로 중심에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첫째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야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하고…, 제각기 말입니다. 뜻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고, 물질로 갖추어져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죽거려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해서 전부 각각 나가서 소임을 마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 얼른 쉽게 말하자면 마음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 응신이 나가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둘이 아니게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이 불안하고 못미덥고 하니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궁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 말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구족하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통신이 되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진실하게 말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天然地 氣 探知機
(땅의 기운이 영험해야 인물이 난다)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수맥탐지기 1세트 증정)
전화주시면 팜플렛 우송
TEL:053)982-4976/011)813-3679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강좌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전의식
▶ 기본과정 : 도량석, 쇳송, 예경, 불공시식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다비의식, 제반의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의식, 바라무, 작법무, 특별의식 등
▣무료강좌
▶ 생활불교의식과정 : 예경, 통과의례, 고사, 불공 가정의례, 법회의식, 기도의식등
▶ 교육기간 : 3개월 ▶ 지방수강생 상담 환영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481-4482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91)755-6997/759-1514
016)612-9204

철 학 (개인지도)
▶ 주역(周易)
1. 四柱로 손님을 감정하다.
(한계를 느끼고)벽에 부닥친분들
2. 아무리 공부를해도 말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
3. 기초는 없으나, 늘 배워보고 싶은분들
4. 혼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
5. 혼자 책을 봐서 지친분들
6. 처음 배워서 개업 하실분
※ 노력여하에 따라 3~5개월에 개업확신
02)571-4773(578-0480)
018)419-4167 고 운 처사

구인구직

스님 없는 사찰을 구합니다
가정화목, 사업발전,영가천도
불치병치료등 천견으로 사찰을
번창시키겠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8)611-0675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공양주 보살 구함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55세)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2-1 수락산 도솔사
02)952-4204
952-993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60대)
충북 증평읍 송산리
미륵사
0445)838-3562
011)486-4408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은
조그마한 암자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2)694-6387
011)449-6952

기도하면서
한식구처럼 함께 살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산청 지리산 **종불암**
0596)
972-1268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오랜지병 즉각 효험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성림사
0366)435-6166

출가수행 농장에서 수양생활 하실 분
▶ 절 일을 도와주실 보살님, 거사님, 절에서 살고자 하는 보살님, 거사님 노스님 수행원 건립에 화주 시주자 기다립니다.
▶ 어린이 법회 위기 선생님 급구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02)885-1558
수련원 농장 0433)542-2238

불교용품

강원 버섯 농장 (太白山)
1. 상황 버섯(자연산 및 뽕나무 재배)
2. 동충하초 3. 아가리쿠스
4. 송이 버섯(자연산) 5. 장뇌 산삼 (太白山채취)
6. 지장수(황토에서 추출한 물)
※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 우송하여 드립니다.
강원버섯 농장 김 동 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6리 1814
0353)458-8077/017)355-8995

증국보이차
등시해 교수가 감정한
진품보이차만 판매함
다기 · 생활자기
02)3443-9612
보 이 명 가

기타

지식정보화시대 **인터넷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
서비스 상담전화 02)2242-2376
http : //www.mapsi.net
E-mail : webmaster@Mapsi.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현 대 자 동 차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 불자님의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믿음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 구 진 천 점
원응 곽영순 합장
011)509-9456/053)639-1100
(부재시 메모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버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금고 · 불전함 제작처와
상담코자 하니
이 광고 보시는 대로
연락바람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대한불교조계종 **약왕사**
약사여래불기도,
묘법연화경독송 동참
▶기도기간
매월 음력 초하루 입재
음력 그믐날 회향
0347)767-5888

▶ 초등학생 유학(만12세 미만)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어학연수후 본과로 진학
▶ 대학생및 성인 대상 랭귀지스쿨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홈스테이)
▶ 공항 픽업 및 학생비자신청 대행
▶ 단기 어학연수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Email:rafaga@world-net.co.nz
PH:64-9-416-4252~3 HP:64-9-021-2132666
FAX: 64-9-416-4252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 영 암
◇사 찰 명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내선26
극 락 사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6.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이월면 소재
◆ 대지 : 397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4평
◆ 건물 조립식, 등기 완료
◆ 가격 : 6,500만원
0434)537-4070
※스님 직접 면담

포교당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 평수 : 약40평, 법당20평이상 큰방2개, 주방
◆ 특징 : 불사시설 완비, 위치최적
◆ 가격 : 전세1300만원/월103만원 (월관리비 포함)
시설비700~1,500만원, 답사후 절충
011)9928-5945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포 항
◇법당 : 20평
◇요사 : 30평
◇부지 : 820평
◇가액 : 5억5천
※ 불심 돈독하고 내 집처럼 생활할 노보살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0502) 713-5634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포교원(급) 안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4거리
◆평수 : 3층 45평(법당), 4층 45평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가격 : 보증금1천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343)469-1562
011)9807-67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위 치 : 경북 김천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이상) 법당28평(사무실포함), 산신각, 창고 주차장, 요사채 55평, 방 7개
◆특 징 : 경관이 좋으며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별장이나 기도처로 적합, 대형차량 진입
◆가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59)953-3478/951-3308
011)9805-53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천보사 포교원
◆ 건물 : 1층 요사채 28평 주방10평, 2층법당 28평
◆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 시설이 완벽함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10만원시설비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 017)741-1467

포교당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 평수 : 약40평, 법당20평이상 큰방2개, 주방
◆ 특징 : 불사시설 완비, 위치최적
◆ 가격 : 전세1300만원/월103만원 (월관리비 포함)
시설비700~1,500만원, 답사후 절충
011)9928-5945

토굴터 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평수 : 62평
◆특징 : 황토집 적당
◆가액 : 2천 만원
0597)962-3528
011)9535-3009

암자교환 원함
◆ 위치 : 익산시 신용동 원대뒤 700미터
◆ 부지 : 등기필130평, 국유지 40평, 총 180평
◆ 임법당 10평, 주방9평, 큰방1, 차량진입, 부지 넓은 산속 암자와 교환원합니다.
◆ 가격 : 전세3천, 양도7천
0653) 853-1666

포교원과 철학관 안 내
◆위치 : 대전 역전
◆법당 20평, 철학관 15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물, 가재도구 일체 1천만원
042)253-3545

토굴터 안내
◆ 선착순 1명 (찬스!)
◆ 양산 통도사 옆 계곡물 졸졸
◆ 부동산 거래사절(직접)
◆ 총 500평 등기 350평
◆ 가격 : 4500만원
011)508-1781
053)767-6705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 수 : 약 60평,법당30평 큰방2개, 주방
◆ 특 징 : 불사시설 완비 3층건물의 3층
◆ 가격 : 보증금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절충가능
019)473-7613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월명공원 근처) 미륵사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미륵부처3분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9646-3220

포교당 안내
◆ 위 치 : 수원
◆ 평 수 : 80평 방3개 샤워시설
◆ 특 징 : 아미타불 삼존불 등불 有, 108지장전 有 사찰의 모든시설 일체
◆ 가격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일체포함 5,500만원
019)310-8818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북 정읍시에서 15분거리
◆ 부지 : 500평 미륵부처님 22자 모셔져 있음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30평
◆ 특징 : 천연약수와 소나무숲으로 경관이 수려함
◆ 가격 : 7,500만원(선착순)
※ 대지와 건물 모두 사찰로 등기 돼 있음
011)890-7618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1동 25-2호 점보B/D 3층 보원사
◆ 평수 : 27평, 법당1, 방1, 주방1
◆ 가액 : 보증금3천 월40만원 시설금500만원
02)413-7180
016)272-8043
※ 주 차 가 능

사찰 안내
◆ 위치 : 의성군 단촌면 소재
◆ 부지 : 6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 가격 : 6천만원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적요지
◆대지 : 250평이상(국유지포함)
◆건물 : 법당40평 요사채70평 주택4가구
◆특징 : 교통편리(지하철 5분거리) 포교최적, 산세수려(靑山) 신도1000세대(현재)
◆가액 : 답사후 결정
051)208-1122
※ 부산시내 사찰신축, 실버타운적지 부지3000평 있음

포교당 안내
◆위 치 : 진주 전포동 (송상현 동상삼거리)
◆건평130평, 법당70평 (방5개) 법당시설 일체완비
◆가액 : 전세 1000평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51)818-0664
0525)326-0671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대지 : 430평 (등기필)
◆ 건물 : 1층 70평(법당20평) 2층 20평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 덕산온천옆
◆ 가격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458)337-6348

불자 세상보기

의료대란…결국 인명사고로

"생명보다 귀한 것 없다"

의사들이 20일 집단 폐업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혼란상태가 빚어졌다. 말 그대로 의료대란이었다. 교통사고 중환자가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가 하면, 용인의 한 산모는 무려 33시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을 오가다 겨우 출산하기도 했고, 강도 피습을 당한 40대 남자는 15시간만에 겨우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지병을 앓이오던 한 30대 남자가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 수술을 받았지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고, 70대 노인은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으나 수술실로 향하던 중 숨졌다.

싱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의약분업안에 대해 의사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극한 투쟁은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라는 명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랜저를 탔는데 어떻게 소나타를 탈 수 있느냐는 것인가? 아니면 밥을 굶게 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현제라는 나라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병든 비구의 몸을 씻어 주며 간병을 했다. 그러자 그곳 왕과 신하가 부처님에게 "어찌 그토록 존귀한 어른이 병들어 더러워진 비구의 몸을 손수 씻으시나이까"하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왕과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래가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런 불행에 빠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니 모든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해서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점차 공덕이 차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부처님이 지위를 버리고 몸소 병자를 돌본 것은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런 부처님이 의사들의 폐업을 직접 보았더라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대부분 의사들이 폐업에 동참한 가운데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소신대로 진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동료 의사들의 온갖 협박을 마다하고 진료를 멈추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강원도 양양에서 18년째 산골을 왕진하는 할아버지 의사 이기섭씨(88)가 새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간단하다.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다.

한 의과대 교수는 홈페이지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폐업반대의 글을 올렸었다. "의사들의 진정한 권력은 지식이나 집단적 단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환자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것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범망경〉은 의사의 도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온갖 병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이를 공양해야 한다. 여덟 복전 중에서도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니 갖가지 병고를 다 보양해서 낫게 해야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폐업이 시작된 20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2백여 명이 시위하듯 가운을 1층 로비에 벗어 정렬해 놓은 채 병원을 떠났다.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과 경불련 부회장 종후스님 등은 22일 서울대학병원을 방문, 교수들의 폐업동참 자제를 촉구했다.

육군 상사의 '장애아 입양운동'

〈대지〉의 작가 펄벅은 위대한 문학가인 동시에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어머니여, 한탄하지 마세요〉라는 책에서 펄벅은 지능발달이 멈춘 장애인인 자신의 딸에 대해서 쓰고 있다. 딸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매던 펄벅은 마침내 미국 내의 학교란 학교는 모두 방문한 끝에 뉴저지주의 한 학교를 발견해 냈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펄벅을 위대한 문학가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애 입양아의 육아일기를 가족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입양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육군 상사의 얘기는 펄벅의 딸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감동을 준다. 육군 제50사단 강문구 상사(34)와 부인 안수현씨 부부는 5살난 아들이 있었음에도 96년초 생후 2개월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2년 전 예은이가 이상한 몸짓을 하고 식사량이 보통이 넘는 행동장애와 섭식장애 상태를 보이자 강상사 부부는 예은이를 친딸 이상으로 돌봤고, 그 결과 완쾌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최근 자신들이 예은이와 함께 지내온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www.sky528.pe.kr)를 만들어 본격적인 입양운동에 나섰다. 강상사는 40이 넘으면 장애아를 한 명 더 입양해 키울 생각이다.

불교의 수행은 애욕의 집착을 끊는 것이지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것. 강상사 부부의 예은이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런 정토를 가꿔가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제지간 서로 고발

학교 유리창을 깨뜨린 학생을 체벌한 교사들이 한 학생의 인터넷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자 학교측이 당시 유리창을 깬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보기 드문 사건이 지난 20일 전남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즘되면 '사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나을 법도 하다.

부처님은 품성이 미련하고 3년동안이나 글귀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반특'이라는 비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는 우리 교육의 마지막 희망이다. 본래 선하다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악하다면 교육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충북도가 지난 15일부터 5박6일간 일정으로 6월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등남아 '위로여행'을 실시해서 빈축을 샀다.

충북도 세금남용 '빈축'

명예퇴직 공무원 동남아 위로여행

이뿐만 아니다. 충북도 의회는 요즘 7500여만원을 들여 의장실 개조에 한창이고, 청주시는 지난달 말 공무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콘도회원권을 8000여만원에 구입했다.

〈화엄경〉에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는 가르침이 있다.

관계자들은 "위로여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그런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어떤 민폐를 끼칠지를 생각하면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하기 만 하다.

"15억명 1달러 하루살이"

국제 노동기구 발표 전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인 15억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1일 발표했다.

ILO는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 3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성인 중 30%가 문맹이며 인구 30%가 음료수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엄경〉에는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운 가난한 사람에게 보살이 자신의 살을 베어 보시함으로써 구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지듯,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인류애적인 자비가 필요하다.

시론

통일교육 방향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북한관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종래의 고정관념에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큰 변화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김정일 신드롬' 등 혼란

첫째, 북한 집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의 충격적 돌변현상이다. 그동안 한국인은 김 위원장을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괴에 굶주린 독재자, 포악한 냉혈동물, 언어장애자, 안하무인격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이미지는 뒤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소탈한 성격, 매우 명석, 예의바른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인상, 합리적, 인간적, 믿을 만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학과 교수〉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과 부드러웠던 평양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후속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능한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이나 표현을 삼가코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속개를 통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내친 김에 조성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북한의 비위를 건드릴만한 정책이나 표현은 자제하려 한다.

셋째, 화기애애했던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로 연결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세 가지 변화는 통일교육도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매우 신중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양회담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통일교육은 결코 들떠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중심을 잃은 신문들의 보도 및 논평 기사를 보고 "마치 평양의 노동신문과 같다"고 개탄한 바 있다. 통일교육도 그렇게 중심을 잃고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듯이 백년을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들뜨지 말고 긴 안목에서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향도 적응되어야 하지만, 변화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정일의 계산된 제스처에 일반 여론이 흥분한다고 해서 거기에 통일교육도 덩달아 춤을 추어서도 가치관의 혼란만 부를 뿐이다.

물론 평양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되는 호전 양태에 맞추어 교육내용도 희망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지난 55년동안 전쟁과 증오 그리고 대결과 불신으로 굳어져 왔음을 상기할 때, 단순히 54시간 동안 두 정상이 한 악수와 포옹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는 없다. 동서독의 경우도 양국정상들의 한차례 만남으로 모든 방향이 뒤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 집 짓는데 벽돌을 쌓아가듯 오랜 인내와 시간이 요구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인내와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양서 돌아오면서 분명히 피력한바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 후의 통일교육 내용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다 잘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해 주되 북한의 남조선 적화 속성은 변치 않았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들뜨지 말고 긴 안목으로

실상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북한은 변화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남한을 상대하면서 실리를 챙긴다는 변화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체제와 대남 적화 노선은 아직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속으로 변하지 않는 내용을 신중히 가려내 국민의 통일 대비의식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안보 교육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야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숭(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시미놀」성분을 대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완치!!

불교계 여성사이트가 없다

네티즌 늘어나도 사이버포교 외면

여성 홈페이지 40 · 타종교 7곳 '대조'



◇여성 인터넷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여성 사이버 포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면은 여성전용 인터넷 사이트 마이클럽닷컴(www.miclub.com).

최근 여성들을 겨냥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교계에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여성불교에 대한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을 위해 개설된 일반 여성사이트는 '선영아 사랑해'란 이색적인 광고로 눈길을 끌었던 마이클럽닷컴(www.miclub.com)을 비롯해 우먼플러스(www.womenplus.com), 아이지아(www.izia.com), 톡투미(www.talk2me.co.kr) 등 40여개 정도에 이른다.

이들 사이트들은 크게 여성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여성 종합 포털사이트와 여성들의 특정한 관심에 초점을 맞춘 전문 사이트들로 나뉜다.

마이클럽닷컴이나 우먼플러스가 여성 종합 포털사이트라면 베베타운(www.bebetown.com)은 임신 육아에 집중하는 전문 사이트며 아줌마(www.azooma.com)는 명칭 그대로 아줌마들을 위한 전문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선교 목적의 여성 종교사이트 현황을 살펴 보면 개신교 4개, 천주교도 3개 정도가 개설돼 있다.

이렇게 여성전문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주 원인으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부터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부 인터넷교육'을 통해 여성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최근 조사 발표한 '2000년 상반기 인터넷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사용자중 여성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의 29.3%에서 17.2% 증가한 46.5%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평범한 여성들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안방에서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사 신도인 심숙자보살(45. 강남구 대치동)은 "지난 4월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주부인터넷 교실에 참여해 현재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안다"며 "시간 날때면 불교인터넷TV의 사이버법당 및 교리강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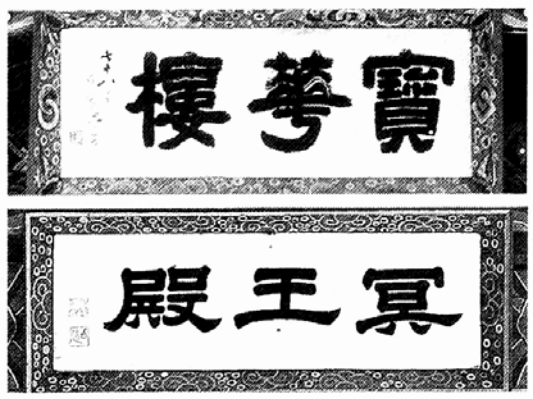
이런 추세로 볼 때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인 불교계에서 여성불교 사이트 개설을 비롯한 사이버포교는 시급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교연합회 등 7개의 여성단체에는 그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첨단 포교의 외면으로 교세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컴퓨터의 클릭 하나로 안방에서도 여성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 여성사이트의 개설은 앞당겨져야 할 과제다.

10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간사는 "여성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타종교에 비해 여성불교의 사이버 포교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 제작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성불자들이 불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⑩ 백련의 경국사 · 삼막사 편액



◇경국사 관음전 편액
◇삼막사 명왕전 편액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1852~1935)은 우리 나라에서 종두법을 처음 시행한 지석영(池錫永)의 형으로 김정희의 제자 여항문인 강위(姜瑋)의 문하에서 시문 등을 배웠다. 또 유 · 불 · 선에 두루 능통했으며, 시 · 서 · 화에 뛰어난 삼절(三絶)이었다. 백련은 1884년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주사가 됐고, 1886년에는 사대당(事大黨) 정부의 밀령을 받고 김옥균, 박영효 등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 압송된 후 영변에서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895년 유배에서 풀려나 재기를 꿈꾸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둔하며 시와 그림에 몰두하였다.

백련은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노년에는 동생 지석영과 함께 관악산 연주암과 삼막사에서 오랜 동안 기거하기도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안양 삼막사에서 잠시 승려 생활을 했다고도 한다. 그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안양 삼막사 〈명왕전〉, 서울 경국사 관음전 〈보화루〉, 서울 봉은사 〈영산전〉 편액 등을 남겼다.

서울 경국사 관음전에 걸려 있는 〈보화루〉 편액에는 '칠십팔옹 백련 지운영(七十八翁 白蓮 池雲英)'이라는 관지와 '백련(白蓮)'이라는 주문의 방인이 있다. 이 편액은 백련이 79세 되던 1929년에 쓴 것으로 당시 주지로 있던 보경(寶慶)스님이 절을 중수하면서 그의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한예(漢隸)를 아운(雅潤)한 필치로 써낸 것으로 노경에 이른 선비의 청아(淸雅)한 정신이 엿보인다.

보화루 노년 선비의 청아한 정신 담겨

명왕전 삼막사 머물며 쓴 예서체 백미

안양 삼막사 〈명왕전〉 편액에는 액관 좌측에 '지운영 백련(池雲英 白蓮)'이라는 방인의 도서 2과가 있다. 이 편액은 백련이 노년에 이 절에서 지낼 때 쓴 것으로 보인다. 명왕전은 경부전의 이칭으로 전각에 따라 주존인 지장 보살이 강조될 때는 지장전으로, 명왕이 강조될 때는 명부전으로 불리는데 그 내부 구성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다. 편액의 글씨는 대부분 그의 예서가 그렇듯 한예(漢隸)에 바탕을 두고 쓴 청수(淸秀)한 서미의 글씨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비만과 변비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갖가지 피부질환과 대책없이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시원한 민소매 옷이나 수영복을 마음껏 입을 수 없는 여성들은 여름이 더욱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미, 주근깨로 인한 거친 피부와 뱃살의 최대 주범은 변비다. 특히 변비로 인해 몸에 쌓인 노폐물에서 나오는 요산요독 일산화탄소 등 맹독성 가스는 장기를 중독시켜 기능을 떨어뜨린다. 변비는 또한 복통, 소화불량, 대장게실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변비는 비만을, 비만은 변비를 일으킨다. 변비로 대장 움직임이 둔해져 지방 분해가 안 되고 가스가 차면 아랫배, 일명 똥배가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배변 횟수가 1주일에 2번 이하 △배변량이 35g 이하 △배변 뒤에도 잔변감이 있다 △변이 가늘거나 딱딱하다 △배변 때 과도한 힘을 줘야 한다 등의 증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이 3개월 간 지속될 때를 말한다.

물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 식사

야채 · 과일 등 섬유질 식품 좋아

비만의 근원이 되는 변비 퇴치법을 알아보자.

1)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2) 배변은 아침식사 뒤에 한다.
3) 물을 충분히 마신다.
4) 야채나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5) 산책이나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6) 배변 뒤에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 항문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7)스트레스는 장을 해친다.
8)갑작스런 배변 습관 변화나 가는 변, 피나 점액이 묻은 변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하다.

"율동 · 동요 부르기 너무 재밌어요"

소원적은 풍등 띄우기도 인기

2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7일부터 1박2일간 강남 봉은사에서 '제2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열었다.

"자, 이제는 스님이 뛰실 차례예요. 여러분 힘찬 응원 부탁합니다." 17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제2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회' 현장.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정호스님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2백여명이 편을 갈라 홀라우프 게임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열기구처럼 만든 풍등에 참가자 2백여명의 발원을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낸 순서다. 풍등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개인소망에서부터 더욱더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원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열린 작곡가 정유탁씨의 창작 찬불동요와 율동 강의시간에는 한동작이라도 더 몸에 익히려는 듯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이외에도 종이놀이법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법, 정호스님의 불교기초교리 강의 등이 펼쳐졌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선재 청소년지도자 연수

선재연구모임은 7월1일부터 2일까지 남양주 봉인사에서 '제4차 선재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전래놀이, 자연놀이 등 7개 분과로 나눠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위빠사나 △금강선무도 △찬불가지도 △불교습의 △대동놀이 △불교레크리에이션△심성계발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02)433-1506

미황사 한문학당 열어

해남 미황사는 7월22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미황사 세심당에서 '어린이 한문 학당'을 개설한다. 새싹불자들의 정신수양을 위해 참선교육도 병행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자소학〉을 교재로 법인스님(대둔사 수련원장)과 금강스님(미황사 주지)이 강의한다. 또 다도를 비롯한 생활예절 교육과 문화체험도 곁들여진다. (0634)533-3521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은 7월16일 인터넷 상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2회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연다. 또 양정 청소년회관의 마스코트가 될 'power1318 지킴이'의 이름도 7월16일까지 공모한다. 1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는 이번 행사의 지킴이 캐릭터는 www. power1318.com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 청소년 문화축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경주지회는 24일 오후 2시 불국사 불교사회교육원에서 '제4회 경주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 유치부를 비롯해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D.D.R 경연대회와 테크노댄스 대회, 즉석 노래방, 퀴즈대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청소년 눈높이 맞춘 큰스님 선문답

충북파라미타 '직지심체'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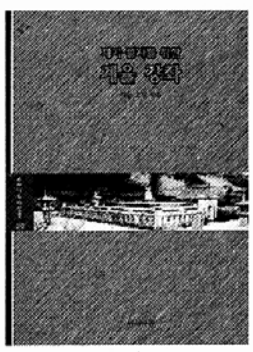


충북 파라미타지회는 과거 부처님과 인도의 역대조사 스님을 비롯해 중국 대덕스님들의 깨달음과 선문답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최근 발간했다. 상하편으로 구분돼 있는 이 책에는 부처님의 과거칠불에 대한 이야기와 인도 28조사 및 중국의 6조사가 소개돼 있다. 또 중국 5가기연 편에서는 임제종, 조동종 등 각 종파 스님들의 선문답이 40편 실려있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1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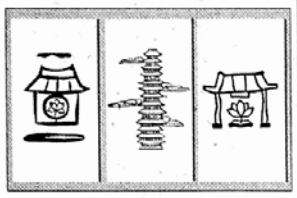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냣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싱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엄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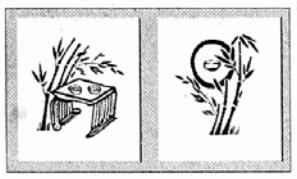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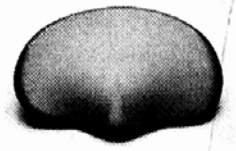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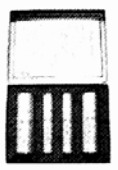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아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한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원
무개폐형 ₩15,000

조상묘지용 통 히란야



▸종도및효능
산소수맥차단 및에너지장을 변화시켜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작
히란야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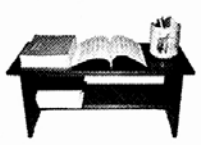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종도및효능 남녀공용 브로치형 메달
▸재질: 천명자수정,大부작 은태탑순금도금, 루비 세팅
▸효능: 정화처음에너지가 발생, 기슴(챠크라) 심장이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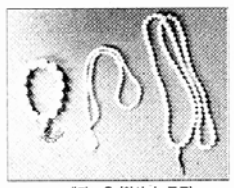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 90,000 / 세작 ₩ 50,000
중작 ₩ 30,000 / 대작 ₩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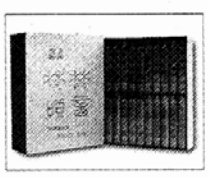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삼보미용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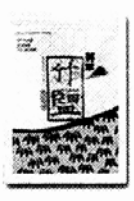


피부에 기생하는 진성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표면을 갈아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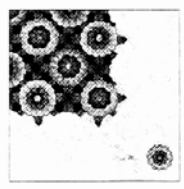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가격:₩5,000
· 문양: 홍문사 대웅전 창살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창포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2. 죽염의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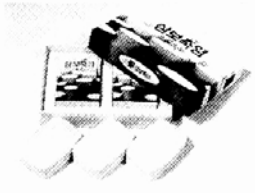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판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밑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볼(훈찜)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칠분, 각종 필수미네랄이 생성 응합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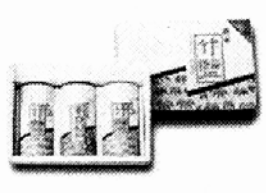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증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거담, 종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쇄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9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삼보죽염 세트
응량 : 600g
가격 :₩105,000



삼보죽염비누
응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응량 : 600g(분말 알갱이 종화씨환)
가격 :₩108,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화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붐 확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탑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신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자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의료분쟁

전공의들의 파업과 병·의원의 집단폐업으로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경을 헤매거나 목숨을 잃는 초유의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한 겁없는(?) 의사들과 준비없는 정책 강행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냉정한 머리'로 사태를 직시하고 빨리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고충을 풀어줄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다툼은 여러사람에 고통준다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바르게 보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나머지는 주변 조건이다. 〈팔리 율장대품〉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이른바 탐욕과 성냄과 어둠이 없는 세 가지 선근을 많이 짓는 것이니 모든 비구들은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사람이 먼저는 악을 저질렀어도 선한 행으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 사라진 뒤의 달과 같아라. 〈출요경〉

▨탐애에서 탐애가 생기고, 탐애에서 미움이 생기며, 미움에서 탐애가 생기고, 미움에서 미움이 생긴다. 〈잡아함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찰하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틀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망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인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헤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집경〉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오는 때에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며,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의 물 가진 것을 보았을 경우엔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내계경〉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에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하자. '저이가 말하는 글귀는 바르지만 뜻은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비구는 그 말을 듣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뜻은 이러하고 너의 뜻은 이러하다. 너의 뜻이 이겼다'고 하거든 그 비구가 이렇게 말할 때 또한 그것을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고 그치게 하고 또 마땅히 함께 바른 것을 찾도록 하라. 이렇게 비구는 다 함께 화합하여 싸움질을 하지 말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에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하자. '저이의 말하는 글귀도 바르고 뜻도 또한 바르다'고 하거든 비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르다고 하지 말고 마땅히 그를 칭찬해 말하라.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고. 〈청정경〉

신행 캘린더

6월28일 (수)

■ **통도사 경봉 대종사 열반18주기 법회**=통도사는 오전10시 극락선원에서 경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083

■ **조계종 국립공원정책 워크숍**=조계종의 참여연대 소송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는 오후2~6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사찰과 국립공원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첫 번째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5-5864

■ **탄성스님 49재**=조계종 원로회의장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49재 중 3재가 법주사에서 봉행된다. 043)543-3615

6월29일 (목)

■ **정문연 한국종교 정체성 모색 분과토론**=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오후1시 정문연 강당에서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종교의 정체성 모색'을 주제로 분과토론이 진행된다. 031)709-9552

■ **지리산댐 범불교대책위 창립**=지리산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대책위는 오후3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02)720-1654

6월30일 (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참선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몸가짐을 정결하게 할 때다.

■ **조계사 참선수행 교실**=조계사는 오전10시30분과 오후7시 두차례에 걸쳐 '자신을 바라보는 참선 수행 교실'을 개설한다. 02)732-2115

■ **은평노인복지관 1주년 기념식**=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오전11시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및 종교계 인사, 정당대표, 각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02)385-1351

7월1일 (토)

■ **기초교리반 수계식**=동화사는 제3기 기초교리반의 수계식을 대불전에서 봉행한다. 053)982-0101

■ **성철 선사상 연구원 월례발표**=성철선사상연구원은 오후2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려대 철학과 강사 김미영씨가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귀씨가 참여한다. 02)744-1541

7월2일 (일)

■ **김증표 사진전**=불자 사진가 김종표씨가 오는 14일까지 강화도 청송예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수행, 가르침, 깨우침'을 주제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시각화한 사진들이 선보인다. 032)937-2500

■ **백제불교 성지 참배**=한국석불선양회는 백제 불교의 성지인 서산과 홍성을 찾아 마애삼존불과 용봉산 마애석불을 친견한다. 출발은 동대문 이스턴호텔앞 8시. 016-267-7945 이귀인.

■ **'현대사회와 불교' 강의**=삼보회는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에 대한 강건기 교수(전북대)의 강의를 개최한다. 02)913-2859

7월3일 (월)

■ **강행복판화전**=지하철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판화가 강행복씨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판화전시회가 마무리된다. 02)732-2183

■ **아비달마(논장) 강의**=상좌불교 수행처인 보리수 선원은 오는 15일까지 2주간 아비달마(논장)강좌를 연다. 일반인들은 좀체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아비달마강의는 미얀마에서 온 우 케인다 사야도가 지도한다. 02)928-2844

7월4일 (화)

■ **천태종 금강불교대 도보정진**=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제2회 도보정진이 9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도보코스가 50km 더 추가된 이번 도보정진에서는 금강불교대 재학생과 총동문회 회원등 150명이 참가하여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총본산 구인사 적멸보궁까지의 구간 250km를 걷게 된다. 02)3460-5300

법회안내

6월 다보법회 설법



정무 영월암 주지 스님은 28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의 법사로 참석, 법문한다. 02)703-0108

국청회 교리강좌



무진장 스님은 7월7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국청회에서 청·장년 및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불교교리를 가르친다. 장소는 종로구 수송동 원당빌딩 3층. 02)730-1249

원우회 초청 법문



정락 용주사 주지는 28일 오후6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우회 주최 법회에서 '기초교리'를 강의한다. 02)735-5863

초기경전 강의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은 28일 오후 7~9시 종단협 강의실에서 경불련이 마련한 '초기경전 읽기' 모임에서 강의한다. 02)3147-2600

게시판

알림

▲**장학승 선발**=조계종 교육원은 국내의 불교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공고문 참조. 마감은 8월31일. 02)732-4923

▲**동원학술상 공모**=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제2회 동원학술상을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동국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접수는 9월11~25일까지. 동원학술상 수상자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2260-8761

▲**가족인연맺기**=자양사회복지관은 수양부모 인연을 맺어준다. 부모 및 양육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양부모 가정 속에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인연맺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02)458-1664

모집

▲**행자**=대구 법왕사는 행자 1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남자로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학비전액을 지원한다. 053)766-3747

▲**도서기증 접수**=전북불교회관은 불서 전문 도서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서를 기증 받는다. 063)277-3497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신체적 장애와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도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장구를 구비할 수 없었던 지역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워커, 좌변기 등의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한다. 02)989-4215

▲**합창단원 및 청소년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창단원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각각 모집한다. 02)852-0525

▲**미국 불교대학 수강생**=미국 오렌지카운티의 정혜사는 '정혜사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제1기 학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8월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미국)714-995-3650, 909-517-1827

▲**영정사진 서비스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푸드뱅크 후원**=부천 덕유사회복지관은 신선한 육류와 어패류, 채소, 빵 등 푸드뱅크(food-bank)을 후원해 줄 기관 및 개인을 기다린다. 031)325-2161

▲**경로식당 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월~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결식 어르신 150여 명에게 제공하는 중식 준비와 서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16-4215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선동민요, 스포츠맛사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02)365-3677

▲**불우이웃 도우미**=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비롯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을 전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분은 텔레서비스, 가정봉사원, 밑반찬 배달, 결식 청소년 도시락 배달 등이다. 02)2282-1100

▲**반찬지원서비스 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1개월 2회 매주 1·3째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3시 밑반찬 준비 및 배달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집한다. 02)571-2988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반**=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6시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자격증반 강의를 실시한다. 051)363-2063

구인

▲**사무장**=광명선원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의 신심있는 여성불자를 대상으로 사무장을 구한다. 02)584-1108

화촉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의 장녀 정아씨가 25일 대검찰청 예식장 벨관 4층에서 장창조·배선일씨의 삼남 호중씨와 화촉을 밝혔다.

처절한 영욕이 교차하는 피와 땀의 역사!

한국불교 100년
1900~1999

편자 : 김광식 / 사진 : 윤창화

도전과 좌절, 회고와 반성 그리고 냉엄한 평가!
한국불교, 지난 100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100년, 그 사이 우리 불교는 일제치하에서 갖가지 수모를 겪었고
해방 후에는 비구 대처간의 싸움으로, 70년대 이후에는 문중간의 싸움으로,
90년대에는 폭력과 각목이 난무하는 종권 다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로운 불교 건설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총 1,100여 점의 각종 기념사진과, 신문기사, 인물, 문화재 등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사진들은 우리가 거의 볼 수 없었던
희귀 사진들입니다.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국배판 460쪽 아트지 / 값 58,000원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매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사찰 내 암반굴착 공사 전문

당사는 암반굴착 전문 기술 업체로 사찰내의 석굴불사 축조 및 기타 불사에서 암반제거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축조작업과 같은 터널작업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성심껏 작업하겠습니다.

▶ 시공방법
① 다르다, HRS 등에 의한 무진동 굴착 공법
② 플라즈마, 제어발파 등에 의한 미진동 굴착 공법… 그 외 여러 가지 공법 중 주변 환경과 작업여건에 따라 공인기술 자격을 보유한 본사의 기술진들이 적절한 공법을 적용, 원하시는 대로 실현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02)719-5371/2
02)719-7614(FAX)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1511호

"현재 상주시 연수암 내 석굴 불사 축조 작업 중"

(주) 세현 ENG 기술사사무소

폐교가 참선도량 됐다

금강선원 홍천에 5천평 선문장 개원

법당·선방 갖추고 장·단기 프로 마련

여름 참선학교·주말 명상농장도 운영

폐교가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원장 혜거)이 7월 13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 재가자 참선도량 선문장(禪門莊)을 개원한다.

대지 5천평에 마련된 선문장은 금강선원이 지난해 9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대봉초등학교를 임대받아 법당, 강당, 선방 6개, 요사 등으로 개조한 것. 선문장의 참선 지도는 무각, 청아스님이 맡으며, 보살과 거사선방 주말선방 가족선방 등 대상에 따라 구분돼 있다.

혜거스님은 선문장이 재가선방인 만큼 입·출소가 자유롭고 3~6개월 코스의 장기수련프로그램과 10일 단기 프로그램, 1박2일 주말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통 수행방법을 재가불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 수련프로그램의 경우 〈원각경〉에 근거하여 수식관, 관법, 병행법 등으로 10일간 예비선방에서 공부한 뒤 12시간동안 참선하는 본방에 입방케 한다는 것.

참선증에는 옛 선사들의 오도기연 설법과 좌선의(坐禪義), 신심명, 증도가 등의 선전(禪典) 강의가 이뤄지며 정기적으로 큰스님 초청법회와 불교학자 특강, 인터뷰를 통해 경계를 수시로 점검받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강선원은 부설 여름참선학교와 주말 명상농장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포교에도 적극 나선다.

참선실수와 자연학습프로그램을 가미한 여름참선캠프는 올 여름부터 개최되며, 내년초 개장할 주말농장은 불자 가족들이 2천평 토지를 일구며 선농일치의 묘미를 깨우치는 장으로 운영된다.

혜거스님은 "일반시민들이 참선하고자 하여도 수행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고, 기존의 일부 재가선방에서는 재가자 참선지도에 승가의 선방을 모방해 재가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지적하며 "일대일 지도를 받으며 참선의 기본부터 탄탄히 수련케하여 수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366) 433-584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금강선원이 7월13일 개원하는 홍천 선문장의 전경.



포교사 30명이 생활상담

부산경남 포교사단 1일부터

부산·경남 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이 7월 1일부터 생활상담실을 운영한다. 포교사단에서 직접 생활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생활상담실에는 부산·경남포교사단 전문 포교사들 중 상담팀 분과의 포교사가 상주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자, 가정폭력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3평 규모의 상담실에는 부산·경남포교사단 상담팀인 여여회(회장 왕선자)와 진여회(회장 하규량)에 소속된 30여명의 포교사들이 교대로 상주, 상담을 받는다.

부산·경남포교사단은 생활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법률·세무회계·건축설계·장의·부동산·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있다. (051)867-7799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밭불교회 국립묘지서 영산대법회

대전·충청지역 스님들의 모임인 한밭불교회(회장 원각·광법사 주지)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25일 대전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국태민안·세계평화기원 호국영령 영산대법회를 거행했다. 한밭불교회는 지난 93년부터 매년 6월25일 호국영령영산대법회를 개최해 왔으며 소년·소녀 가장 및 영세민 돕기, 군부대교도소 위문법회 실시, 불교미술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0412)752-5345

김재경 기자

법왕사 백고좌법회 회향

지난 3월13일부터 100일간 계속된 법왕사 고승초청 백고좌법회가 20일 회향됐다.

법왕사(주지 실상)는 이날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오후 2시에 회향식을 가진데 이어 가수 김흥국·장미화씨등 불자 연예인이 출연하는 어울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매년 1백인의 고승을 초청해 경율론 삼장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산사서 여는 태교특강

파계사 28일부터 8회

팔공산 파계사(주지 성우)는 28일부터 8월2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태교명상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성우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태교법회는 2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첫회를 제외하고 모두 1박2일간 토·일요일을 이용해 열리며, 4·5회는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프로그램에는 불교명상체험과 차문화강좌도 포함되어 있다.

매회 선착순 50명 마감이며 참가비는 1만원.(053)984-4550

이윤호 기자



신도들이 훼불방지 나섰다

관문사 처사회 야간순찰

최근 발생한 동국대 석가여래상 훼불 등 일련의 타종교 광신자들의 사건 등으로 인해 불교계가 또다시 긴장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천태종 서울 관문사 처사회(회장 최인영)가 "우리 절은 우리가 지킨다"는 취지로 자발적인 야간 경비활동(사진)을 펴고 있어 화제.

관문사 처사회는 이달 초부터 매일 밤 4명의 회원으로 야간 순찰조를 편성, 밤 9시부터 예불시간전인 새벽 3시까지 경내 외 순찰을 돌고 있다. 관문사 처사회의 이같은 순찰활동은 관문사가 워낙 큰 절이다 보니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라 철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신도들이 야간에 사찰을 참배하면서 생길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교도나 불순분자의 훼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 스님들과 신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경숙 기자

법화정사 통일발원 법화경 사경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의 법화정사와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사 신도 8백여명은 18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분단 55년 만에 성사된 첫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평화통일과 구국안민을 발원하는 〈법화경〉 사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화경〉을 처음 사경하는 불자에서부터 30번, 많게는 100번 이상을 사경한 불자들이 다수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 매화복지관장 수현스님, 약수사 주지 광옥스님, 동국대 송석구 총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양자씨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날 동참자들의 법화경 사경지는 8월15일 광복절날 제주도 평화통일불사리탑에 봉안된다.

도필선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일요가족법회 창립

17교구 본사 금산사는 25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일요 가족법회를 창립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봉행되는 가족법회는 효사상과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사는 또 2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전북불교회관에서 낙태방지 및 낙태영가를 위한 49일 백중(우란분절) 기도를 거행한다. (0652)275-4626

여름 수련회 첫 개설

14교구 본사 범어사는 개산 이래 처음으로 시민대상의 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26일-29일까지 2박 3일 동안 휴휴정사, 보제루, 설법전 등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인원은 100명. (051)508-3636.

천태종

산하단체 하계 수련회

전국청년회(회장 이문수) 하계 수련법회가 7월15일~17일 총본산 구인사 인광당 5층에서 거행된다. 청년회원 5백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법회는 극기훈련, 불교성지순례, 불교교양 강좌, 설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7월18일~20일 구인사 관성당과 남천계곡 일대에서 열린다.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박용관)도 7월21~23일 구인사에서 하계수련법회를 연다.

진각종

울릉도 금강원 성지참배

53주년 창교절 기념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 울릉도 금강원 참배법회를 3차례에 걸쳐 봉행한다. 성조 통리원장 등 종단스승 25명이 동참하는 1차 참배법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며, 종립 위덕대학교 교직원 등이 동참하는 2차 참배법회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교계 및 일간지 기자단 초청 울릉도 순례행사는 7월중 개최된다.

조불련서 창교절 축전

14일 진각종 53주년 창교절을 맞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는 이 메시지에서 "창종이래 진각종이 걸어온 애국애민의 실천행은 오늘 광범한 대중의 환영을 받고있다"면서 "창교절을 맞아 전체 교직자들과 신도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했다.

대한법화종

순국선열 위령수륙재

김해 창녕 교구(원장 정봉스님)는 7월 5일 오전 10시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국민관광지에서 순국선열과 전몰 군경을 위한 무차수륙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마산교구(원장 일파)도 1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인 당항포 국민관광지에서 남북교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국태민안 대법회를 개최한다.

선각종

천봉사 불상개금 회향법회



선각종 종정 정업스님과 총무원장 정암스님, 천봉선원 조실 도륜스님, 가야불교대학 조희일학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은 16일 천봉사(주지 지훈)에서 부처님 개금 회향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비용은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액운을 가져오는 새천년 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곡 소장하여 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한국 수맥파 방지 충연합회 인증 100% 효과

부식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 ://www.korea-art-gallery.org
http ://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전화 : (02)2242-0331, 2242-0255
E-mail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야생짐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덮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 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미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숲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숲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숍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3, 682-4965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지리산댐 반대" 전국 확산

함양·산청·남원 불교연대 발족

환경단체들 '백지화 국민행동' 추진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해 지리산지역 3개 시군의 불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지리산댐 반대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함양·산청·남원의 사암연합회와 주민·환경단체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은 20일 함양읍 위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리산 살리기 댐백지화 함양·산청·남원 불교연대'(상임대표 성후스님)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댐건설계획 백지화운동에 나섰다.

불교연대는 이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200여개의 사찰과 국보7점 보물41점 지방문화재52점을 간직한 노천박물관이자 생태계의 보고"라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불교연대는 앞으로 10만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걸기, 환경·시민·종교단체와의 연대투쟁, 수자원공사와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및 규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증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여론을 수렴하고 21일에는 문정댐 건설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회분과위는 이에 앞서 20일 오전에는 강석정 합천군수를 방문, 가야산을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및 노선변경을 요청했다.

21~22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교육원 주최 경북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에 참석한 214명의 주지스님들과 전북불교총연합회도 22일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24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에 참석한 단체들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마당을 펼치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도 7월 중순 지리산 실상사에서 '지리산'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 농심마니 등 환경단체들은 7월4일 오후2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칭)'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을 발족시켜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할 방침이다. 29일 오후3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출범하는 (가칭)'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와 연대해 국민적인 댐 백지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재경·이윤호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는 20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연대

무등산 온천 개발 반대 집회

10년간 끌어온 무등산 온천개발계획에 스님, 신부, 원불교 교무 등 성직자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광주지역 43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등산 온천개발저지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소속회원 300여명은 17일 광주역 광장에서 '무등산 온천개발계획철회 범시민대회'를 열고 서명운동과 함께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책회의는 이날 집회성명을 통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무등산 온천개발계획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기로 뜻을 모으고 광주시당국과 개발업자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장에는 증심사 문민정사 원효사 관음암 스님 30명을 비롯, 원불교 교무들, 천주교 신부들이 주최측에서 나눠준 밀짚모자를 쓰고 자리를 함께 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영조스님(증심사 주지)은 "온천개발이 강행될 경우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1 수원지 일대는 물론 증심사 등 산내 사암들의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복지정보센터

타종교보다 '운영우수'

지난 98년부터 구축되고 있는 종교계 복지정보센터 가운데 불교가 비교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 주최로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종교계 사회복지 정보화 대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 및 사회복지 사이버 교육장인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자료실 등은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 없거나 훨씬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품이나 기부금 등 각종 후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안내나 구인구직, 공동모금 등 정보제공자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과의 쌍방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연꽃마을 부설의원 정상진료

전국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이 20일 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수원, 청주, 안양, 대구 등 전국 14개 연꽃마을 부설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수원 광명의원 최귀동 원장은 "다른 동료 의사들로부터 폐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기는 했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의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폐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은 전문의 120여명이 폐업에 참여한 가운데 의사 겸직교수와 응급의료진 120여명이 24시간 진료에 나섰다. 그러나 폐업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명우 기자

'불교포럼'으로 명칭 변경

새시대불교포럼은 21일 조계사 강의실에서 2000년도 총회를 열고 단체명을 '불교포럼'으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공동대표에 박승원·김연규씨를 선출하고 불교발전위원장에 박경준, 사회정의위원장에 손혁재, 평화통일위원장에 조성렬, 시행위원장에 노귀남, 감사에 유연씨를 각각 선임했다.

김재경 기자

관음종 호국영령 추모법회

6. 25 5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 관음종은 20일 대전 현충원 대법당에서 호국영령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 종정 혜웅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작법, 위령대재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6. 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50년간 지녀온 반목과 적대를 사랑과 이해로 승화, 합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 21세기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경숙 기자

"불상·탱화등 보상대상 제외 재개발 토지수용 사찰손해"

하월곡동 성도사, 행정소송 하기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며 사찰을 일반 주택과 같은 보상조건을 제시해 사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법에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 성도사 주지 해경스님에 따르면, 월곡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이 사찰토지를 수용하며 불상 탱화 벽화 등 불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고 일반주택에 준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성도사 토지 71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7천만원을 제시한 반면, 성도사는 최소 6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하월곡동 77번지 일대에 3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98년 3월부터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해경스님은 "불상 불단 달집 탱화 벽화 단청 등은 현재의 건물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전할 경우 모두 새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사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성도사의 재결신청에 대해 지난 7일 "대책 등은 신청인이 수립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수용법 49조 1, 3항에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49조 3항에는 건물·입목(立木)·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이와 관련 22일 재개발조합과 성북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사찰에 대한 보상이 일반주택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찰을 홀대한 처사"라며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간병인 전문과정 개설

대구 송향사 보건교육원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송향사 부설 불교보건교육원(원장 정환)이 불자 간병인(호스피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의료기관과 요양 및 복지시설, 가정간호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할 간병봉사자를 양성하게 될 이 전문과정에서는 기초간호, 영양간호, 개인위생, 질병 예방 및 치료, 치매간호 등 간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강습하며 교리강좌도 병행한다. 강의는 7월3일부터 4주간 일정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053)311-8922

한명우 기자

100일간의 대기설법

정토회 즉문즉설법회 회향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제자의 근기에 따라 방편설을 하셨다. 한 행인이 부처님께 서울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묻는 사람이 인천 사람이면 '동쪽으로 가라'하고, 수원 사람이면 '북쪽으로 가라'하고, 춘천 사람이면 '서쪽으로 가라'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대기설법의 방식으로 지난 100일간 진행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의 '즉문즉설'법회가 21일 막을 내렸다. 이날 즉문즉설 회향법회는 2백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식으로 진행됐다.

매주 4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당을 가득 메울 만큼 인기를 끈 정토회의 즉문즉설 법회는 스승과 제자가 눈높이를 맞추는 현대적 대기설법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법사가 일방적으로 법회 분위기를 좌우하는게 아니라 법사와 신도가 함께 법회를 운영하는 대중참여의 법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즉문즉설 법회에서는 거사들의 법명은 두 글자인데 여성들에게는 왜 세 글자의 법명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법회에서 다뤄진 질의 내용은 신도들끼리의 난상 토론으로 이어져, 정토회 홈페이지에 그들만의 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법륜스님은 "현대인들은 생활과 욕구가 가지각색이고, 거기에 따른 인생의 고민도 천차만별이다"며 "청중과의 교감을 시도했던 이번 즉문즉설 법회가 그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토회는 오는 9월 제2회 즉문즉설 법회를 봉행한다.

도필선 기자



◇100일간 실시된 정토회의 '즉문즉설', 법회가 21일 회향식을 가졌다.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용두사미 안됐으면…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준비위원회가 다시 출범을 위한 돛을 올렸다.

'교육강화'가 먼저냐, '전국 조직 재건'이 우선이냐를 놓고 조계종 포교원과 오랜 줄다리기를 벌여 오던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준비위원회가 포교원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3개월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先 교육을 통해 기름진 텃밭을 일궈놓고 알찬 열매를 거둬들이려 했던 애초의 의도에서 전국 불교여성 지도자를 망라한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시킨 뒤 살을 조금씩 불려가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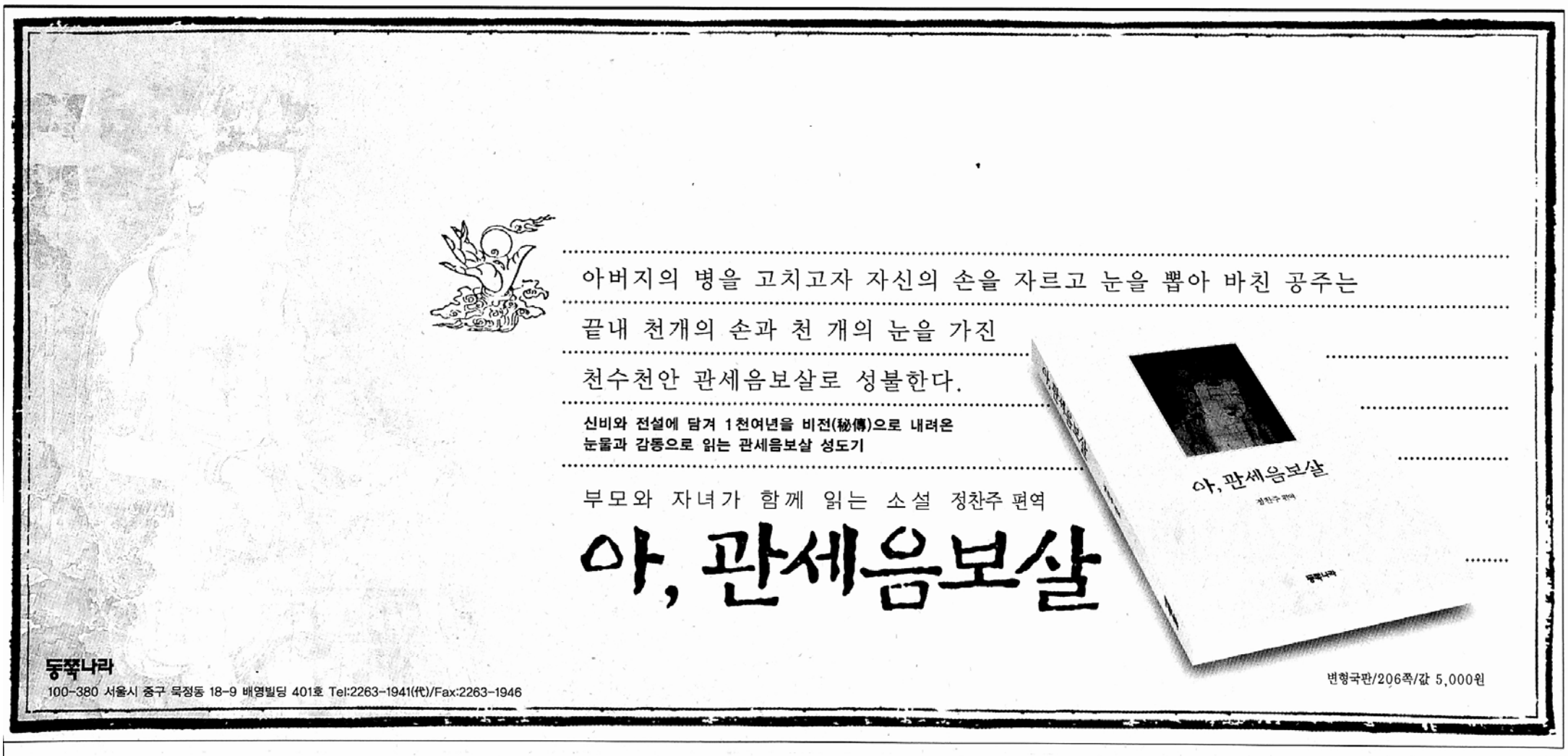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인원만 확보해 놓고 창립됐다가 제대로된 사업 한번 벌이지 못한 채 흐지부지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화려한' 출발을 선택한 준비위의 이번 결정이 잘한 일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산고를 거듭해 온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에 가속이 붙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준비위는 22일 제3차 소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사찰 신행단체와 지방 여성불자들을 규합하는 안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세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중사업의 영역 확대'에 기저를 두기로 하고 6월 정관마련, 7~8월 인선작업, 9월 워크숍을 거친 뒤 10월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의 이러한 행보에 불자들, 특히 여성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여성개발원이 '전국 조직망'의 허울뿐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불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성된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특집상품정보

행운과 부를 불러주는 신비의 달마(達磨)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

달마란?

달마는 산스크리트어 'BOdhi dharma'를 소리말 적기한 보리달마를 줄여서 이른것이다. 보디(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다르마(dharma)'는 법(法)을 의미한다. 중국 선 문헌에 근거하면 각 시대에 따라 달마의 모습이 부단하게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의 개화기 이후 중국 선종의 시조로서 달마라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인간 달마

달마는 확실히 보통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이었다. 때로는 제자를편안하게 해주는 다정한 스승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오로지 벽을 향해 정진하는 끈질긴 수행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달마는 당시 중국에 온 서역 승려들처럼 신통력을 부려 왕실의 귀의를 받거나 주위의 눈을 끌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이색적인 손님이었다.

달마는 제목이나 화제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처님 귀처럼 기다랗게 늘어진 귀를 뚫어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고 매부리코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온 서역 승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에 텁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두건을 쓰고 있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한 얼굴을 하고 입을 모짚게 다물고 있어서 무뚝뚝해 보이나 눈이 살아있어서 그 뒷면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달마는 원래 신분이 왕자였던 만큼 매우 수려한 용모를 지녔다고 하는데 지금의 달마 얼굴과 연관된 재미있는 구전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다.

달마와 그에 얽힌 일화

달마상의 주인공 달마는 어떤 인물인가. 달마는 중국 선종의 시조인 보리달마이다.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서 일찍이 출가하여 반야다라에게 불법을 배워 대승선을 제창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가서 선법을 펴고자 노력했던 선승으로 알려져있다. 이뿐만 아니라 달마에 관한 전기들이 전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중 달마와 관련된 내용 몇 토막을 추려 소개하면 대강 이러하다.

달마가 중국에 도래한 연대는 대개 남북조시대인 양나라 무제 연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양무제는 많은 절을 짓고 불탑을 쌓고 많은 승려를 양성하였다. 달마가 인도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그를 궁궐로 초대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무렵 무제는 지금까지 자기의 공덕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참이라, 그 공덕이 과연 얼마나 큰가를 달마에게 물었다. 이에 달마는 거리낌없이 공덕이 조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의 칭송을 바라는 공덕은 이미 공덕이 아니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기대 밖의대답에 왕은 달마의 무례함을 괘씸하게 여겨 그를 은밀하게 죽인후 웅이산에 묻어버렸다.



스산비한 기(氣)를 발산한다는 달마향로와 촛대

그런 일이 있은 후 송운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사자로 갔다 돌아오던 중 총령에서 달마를 만나게 되었다. 달마는 지팡이에 짚신 한 짝을 꿰어 어깨에 메었고, 발은 그냥 벗은 채 였는데, 송운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달마는 "나는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던 길을 재촉했다. 송운이 서울에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이상히 여겨 달마의 관을 확인해 보도록 명령했다. 관을 열어 보니 놀랍게도 시체는 간데 없고 짚신 한 짝만 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달마가 아직도 살아 있음을 알게 된 왕은 군사를 불러 즉시 달마를 뒤따라가서 죽이도록 명하였다. 추격대가 달마를 발견했을 때 그는 양자강가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는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들이 덮쳐 잡으려 하자 달마는 강변에 늘어선 갈대 한 가지를 꺾어 강물에 띄우고 몸을 훌쩍 날려 갈대를 타고 유유히 강을 건너 가버렸다. 그후 양자강을 건넌 달마대사는 멀리 서쪽으로 들어갔다. 숭산 소림사의 뒤쪽산에 있는 동굴에 9년 동안 묵언으로 면벽참선하였다고 한다.

건강, 부, 사업번창, 불운재앙방지 수능시험 합격 기원을 위해 최적의 상품

달마의 사상적 배경

선종은 불입문자를 주장하여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불성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깊숙한 산간에 파묻혀 수행하는 이른바 좌선을 행한다. 달마가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 면벽 9년의참선을 행하여 불성을 깨우친 사실은 선종의 교리와 수행의 진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어서 달마 그림은 선승뿐만 아니라 일반 선비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그림으로 유행하였다. 그것은 인간세상과 격리된 경지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 했던 달마의 사상과 행적이 선비들의 도가적 은일사상과 연결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마의 향로와 촛대

달마 향로와 촛대라함은 선이다 선이란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말하지만 일반 신도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병을 해소하는 것이다. 화려한 불사 가운데서 마음을 수행하며 어려운 경전의 지식이 없이도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수행법이 달마향로와 촛대를 함께하는 선 수행이다. 이처럼 반드시 세상과 떨어져 깨달음을 얻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속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수양을 하는것이다.

내면에는 부처를 찾는 독특한 선사상이 베어있다. 고요와 마음의 평정함과 삶의 의무가 무엇이고 어떤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것이다. 대한불교달마선양회에서는 좀더 많은 신도들에게 마음의 평정과 자아를 찾아주고 싶어 달마향로와 촛대를 만든 것이다.

기(氣)를 발산하는 신비한 달마

달마는 TV에서 방영.증명된 바에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과 부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불교달마선양회에서는 신비의 기를 지닌 면벽달마향로와 청리달마 촛대를 작품으로 제작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달마가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향로는 달마상 안쪽에 향을 피워 향이 달마상 입으로 나올수 있게하여 신비로운 감을 한층 더해주며, 달마상촛대는 달마전신으로 만들어 달마가 촛대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소장가치를 더해준다.

건강과 사업번창을 위해, 수험생들의 시험대비합격을 위해 불철주야 기원하시는 불자님들께 최적의 작품이 될것이다.

달마상 향로는(16cm×22cm)이며 달마상 촛대는(13cm×29cm)로 240,000원에 1셋트로 한정접수하니 서두르는것이 좋을것이다.

주문방법은 전화접수후 전국내 빠른우편 발송으로 3일이내 받아 볼수 있다.

■ 작품보급원: 대한불교달마선양회
■ 접 수 문 의:080-234-1300
(24시간 공휴일도 접수함)



이제 달마(達磨)와 함께 소원성취(所願成就) 하십시요.

면벽달마 향로와 청리달마 촛대는 삼재와 팔난을 막아주고 수맥을 차단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달마상 향로, 촛대는…

- 달마의 옷깃하나까지도 그대로 재현해 내 옮겨놓아 그 소장가치를 한층 더해줍니다.
- 특수합금 재질로 만들어 그 신비스러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가정과 사업번창, 수험생들의 합격기원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에게 더욱 값진 작품이 될것입니다.

작품가격

달마상 향로/달마상 촛대 1Set
240,000원

40,000원 × 7개월 할부 됩니다.

※ 한정수량이므로 서둘러서 접수하십시요.

- 전화접수후 3일이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작품을 받아보신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 각종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합니다.(BC, VISA, 국민, 외환....)

접수처 : **대한불교달마선양회** (大連) (24시간 접수가능)

전국 **080-234-1300**

주소: 인천시 남구동 간석1동 900-141